

3-30-2018

##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 열린문 장로 교회를 중심 으로

Sungho Kim 김성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성호,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 열린문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8.

This Dissertation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FAMILY MINISTRY PROGRAMS FOR  
KOREAN AMERICAN FAMIL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UNGH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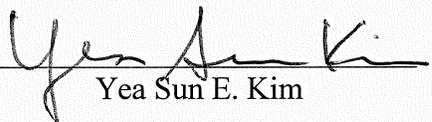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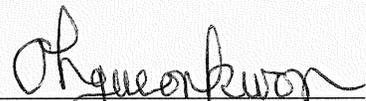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Yea Sun E. Kim

  
Ohgweon Paul Kwon

  
Euiwan Cho

March 30, 2018

**FAMILY MINISTRY PROGRAMS FOR  
KOREAN AMERICAN FAMIL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HO KIM**

MARCH 2018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 열린문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엄 예 선 교수

김 성 호

2018년 3월

## Abstract

Family Ministry Programs for Korean American Famil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Sungho Kim

Doctor of Ministry

201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established by God, can never be emphasized enough. Yet the current rapid cultural change and plurality is shaking the family at its foundation,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family. Suicides, gun violence, adultery, divorce, domestic violence, gambling, and drug abuse, as well as less dramatic issues, all demonstrate the need for the Korean American church to aim to prevent and heal problems in the family.

This paper studies family ministry programs through academic materials and research, with the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as its practical context. Following chapter 1,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fines family ministry and highlights its importance as well as the uniqueness and problems of the immigrant family. It proposes understanding family ministry not as an event-driven program but a required ministry related to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of value for all families within a local church. Chapter 3 examines the origins of the family, the purpose of the Christian family, and a biblical ethic of marital life, including divorce and remarriage. It suggests that all family problems rise from disobedience to God's commands, and it defines family ministry as what helps families to recover the original intention of God.

Chapter 4 discusses models of family ministry for the immigrant family and introduces the Family Ministry Department of the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step-by-step. It also suggests a development process for family ministry programs following family life patterns in order to foster long-term family ministry. As caring lies at the core of family ministry, the process focuses on recovery

ministry for helping and healing in crisis, as well as serving ministry and training lay leaders as disciples.

Chapter 5 reviews specific programs attempted by the Family Ministry Department at the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Two-to-One Marriage Prep School, Biblical Parenting Class, GIFT – A Couple’s Weekend Trip, Unity – A Couple’s Weekend Date, and Father-Child Camp. The chapter argues that these programs have not only helped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to grow, but have also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unity of the entire church. Chapter 6 proposes the Family Ministry Department’s future ministry programs: Marital Affairs Prevention and Love Dare as follow-up programs for the Two-to- One Marriage Prep School; and Covenant Marriage, Marriage Builder, and Marriage Mentoring for couples and mentor couples. Lastly, suggestions are made for seniors ministry and a Preparation for Heaven class in order for family ministry to become a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intergenerational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Yea Sun E. Kim, PhD

Ohgueon Paul Kwon, PhD

Euiwan Cho, PhD

## 감사의 글

먼저 이 귀한 배움의 장을 열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올바른 신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본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한 통찰력과 자상함으로 지도해 주신 엄예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풀러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추천해 주신 박아론 박사님과 필라델피아 뱌엘 장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재도 박사님 그리고 저의 멘토이자 스승이신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의 장만석 총장님과 HIS 대학교의 양은순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 논문은 실천의 현장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었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믿고 맡겨주신 열린문 장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훈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민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함께 했던 열린문의 가정 사역 동지들과 WCCI 와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의 카운슬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함께 기뻐해 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아들과 사위를 귀히 여겨 주시고 지치지 말라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이자 친구이며 가장 큰 동역자인 이은미 사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을 전하며, 아빠가 논문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힘차게 응원해준 사랑이, 연재, 연찬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18년 3월 김성호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5
제 1 절 가정 사역에 대한 이해	5
1. 가정 사역의 정의	5
2. 가정 사역의 이해	7
제 2 절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15
1. 이민 가정에 대한 이해	15
2. 이민 가정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	16
제 3 장 가정 사역의 성경적 기초	23
제 1 절 가정에 대한 이해	23
1. 가정의 기원	23
2. 기독교 가정의 목적	24
제 2 절 성경적 부부 관계	32
제 3 절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성경적 윤리	42
제 4 장 열린문 교회의 가정 사역의 역사와 현황	50
제 1 절 가정 사역 모델	50
제 2 절 가정 사역 준비 단계	52
1. 예방사역	54

2. 회복사역	55
3. 섬김사역	56
제3절 가정 사역 실시 단계	58
1. 초보적 가정 사역	59
2.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행	59
3. 전문화된 사역자 양성	61
4. 교회의 소그룹과 연결된 사역	64
5. 교회의 비전에 포함된 교회 전체 사역	66
제4절 위탁 사역	67
제5장 열린문 교회의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70
제1절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70
1.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72
2.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과 개선안	80
제2절 성경적 부모 교실	85
1.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87
2.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과 개선안	87
제3절 부부 수련회와 가족 캠프	105
1. 부부를 위한 주말 여행 GIFT와 주말 데이트 UNITY	105
2.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	110
제6장 열린문 교회의 미래의 가정 사역	116
제1절 결혼 예비 학교 후속 프로그램	116
1. 외도 예방 세미나	116
2. 사랑의 도전 (The Love Dare)	121

제2 절 부부사역	124
1. 소그룹 부부 모임	124
2. 멘토 부부 훈련	128
제3 절 실버 사역과 천국 준비 학교	131
1. 실버 사역	132
2. 천국 준비 학교	133
제 7 장 결론	138
부록 1. 가족치유 마음치유 강의안 요약	141
부록 2. “GS(Grief Share) 회복 모임” 강의안 요약	147
부록 3. “H2H(Heart to Heart) 회복 모임” 강의안 요약	149
부록 4. SR 배우자 학대지수: 당신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151
부록 5. Are You Victim?	153
부록 6. Worksheet for Safety Plan	154
부록 7.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강의안	156
부록 8. 재혼하려는 커플들이 되새겨 볼 이슈와 질문들	183
부록 9. 성경적 부모 교실 강의안	184
부록 10. 가정예배 축복의 통로	194
부록 11. 훈계 십계명	196
부록 12. 나는 결혼생활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가 진단 질문서	199
부록 13.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	200
참고문헌	201
Vita	211

## 표 목 차

<표 1> 가족 발달 과업과 생활주기	13
<표 2> 미국 출생자들과 교포 이민자 교육 수준 비교	18
<표 3> 코리언 아메리칸들의 네 가지 유형	21
<표 4> 교회와 가정 사역원의 비전	54
<표 5> 떠남의 신학으로 보는 Life Cycle	77
<표 6>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1	80
<표 7>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2	81
<표 8>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3	82
<표 9> 성경적 부모 교실 주제와 강의안	87
<표 10> 자녀 양육 유형	93
<표 11> 훈계와 징벌의 차이	97
<표 12> 훈계의 3 단계	98
<표 13> 성경적 부모 교실 설문지 응답 1	100
<표 14> 성경적 부모 교실 설문지 응답 2	102
<표 15> GIFT 일정과 진행안	107
<표 16> UNITY 일정과 진행안	108
<표 17> 아자 캠프 일정과 진행안	111
<표 18>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5	122
<표 19> 사랑의 도전 40 일 진행안	123
<표 20> 부부의 삶 진행안	125
<표 21> 결혼 건축가 진행안	126
<표 22> 결혼생활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들	130

<표 23> 엘림 자치회 조직표	133
<표 24> 죽음 준비학교 강의안	135
<표 25> SCOPE 성격척도	180

## 그림 목차

<그림 1> 가정 사역의 통합적 접근	9
<그림 2> 부부 피라미드	71
<그림 3> 가족 관계의 신학적 기초	86
<그림 4> 부부의 영적 친밀감	157
<그림 5> 커플 및 가족지도	177

# 제 1 장

## 서 론

### 제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sup>1</sup>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 사회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문화의 다양성과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서 한 사회의 견고한 기초여야 할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난과 개방화되는 성의식에 따른 배우자들의 일탈, 여성지위향상에 따른 가치관 갈등으로 인해 세계적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가정내 갈등으로 인한 자살과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청소년들의 폭력과 약물복용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수시로 보고된다. 부부 갈등, 외도, 이혼, 가정 폭력, 도박과 약물 중독, 청소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중심을 흔드는 변수들 앞에 이민 가정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sup>2</sup>

이민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율을 보이는 한인 가정의 이혼율이다. 한 가정의 깨어짐은 자녀와 부모가 겪는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거룩한 신앙 계승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적 과제이다. 미국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0 년에서 2012 년도 3 년치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ACS)’에 따르면, 한인 이혼자 비율은 5.6 퍼센트였다. 이는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sup>1</sup> George A. Rekers, *가정상담*, 오성춘 역 (서울: 두란노, 2007), 14.

<sup>2</sup> “흔들리는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크리스천 투데이*, 2004년 5월 12일자, 목회선교면. 2018년 2월 인용.  
Online: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3396&section=section4](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3396&section=section4).

3년치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자료보다 0.4 퍼센트 증가를 보였다.<sup>3</sup>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혼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도 점점 늘고 있다. 가정 폭력에 관하여 미국에 사는 한인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시카고(Chicago)에서 연구된 결과에는 256 명의 한인 여성들 중 18 퍼센트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up>4</sup>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San Francisco Bay Area)을 중심으로 214 명의 한인 여성과 121 명의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 퍼센트가 남편이나 남자 친구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up>5</sup> 이렇게 연구 결과들은 상의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통계 수치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언어와 경제적 자원 부족, 신앙적 갈등, 수치감과 죄책감, 복수에 대한 두려움, 자녀 문제, 그리고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 문제 등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처럼 인간 관계를 학습하고, 신뢰감을 발달시키며, 자존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본 단위인 가정이 폭력으로 물들어 버렸다.

본 연구자는 지난 26년간 이민 교회와 가정을 섬기면서 한부모 자녀들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정의 붕괴는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낯선 곳에서의 정착이라는 생활의 현실적인 절박함과 다른 문화 속에서의 가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민 가정들은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이 시대 교회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민의 땅에 세워진 한인 교회들이 교회사역 목표를 이민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고통을 치유하는 교회로 정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출발한다. 교회는 가정에서

<sup>3</sup> Online: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sup>4</sup> Jae Yop Kim and Kuy Taik Sung, "Conjugal Violence in Korean American Families: A Residue of the Cultural Tradition," *Journal of Family Abuse*, 4 November 2000, 331-345.

<sup>5</sup> Asian Women's Shelter, 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and 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Shimtu,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Bay Area Domestic Violence Needs Assessment Report*, (2000).

<sup>6</sup> 전명희, *가정폭력 예방 가이드북* (Annandale, VA: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 2006), 23.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가정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 사역은 가정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기초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민 교회는 먼저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고, 가정 사역에 교회가 깊이 관여하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 건강한 부부를 양육하고,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사역과 더불어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 교육에 관한 장기 목표를 세워야 한다. 특히 핵심 사역으로 부부 사역을 이민 교회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체계화된 훈련 과정으로 평신도 리더 부부를 양육하여 다른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예방과 진단, 치유, 강화의 회복의 사역 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재생산되는 가정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이민 교회들에서 가정 사역을 활성화 하려면 자료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정 사역을 심도있게 실시한 교회들의 사례들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둔다. 첫째, 가정 사역의 올바른 신학적 기초를 소개한다. 둘째, 열린문 교회에서 실시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을 소개한다. 셋째, 앞으로 열린문 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해야 할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을 소개한다. 가정 사역이 단순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이나 ‘가정의 달’을 맞아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듣는 단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교회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가정 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지만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이민 교회들을 위해 지난 8년 간의 열린문 장로 교회의 가정 사역을 소개하고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이 이민 교회들이 앞으로 가정 사역을 실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제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열린문 장로교회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가정 사역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적 연구 저서와 논문 및 참고 자료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본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가정 사역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에, 이민 가정의 특성과 문제점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 3 장에서는 가정의 기원과 기독교 가정의 목적, 모든 가족 체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와 이혼과 재혼의 성경적 윤리에 대해 논의한다.

제 4 장에서는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모델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함으로 교회가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닌 회복 공동체임을 알린다. 제 5 장에서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에서 5년 이상 실시했던 프로그램들 가운데 ‘두리하나결혼 예비 학교’, ‘성경적 부모 교실’, 부부 주말 여행 ‘GIFT’와 주말 데이트 ‘UNITY’, 그리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를 소개한다.

제 6 장에서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미래 사역에 대한 연구와 계발안에 대해 다룬다. 지역 사회의 카운슬러들과 상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민 가정과 사회를 도와야 함도 강조한다. 제 7 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앞서 언급된 각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의의를 되짚어 본다.

가정 사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분량 또한 방대하다. 이에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들의 강의와 진행안 등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제 2 장

###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sup>7</sup> 셀(Sell)은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 간다” 고 말한 론 로즈(Ron Rose)를 인용하면서<sup>8</sup> “어떤 견지에서 보면 교회가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사실은 교회 자신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고 말한다. 카티어(Charrier)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강한 가족을 필요로 한다”<sup>10</sup> 고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정 사역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에, 이민 가정의 특성과 문제점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제 1 절 가정 사역에 대한 이해

##### 1. 가정 사역의 정의

가정 사역(家庭使役, Family Ministry)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한 셀(Sell)은 “가정 사역은 교회사역이다” 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면서,<sup>11</sup> “영적이며 도덕적인 사역”, “복음 전도”, “제자 훈련”, “성경의 진리를 가정생활에 적용하는 것”, “예방사역” 이

<sup>7</sup> 이후 논문에서는 ‘열린문 장로 교회’의 공식 명칭을 줄여 ‘열린문’이라고 한다.

<sup>8</sup> Ron Rose, “The Family Unit: Turn the Key-Open the Door,” *Christian Bible Teacher* (May 1972), 188-189.

<sup>9</sup> Charles M. Sell, *가정 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28.

<sup>10</sup> J. and M. Chartier, *Nurturing Faith in the Family*,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6), 17.

<sup>11</sup> Sell, *가정 사역*, 15.

가정 사역이라고 한다.<sup>12</sup>

정정숙은 가정 사역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사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순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신학적 이해, 기독교교육학과 상담학적 접근이 시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갈란드(Garland)는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발전시키고, 둘째, 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며, 셋째, 크리스천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교회의 사역을 가정 사역이라고 한다.<sup>14</sup>

정동섭은 가정 사역은 “가정을 세워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성경적 사역, 전도사역, 제자훈련의 한 방법이며 예방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가정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레오나드(Leonard)는 가정 사역을 “성경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가정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형태로 해석해 주는 일, 각각 다른 삶의 발달 단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 지역사회가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온전성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역 사회를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sup>16</sup> 로 정의한다.

존스(Jones)는 가정 사역이란 “자녀의 제자훈련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를 일깨우고 훈련시키고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교회의 정책과 사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sup>17</sup> 이라고 정의한다.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다. 존스는 가정이 자녀의 영적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고, 모든 부모는 자녀

<sup>12</sup> Sell, *가정 사역*, 22-33.

<sup>13</sup>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베다니, 1994), 20.

<sup>14</sup> Diana R. Garland,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VP, 1999), 374.

<sup>15</sup> 정동섭, *행복한 치유자* (서울: 청우, 2000), 18.

<sup>16</sup> J. Jr. Leonard, *A Church Guide for Strengthening Families: Strategies, Models, Programs, and Resource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12.

<sup>17</sup> Timothy Paul Jones, *가정 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엄선문, 박정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45.

의 신앙과 영적 훈련을 위해 부단히 관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엄예선은 가정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은혜의 선물인 가정을 통하여 인간이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게 함, 하나님이 각 가족원과 가정 전체에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함의 사명을 감당함, 가정을 통해서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올바르게 양육함의 기독교 가정의 네 가지 목적들을 이 땅 위의 모든 가족들이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모든 기독교적 활동들을 총칭한다.<sup>19</sup>

## 2. 가정 사역의 이해

위와 같은 가정 사역에 대한 다양한 정의 속에 내포된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이 함께 하는 사역

가정 사역은 단순한 가정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필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키는 제자 훈련이다. 가정 사역의 궁극적 목표가 각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쉽게 요동할 때가 많다. 이에 권오균은 현대인들의 여러 정신적 문제점들의 원인을 자아 상실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sup> 엄예선도

<sup>18</sup> Jones, *가정 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46.

<sup>19</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319.

<sup>20</sup> 권오균, *참자아를 찾아서* (서울: CLC, 2014), 31-39. 권오균은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며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참 자아를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 한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 자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47-49.

“가정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러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관계 계발사역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계발시키는 은사계발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각 개인과 가정들이 의와 사랑과 거룩함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만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칭송함도 가능하고,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섬김도 가능하므로 가정 사역은 개인과 가정의 성화를 돕는 성화사역, 혹은 하나님 형상 회복의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사역은 자녀제자화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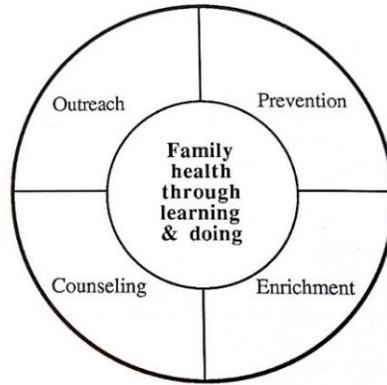
그러므로 가정 사역은 교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머니(Money)는 “가정 사역이란 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추가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안에 통합이 필요한 사역”<sup>22</sup> 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설교를 비롯한 교회의 활동은 이미 간접적으로 가정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만이 가정 사역이 아니라, 목회 자체가 이미 가정 사역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점에서 머니(Money)는 목회의 모든 활동 속에 가정 사역적 목적과 관점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정 사역의 통합적 접근(wholistic approach)을 제안한다. 그는 가정 사역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 예방(prevention), 양육(enrichment), 상담(counseling), 그리고 봉사(outreach)다.<sup>24</sup> 이 네 가지 영역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 보완함으로써 가족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머니(Money)의 제안은 다음의 <그림 1>에 잘 표현되어 있다.

<sup>21</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20.

<sup>22</sup> Royce Money, *Ministering to Families: A Positive Plan of Action* (Abilene, TX: A.C.U. Press, 1987), 87.

<sup>23</sup> 홍영택, *가족목회* (서울: KMC, 2016), 106.

<sup>24</sup> Money, *Ministering to Families: A Positive Plan of Action*, 88-91.

<그림 1> 가정 사역의 통합적 접근<sup>25</sup>

가족 치료자인 사티어(Satir)는 “가정은 한 인간이 사람으로 성장하는 장소이며 어른들 혹은 부모들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사람(peoplemaker)”<sup>26</sup> 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그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인중은 교회도 역시 진정한 신앙인을 만드는 장소이며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람을 만드는 자의 역할을 맡은 청지기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sup>27</sup> 이것을 셀(Sell)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가정은 목이 붙어서 태어난 삼(siamese) 쌍둥이 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28</sup> 고 말하면서, 교회와 가정은 자연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와 개미와 같은 공생 관계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9</sup> 그의 주장대로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정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셀(Sell)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왜 가정 사역이 부족한 것일까? 그 대답은 물론 복잡하다. 그렇지만 한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목회자 가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들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피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만일 목회자가 자신의 병든 가정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봐 가정 문제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면-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목회자보다 교인들에 관해 더 많은 것을

<sup>25</sup> Money, *Ministering to Families: A Positive Plan of Action*, 88.

<sup>26</sup> Virginia Satir, *아름다운 가족*, 나경범 역 (서울: 창조문화, 1999), 3.

<sup>27</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서울: 하늘향, 2014), 341.

<sup>28</sup> Sell, *가정 사역*, 32-33.

<sup>29</sup> *Ibid.*, 21.

말해줄 것이다. 아마도 목회자는 가정 생활에 결점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결점보다도 용납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가정 사역이 부족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가정 사역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가정은 희생되고 무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sup>30</sup>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가정을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자에게 교회 일을 맡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가정을 돌보는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디모데전서 3:2-13). 그러므로 먼저 가정 사역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면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정 사역은 제자 훈련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믿게 된 젊은이 나 성인들 중 많은 사람이 역기능 가정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그들의 가정 문제를 도와주는 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셀(Se11)의 주장이다. 새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 가정에서 생겨난 개인적인 문제로 너무 괴로움을 당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이 종종 저해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역기능 가정의 배경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제자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sup>31</sup> 성경에는 ‘서로’ 라는 단어가 50 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

#### 나. 성경의 진리를 가정 생활에 적용하는 사역

셀(Se11)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분명한 교회의 일이다” 고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가정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정 사역” 이라고 말한다.<sup>32</sup> 그는 또한 가정 사역을 통해 가정생활의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며 대화법, 분노조절, 격려의 기술 등과

<sup>30</sup> Sell, *가정 사역*, 20.

<sup>31</sup> Ibid., 27.

<sup>32</sup> Ibid.

같은 표현기술을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3</sup> 엄예선도 교회가 교인들의 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돕기 위하여 가정 사역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초대 교회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치명적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한 점이다...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교리를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한다.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들은 수없이 가르쳐 왔으나, 교인들이 그러한 교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이혼이 죄라는 사실은 잘 가르쳐 왔으나 부부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하고, 서로 복종하고, 부부생활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혼을 방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 즉 한국 교회는 신자들에게 목적지를 알리는 역할은 잘 감당해 왔으나,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의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거나, 길을 힘이 없는 신자들을 교회가 직접 부축해 주는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sup>34</sup>

셀(Sell)은 가정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시도해 볼만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첫째 근원이 교인들내에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심리학, 사회학, 그 밖에 관련된 분야들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현대 가정의 수수께끼를 풀게 도와 주며 오늘날 상황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5</sup>

콜린스(Collins)는 성경은 불안과 외로움, 낙심, 관계, 결혼 문제, 애도, 분노, 두려움,

<sup>33</sup> Sell, *가정 사역*, 202-208.

<sup>34</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59.

<sup>35</sup> Sell, *가정 사역*, 198-199.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기타 상담과 관련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상담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의도된 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상담을 위한 교과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리학을 비판하는 이들까지도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가지고 오는 문제들의 원인과 치료에 생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한다.<sup>36</sup> 이 점에 대해서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지 무슨 교본이 아니다. 상담의 교본도 아니고, 교육학의 교본도 아니고, 리더십 교본도 아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의 모든 원리들과 기법들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잘 해석하여 기독교적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얻고, 그 기준들에 맞추어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적 상담가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해석학적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그 문제들을 극복해가도록 돕기 위해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는 예술을 통하여 얻은 통찰력들도 앞서 언급한 신학적 원칙들과 잘 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이 융합의 과정 중 기독교적 관점과 배치되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론 등은 비판적으로 걸러내야 함은 물론이다.<sup>37</sup>

이렇듯 가정 사역은 성경의 진리와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시에 요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가정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의 특수 계시인 성경 말씀에서 기본적인 사역의 철학과 원리들을 찾아야 하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힘입어 발전된 심리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가족학 등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들에서도 사회와 인간 심리와 인간 관계에 관한 지식들과 인간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론들을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sup>38</sup>

<sup>36</sup> Gary R.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역 (서울: 두란노, 2009), 60.

<sup>37</sup>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76.

<sup>38</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23.

다. 가정 생활 주기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

출생, 결혼, 죽음 등은 모든 가족이 거쳐야 하는 발달위기이므로, 교회는 이것들에 대해 준비하고 예방적으로 도와야 한다.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또는 가족 발달 이론(Family developmental theory)은 가족에게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가족은 계속 발달하며, 가족의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긴장 기간이 있고, 가족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다고 전제한다. 가정생활주기는 가족 전체의 생활 주기를 함께 보는 것이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가족 발달 과업과 생활주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1> 가족 발달 과업과 생활주기<sup>39)</sup>

단계	주요 과제	개시 사건
결혼 전	본래 가정으로부터의 분화	약혼
아이 출생전 부부	부부 역할에 적응(새 세대의 구성)	결혼
아이 출생 부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적응	첫아이의 출생과 입양
완성된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에 적응	막내의 출생
청소년을 가진 가정	가정 조직에서의 융통성 증가	가정으로부터 자녀 독립
자식을 떠나 보냄	가족 구성원들의 이탈 적응	자녀들의 직업 및 배우자 선택
자식을 모두 떠나 보낸 후	외로움과 노령화 과정의 시간 적응	마지막 자식을 떠나 보냄

이처럼 가족의 발달 과정 속에서 가정생활주기의 변화는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과 가족 구조와 역할에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sup>40)</sup>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 등 발달 단계와 가족의 발달, 결혼 전 데이트 관계, 결혼 후 자녀 출생 전 부부, 첫 자녀 출산 가족, 학령기 자녀를 가진 가족, 청소년 자녀를 가

<sup>39)</sup> Jack O. Balswick and Judit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2006), 49.

<sup>40)</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203.

진 가족, 자녀를 떠나보내는 가족, 자녀가 모두 떠난 가족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겪는 주요 과업들과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도와야 한다.

오제은은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세대 간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독특성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첫째, 교회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족을 제외하고) 유일한 공동체다. 둘째,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에베소서 2:29). 셋째,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서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인해 서로가 한 형제 자매다.<sup>41</sup>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한다(고린도전서 12 장). 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사역은 교회 자체를 하나의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건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회에 소속된 각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sup>42</sup>

특별히 교회는 가족들에게 노화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치 혼전 상담이 있고 결혼 예비교실이 있듯이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단독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전통 가족의 붕괴는 혼자된 이들에 대한 가족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이 혼자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 홍인중은 교회 공동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정서적 병원이 됨과 동시에 각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과 갈등 해결 방법을 연결시키는 능력과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다양한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들과 치유 프로그램들과 위기 상담을 잘 실시함과 동시에 평신도 리더십을 잘 개발한다면 이민 교회가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앞장설 수 있다.

<sup>41</sup> 오제은, “가족을 고려하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179.

<sup>42</sup> 유재성,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에 대한 진단과 희망,” *가정 사역*, 67.

<sup>43</sup> 홍인중, “가정 사역의 기초,” *주님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회봉사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29.

## 제2 절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 1. 이민 가정에 대한 이해

미주 한인 이민의 뿌리는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였던 약 7,000 명의 노동 이민자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였고, 일부는 호놀룰루를 비롯한 하와이 군도 각처에 잔류하였으며, 나머지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재이주를 하였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여권을 소지한, 즉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이민자들이었다.<sup>44</sup> 이 후 1965년에 미 의회를 통과한 새 이민법이 시행되자 한국인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 왔다. 새 이민법이 시행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1965년 이후에 미국에 온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도 상당한 비율이 성장해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또 결혼하여 2세 가정을 이루었고 3세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sup>45</sup>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소위 ‘1.5 세’ 들도 있다. 이민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5 세를 외국에서 출생해 12 세나 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로 정의한다. 1.5 세는 미국에 동화하는 정도나 모국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민 1세와 미국에서 출생한 2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기원하였지만, 더 정확히 검토해 보면 1.5 세는 이민 1세보다는 2세에 더 가깝다.<sup>46</sup> 따라서 본 연구지는 넓은 의미로 1.5 세도 차세대의 범주에 넣어 이민 가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sup>44</sup> 유영렬,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n.p.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db.history.go.kr>.

<sup>45</sup>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7), 202-212. 미국으로의 한인이민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이민시기는 1902년부터 1944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조선이 독립하기까지 이다. 전후이민 시기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다. 그리고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이다.

<sup>46</sup> Ibid., 254. 재미한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 특히 1.5세와 2세 한인에게서 이러한 이중정체성은 강하게 표출된다. 반면 1세는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아무리 오래되고 모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미약해졌어도 미국이 자기 나라라기 보다는 남의 나라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다. 이런 1세의 정체성은 미국에 사는 한인(Koreans in America)에 가깝다.

## 2. 이민 가정의 문제들과 해결 방안

### 가. 부부의 갈등

이민 가정은 이민 생활을 겪으면서 그 구조와 관계에 큰 변화를 보인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한다. 이럴 경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좀더 평등해져야 하는데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여전히 아내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민병갑의 뉴욕시에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업 주부는 가사로 일주일에 46.3 시간을 쓰지만 남편은 5.2 시간만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을 할 경우에는 아내의 가사 참여시간은 일주일에 24.8 시간으로 줄지만 남편이 가사로 쓰는 시간은 6.7 시간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따라서 일하는 아내는 노동과 가사로 일 주일에 75.5 시간을 써서 남편보다 12 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아내의 노동 참여도가 늘어나면서 보다 평등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접받기 원하는 전통적인 성규범과 성역할을 고집하게 되면서 부부의 갈등이 늘어난다.<sup>48</sup>

이는 발스윅(Balswick) 부부가 소개한 네 가지 가정 권력 모델들 가운데<sup>49</sup> 전통적 가부장적 모델을 고집하는 남편과 민주적 상호 교환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아내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 가부장적 모델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 남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력을 남편에게 맡기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위치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sup>50</sup> 하지만 민주적 상호 교환 모델을 추구하는

<sup>47</sup>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237.

<sup>48</sup> Pyong Gap Min, *Changes and Conflicts: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Boston: Allyn and Bacon, 1998), 43.

<sup>49</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33-348. 전통적 가부장적 모델(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권력을 남편의 역할에 맡기셨다), 민주적 상호 교환 모델(권력은 어떤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전체로서의 가정 속에 있다), 쾌락주의적 자기 중심 모델(각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돌본다), 힘의 부여 모델(가장 강력한 가족 구성원의 목적은 보다 약한 구성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sup>50</sup> *Ibid.*, Balswick 부부는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가부장적 모델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권력이 남편에게 귀속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위치 때문이다.

아내의 입장은 다르다. 이민 후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더 이상 남편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적 기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의 권력과 결정 과정에서 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sup>51</sup> 민병갑의 연구에 따르면, 미주 이민 가정이 한국의 가정에 비교해서 부부갈등을 겪는 빈도가 더 높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대시키고 가족과의 대화와 교체시간을 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늘고 경제적 기여가 높아진 반면 남성들은 전통적 성규범을 바꾸려 하지 않고 여성들의 늘어난 권력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서 하향적 신분이동과 지위불일치를 겪게 되면서 가족에서조차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예전에 누리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떨어진 가장의 권위를 고집하려는 남편과 변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아내 사이에 논쟁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이혼 또는 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더욱이 이민생활에서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사회적 지원 연결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부갈등은 적절한 상담과 조정을 거치지 못하고 파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sup>52</sup>

이처럼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부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되어가도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지도해 줄 영적 지도자,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민 가정의 현실이다. 이에 홍인중은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 외에 함께 짐을 지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모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약 남편/아내가 배우자에게 의지할 수 없고, 친구들과 격리되어 고립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심리적 상처는 엄청나게 큰 부정적 파괴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족, 친구, 동창생 또

<sup>51</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34. ‘부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제 3 장 가정 사역의 성경적 기초: 동등성 모델(equalitarin type)에서 다루도록 한다.

<sup>52</sup> Pyong Gap Min, “Korean Immigrant Family,” in Charles Mindel, Robert Habenstein, and James Wright, Jr. eds.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New York: Elsevier, 1997), 199-229.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238-239에서 재인용.

는 다른 교인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여성/부모를 위한 지원그룹과 같은 자조(self-help)모임(예/아버지 모임, 어머니 모임, 학부모 모임, 교회 소그룹 등)을 찾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선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 중에 멘토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만약 심리적 상처에 의해서 행동적, 감정적 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신뢰할 만한 상담자를 찾아 상담을 통한 조절이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sup>53</sup>

업예선도 이민 교회가 구역 예배 등을 통한 교인들 간의 잦은 접촉을 통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발전되기 전에 각 가정들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다.<sup>54</sup> 이렇듯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로마서 15:1)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확대가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나. 자녀들의 정신 건강

이민자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미국 이민을 선택하였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인 1.5 세들과 2 세들은 부모들이 바라던 대로 좋은 교육을 받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있을까? 다음의 통계는 25~64 세 사이의 미국 출생 2 세의 교육 수준을 남녀로 나누어 교포 이민자, 미국 출생 아시아계 총계 및 미국 출생 백인과 비교한 것이다.

<표 2> 미국 출생자들과 교포 이민자 교육 수준 비교<sup>55</sup>

	고교 졸업자의 비율(%)	4년제 졸업자의 비율(%)	대학원 졸업자의 비율(%)

<sup>53</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209.

<sup>54</sup> 업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66.

<sup>55</sup> U.S. Census Bureau, "5% Public Use Microdata Sample of the 2000 Census," n.p.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s://www.census.gov/census2000/PUMS5.html>.

미국 출생 2 세	전체	93.6	58.8	25.0
	남	95.2	56.7	25.5
	여	93.1	60.6	24.7
교포 이민자	전체	89.5	45.7	14.7
	남	93.7	55.2	22.2
	여	86.5	39.0	9.4
미국 출생 아시아계	전체	93.9	51.5	17.6
	남	93.6	50.5	18.1
	여	94.3	52.5	17.1
미국 출생 백인	전체	89.9	29.5	10.3
	남	89.0	30.4	11.0
	여	91.8	28.7	9.6

미국 출생 2 세들의 59 퍼센트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25 퍼센트가 대학원을 마쳤다. 이 통계는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미국 출생 백인의 30 퍼센트와 10 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또한 미국 출생 아시아계 소수 민족 전체의 수치보다 약간 높다. 이렇듯 통계상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민은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1.5 세와 2 세들 가운데 스스로 간과해 왔던 가벼운 우울증상과 정체성의 혼란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대학진학 후 또는 대학입학 직전에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면서 학교 공부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 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한인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새로운 이민 가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56</sup>

권경현은 아시아계 대학생들이 대학 진학 전부터 부모들의 높은 기대감과 명문대 집착 등으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sup>57</sup> 백인과 흑인 그리고 라티노 학생들과의 비교 연구 결과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

<sup>56</sup> “자녀의 ‘정신건강 성적’ 도 아십니까?” *한국일보*, 2008 년 1 월 28 일자, 교육일반면. 2017 년 12 월 인용. Online: <http://ny.koreatimes.com/article/20080128/429635>.

<sup>57</sup> Katie Kwon Koo, “Predictors of feelings of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h. 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16), 103-104.

은 자존감 수치를 기록했음을 제시한다.<sup>58</sup> 김명화도 우수한 성적이 자존감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조승희를 비롯해 자살한 명문대 학생들이 보여주듯 자존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아이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음을 예로 든다. 2007년 조승희 총격 사건 당시 여러 언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명화는 “조승희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잘지내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 홀로 시간을 많이 지내고 그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상기시키며 “상담을 17여년 간 해 오고 있지만, 조승희 보다 더 심각한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한다.<sup>59</sup> 이는 그동안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진학이나 학교 성적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녀들의 장애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정신 건강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실정으로서 자녀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고 본 김명화는 “한국 문화를 고집하는 부모와 미국 문화 속에 노출된 자녀들 사이의 갈등, 즉 ‘세대간 충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sup>60</sup>이라고 주장한다. 가족 및 친척의 유대 관계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 이념은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가치관과 큰 대조를 이룬다.<sup>61</sup> 이민자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자식의 성공과 외모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게 되고, 자녀들은 미국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과 한인 부모의 ‘통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우울증, 섭식 장애, 자살 시도, 화병 등 정서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 김명화는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

<sup>58</sup> Katie Kwon Koo, “Predictors of feelings of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107-109. 권경현은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배경과 부모의 태도가 아시아계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압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를 한다.

<sup>59</sup> 김명화,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강의, 열린문 장로 교회, 2013년 5월 4일). 김명화는 문화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해 받지 못한 조승희와 같이 억눌린 학생이 분노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와 교육이 한시라도 빠르게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자씨 세대”라는 의미의 MSG(Mustard Seed Generation)를 결성했다..

<sup>60</sup> Ibid.

<sup>61</sup> 민병갑,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 *정신문화연구*, 1995년 10월호, 121.

면서, 코리언 아메리칸들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sup>62</sup>

<표 3> 코리언 아메리칸들의 네 가지 유형

Low American - High Korean Identity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고 한국 정체성이 뚜렷해 한국 친구들이 많은 반면, 학교에서 한국사람이 아닌 친구들이나 교사들과는 사이가 먼 경우다. 이들은 영어를 안쓰려고 한다
High American - Low Korean Identity	학교에서 미국 친구들 및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지만 한국어를 못하고 부모와 거리가 생긴다.
Low American - Low Korean Identity	가장 문제다. 이들은 외롭고 그 아무하고도 잘 지내지 못한다.
High American - High Korean Identity	가장 바람직하다. 이들은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행동과 언어를 바꿔가며 두 개로 넓어진 세계에서 지낸다.

네번째 유형으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충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해 시킨 후, 한국 문화를 교육시키고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김명화는 부모는 한국과 미국 문화에 대해 비교와 대조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옳다” 거나 “틀리다” 거나 라고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다만 “다르다” 라고 단순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3</sup> 다음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최혜련은 “부모가 유교식 문화적 배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미국에서 자란 1.5 세와 2 세들은 결국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된다” 고 지적한다. 자녀들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미국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강압적으로 교육하거나 문화를 주입하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를 이해해주고 의지가 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sup>64</sup>

이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은 '한미

<sup>62</sup> 김명화,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sup>63</sup> “한인 이민 2 세, 자존감 가장 낮아” *보스톤 코리아*, 2013 년 9 월 13 일자, 뉴스면. 2017 년 12 월 인용. Online: <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18004>.

<sup>64</sup> 최혜련, “이민 가정 자녀 교육, 자녀의 존재 자체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기독일보*, 2012 년 8 월 22 일, 인터뷰. 2017 년 12 월 인용. Online: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

양국의 문화적 차이 이해,’ ‘서로간 진정한 사랑의 관계 확립,’ 그리고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 이라고 볼 수 있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자녀가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돌볼 때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권위는 부모의 개인적 특질(personhood)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힘의 부여가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힘의 부여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개인적인 힘을 더 확장하게 되기 때문이다.<sup>65</sup> 그러므로 이민 1 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및 정체성 교육을 하는 한편, 이민 1.5 세와 2 세 자녀들은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는 부모를 돕는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To Serve and Be Served)”<sup>66</sup>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코리언 아메리칸” 가정이 될 것이다.

---

<sup>65</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2-33.

<sup>66</sup> *Ibid.*, 26-37. Balswick 부부는 가족 관계의 기초를 언약이라고 본다. 그 언약에 기초하여 가족은 사랑의 서로 나눔을 전개하는데, 그 전개는 은혜의 나눔(To Forgive and Be Forgiven), 힘의 부여(To Serve and Be Served) 그리고 친밀감의 심화(To Know and Be known)로 이어진다.

## 제 3 장

### 가정 사역의 성경적 기초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며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올바르게 체득하게 된다. 가정 사역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가정의 기원과 기독교 가정의 목적, 모든 가족체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와 이혼과 재혼의 성경적 윤리에 대해 논의한다.

#### 제 1 절 가정에 대한 이해

##### 1. 가정의 기원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하셨다(창세기 1:27).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속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67</sup> 하나님은 사람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창세기 1:28).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심히 만족하셨다. 하지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 주셨다(창세기 2:20). 이는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sup>67</sup>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17.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의 대표자 혹은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이다.<sup>68</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시작된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 기독교 가정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매스톤(Maston)은 가정의 목적을 “종족의 번식, 이해와 사랑 그리고 동반자의 정을 제공함, 성적 욕구의 정당한 표출을 위한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sup>69</sup> 으로 본다. 앤더슨(H. Anderson)은 생식(procreation), 공동체(community), 개인화(individuation)를 가족의 기본적인 목적이라 한다. 이것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 즉 상호간의 헌신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야 할 소명들이라고 주장한다.<sup>70</sup> 엄예선은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하는 사명을 감당함,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함”<sup>71</sup> 을 가정의 목적이라 한다.

셀(Se11)은 가정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생식. 종족의 번식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 (2) 성적 표현. 가정이라는 개념은 성적 활동의 경계선을 그리며, 그것을 배우자에게 한정시키고, 근친상간이나 간통이나 다른 형태의 성관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3) 사회화. 자녀들의 양육을 준비한다. 가정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일차적 장소로서 존재한다.
- (4) 지위. 각 개인에게 주어진 지위에 관련된 규범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며 어떤 사회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 (5) 경제적 협력. 부모는 너무 어려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을 부양한다.
- (6) 정서적 만족.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 (7) 사회적 통제. 가정은 억제하는 능력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가족

<sup>68</sup> 김세운,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17-18. 김세운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가장 기본 의미를 하나님의 부왕(副王)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sup>69</sup> Thomas Bufford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54-58.

<sup>70</sup> Herbert Anderson, *The Family and Pastoral Care* (Eugene, OR, 2001), 14.

<sup>71</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2-124.

구성원에 있어서 자기 훈련이라는 내적 통제를 발달시킴으로써  
외부적인 통제에 대한 필요를 경감시킨다.<sup>72</sup>

위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친밀함에서 오는 행복을 누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창세기 2:24)는 하나님의 주례사에 나타난 가정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반려자로 믿고 서로를 용납하여 친밀하게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완전함 속에서 서로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기 2:25).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서로를 향하여 개방하였음을 의미한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친밀감은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To Know and Be Known)” 이라고 강조하면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낀 깊은 친밀감은 어떤 꾸밈이나 가식, 거짓도 없이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주장한다.<sup>73</sup>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부부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다.

정신과 의사인 와링(Waring)은 친밀함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친밀감이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들의 만족을 대부분 결정하는 차원이다. 둘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감의 양과 질은 가족의 기능을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단일 요소이다. 셋째, 자기 노출이란 부부의 친밀감 수준에 대부분 영향을 끼치는 단일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친밀감은 인지적인 자기 노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문제 있는 부부들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부부들을 대조해 본 그의 연구는 자기 노출이 친밀감의 형성에 대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기 노출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는 직선을 이루고 있다. 즉, 자기 노출이 크면 친밀감도 크다는 것이다.<sup>74</sup>

<sup>72</sup> Harold T. Christensen and Kathryn P. Johnsen, “The Family as a Changing Institution,”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3d ed; ed. James M. Henslin (New York, Free Press, 1989), 15-26. Sell, *가정 사역*, 22-23 에서 재인용.

<sup>73</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34.

<sup>74</sup> Edward Waring, *Enhancing Marital Intimacy through Cognitive Self-Disclosure*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1988), Deloss D. Friksen, *결혼상담*, 김만풍 역 (서울: 두란노, 1996), 189 에서 재인용.

악스버거(Augsburger)도 친밀함을 “부부를 자유롭게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발전은 내가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든지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없이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sup>75</sup>이라고 보면서, 부부가 친밀감을 깊이 갈망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친밀감을 막는 5가지 중요한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융합의 두려움: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빠져들고, 흡수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 한다. 둘째, 노출의 두려움: 우리가 가까워지면 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까워지더라도 숨길 것은 숨겨야 한다. 셋째, 공격의 두려움: 우리가 가까워지면 나는 공격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폭력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해야만 한다. 넷째, 포기의 두려움: 우리가 가까워지면 나는 나 자신을 개방하게 되고,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파괴적인 충동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당신의 싫은 모습 때문에 화가 치밀던 것을 통제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러한 두려움들을 떨쳐 버리고, 서로에게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언약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이라는 네 단계를 포함하는 가족 관계 신학을 제안하면서, 모든 가족 관계의 논리적 출발점을 언약적 서약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언약적 서약의 중심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안전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안전으로부터 사랑은 은혜를 전개시킨다. 그리고 이 은혜의 환경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 힘의 부여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감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런 다음 친밀감은 더 깊은 수준의 언약적 서약으로 다시금 인도하게 된다.<sup>76</sup>

엄예선은 현대의 많은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지만 친밀성이 결여된 삶을 살아

<sup>75</sup> David Augsburg,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랑방정식*, 이현숙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167-168.

<sup>76</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8.

가므로 심리적으로 독처함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아담의 독처함의 문제가 또 하나의 동료 인간인 하와가 단지 그의 곁에 있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창세기 2:23-24) 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77</sup> 스윈돌(Swindoll)은 “친밀함은 토론을 나누고, 침묵을 나누고, 역사를 나누고, 시련과 상심을 나누고, 슬픔과 비애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는 것이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차원의 친밀함에 이르려면 끊임없이 신뢰해야 하고 철저히 연약함을 내보여야 한다”<sup>78</sup> 지적한다. 이처럼 부부의 친밀함이 다각적 차원의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관계의 기쁨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

#### 나. 자녀를 출산하여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창세기 1:28). 레이니(Rayney) 부부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기독교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한다.<sup>79</sup> 그런 의미에서 매스톤(Maston)은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들”<sup>80</sup> 이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시키고 가르치라는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제공하라는 말이다. 트립(Tripp)은 하나님이 부모를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 문화는 부모를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웃으며 지내는 시간을 질적인 시간으로 생각한다. 같이 웃고 즐기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 문화와는 달리 창세

<sup>77</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4.

<sup>78</sup> Charles R. Swindoll, *행복한 가정의 탄생*,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0), 59-60.

<sup>79</sup> Dennis and Barbara Rayney, *내 곁에 있는 당신*, 금병달, 김정진 역 (서울: 순 출판사, 2011), 127.

<sup>80</sup>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 가정*, 54.

기 18 장은, 부모가 아이들로 하여금 옳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말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 방향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다...그것은 아이들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된다.<sup>81</sup>

하나님은 가정을 한 사람의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세우셨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교육의 장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범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과 성품, 생활양식 등을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엄예선은 가족들이 가장 가깝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일차적인 이웃이기에 자녀들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그들의 능력과 은사에 따라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 윤리를 가르치고,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법을 친히 보여 주고 동시에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가정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차세대의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길러내는 양성소이며 훈련소이기 때문이다.<sup>82</sup>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

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

알렌더(Allender)는 “본이 되는 결혼 생활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고, “결혼은 한 사람의 성품과 마음, 열정과 목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간 관계이며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정의한다.<sup>83</sup> 엄예선은 가정의 목적을 “인간이

<sup>81</sup> Tedd Tripp,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조경애, 조남민 역 (서울: 디모데, 2005), 70-71. 창세기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sup>82</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24.

<sup>83</sup> Dan B. Allender,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정문옥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152.

가정을 통해서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하는데 있다. 즉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가정 사역자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을 기독교 가정의 목적들 중 하나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점은 기독교 가정의 매우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이며 그러므로 가정 사역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깊다.”<sup>84</sup>고 주장한다.

크랩(Crabb)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혼을 통해서 시작한 가정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근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그분의 성품은 신실함과 용서이다. 결혼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신실함은 신뢰, 헌신, 진실, 충성, 소중히 여김, 배려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미덕들(신실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에 의해 유지된다. 용서는 결혼의 심장부에 있다...배우자를 용서할 때, 우리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빚내 준다.<sup>85</sup>

이렇듯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정의와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장소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함으로써,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함으로써,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자녀들끼리는 서로 화목함으로써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또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왜 저리 화평하고 행복할까?” 하고 묻게 하고,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sup>86</sup>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서 이 뒤틀리고 타락한 암흑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

<sup>84</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8.

<sup>85</sup> Larry Crabb 외, *빠듯한 결혼생활 중심 바로잡기* (서울: 좋은 씨앗, 2001), 265-270.

<sup>86</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9.

하는 별(발광체)로 빛나야 한다고 강조한다(빌립보서 2:14-15). “별로 빛난다” 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한다. 김세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sup>87</sup> 베드로도 출애굽기의 19 장 6 절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베드로전서 2:9-12). 이 원리는 개개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거룩하고, 바르며, 사랑이 풍성한 기독교 가정들을 보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 기독교 가정에 있다.

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함

크랩(Crapp)은 기독교 가정을 “선교의 전략 기지(The Christian Home is a Mission Base)”<sup>88</sup> 라고 표현한다. 레오나르드(Leonard)도 기독교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 이웃과 동료들을 향한 선교사 육성, 그리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의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9</sup> 업예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주신 사명을 인간이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명을 수행함이란 기독교 가정이 하나의 단위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각 가족원과 가정 전체에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 가족원들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가정 단위로써 하나님의 뜻을 좇아 가정의 사랑, 지혜, 재물, 시간 등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 및 선교도 함으로써 그리스

<sup>87</sup> 김세윤,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04.

<sup>88</sup> Rodney Clapp, *Families at the Crossroads* (Downers Grove, IL: IVP, 1993), 155.

<sup>89</sup> J. Jr. Leonard, *A Church Guide for Strengthening Families: Strategies, Models, Programs, and Resources*. 업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5 에서 재인용.

도의 구원(치유)의 은혜의 전달자 노릇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대됨에 공헌함을 의미한다.<sup>90</sup>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김세운은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단지 음식 가리고(예: 주초 삼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聖別), 십일조 등 외형적인 몇 가지의 계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적극적인 제자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통치)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모든 계명들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12:28-34 병행 구절들)…하나님의 백성이 바라새인식으로 율법주의의 장난에 빠져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율법의 이 정신은 저버리는 것에 반해, “하나님을 혼신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구체적인 요구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이 땅에 현재(첫 열매의 형식으로나마) 실현되는 것입니다.<sup>91</sup>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라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주셨다. 바울 서신들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마서 16:3-5; 고린도전서 16:19; 디모데후서 4:19) 부부도 대등한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sup>92</sup>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잘 지켜서 가족원들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sup>93</sup>

<sup>90</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4-115.

<sup>91</sup>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108-109.

<sup>92</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17.

<sup>93</sup> *Ibid.* 356. Barth 는 가족이 일차적 이웃이므로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천은 가족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제2 절 성경적 부부 관계

셀(Sell)은 네 가지 부부 권력 모델들을 소개한다. 첫째는 강압적 권위 모델(enforced authority type)이다. 이 모델은 가장 오래된 구조적 유형으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며 남편은 아내를 폭력을 통해서 복종시키기도 한다. 대개 중세기에 있었던 유형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유형이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둘째는 전통적인 가정과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아내의 모델(traditional head-complement type)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지지하며 가정의 일을 한다. 남편의 가장됨이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 사랑과 존경의 결과로 남북전쟁 시대와 19세기 중반까지 많이 나타났던 유형이다. 특히 청교도적인 뉴잉글랜드 지방이나 가부장적인 남부 지방에 이런 유형들이 많았다.

셋째는 동반자적 관계 모델(companionship type)로서, 아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남편도 가사일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의 직업이 아내의 직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대개 남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유형은 아버지의 명령에 늘 복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충고가 권위적인 곳에서 나타났다. 셀(Sell)은 민주주의가 미국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1946년 미국의 루터 교회의 선언을 예로 든다.<sup>94</sup>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주께 하듯”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독재자가 아니며 아내도 남편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질서 있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관계에서는 훌륭한 질서를 위하여 오직 하나의 가장, 남편만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민주적인 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민주적인 가정이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분할된 권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up>94</sup> Herbert T. Mayer, “Family Relationships in North America,” *Family Relationships in the Church* (St. Louis: Concordia, 1970), 126.

발스윅(Balswick) 부부는 가부장적 모델을 크게 둘로 나눈다. 극단적인 전통적 가부장적 가정 형태를 보여주는 문화에서는, 남편이 독재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기독교를 통해 부드러워진 문화들에서는, 남편의 지배 형태가 앞에서보다는 한결 호의적인 독재로 바뀌게 된다. 이 두 가지 가부장적 부부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95</sup>

기독교의 가장 권위주의적인 형태에서는, 아버지는 아래로 어머니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명령 체계에서 단지 하나님 아래 위치한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복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상호 복종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받은 종의 역할이다(빌 2:5-8). 가부장적 모델에 대해 좀 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독교 형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간주된다. 그리고 남편은 또한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본받아 행하려고 힘쓴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가정의 머리로 남아 있으며 이 때문에 남편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위임하는 일을 한다.<sup>96</sup>

발스윅(Balswick) 부부가 소개한 두 번째 기독교 가부장적 모델이 셀(Sell)이 지지하는 동반자 모델에 해당한다. 또한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동반자 모델을 가르치고 있다. 이천선은 한국의 일곱 개의 가정 사역 기관들의 부부 권력 구조에 대한 가르침들, 침례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개혁측, 통합측, 순복음 교단에 속하는 다섯 명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과 여덟 개의 성경공부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총 20 개의 자료들 중 번역서를 포함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기독교 가부장적인 모델을 고수함을 발견했다.<sup>97</sup>

셋째는 동등성 모델(equalitarin type)로서, 부부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력을 갖는

<sup>95</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334.

<sup>96</sup> Ibid., 334.

<sup>97</sup> 이천선, “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75-106.

모델이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자유롭게 직업을 갖고 가사일을 분담하며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편이 특별한 권위가 없으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상호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상호 섬김, 상호 복종, 상호 사랑, 서로 종됨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근본적인 관계였는데 타락이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자와 종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고 믿는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지 창조의 원리는 아니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98</sup> 박혜원은 타락 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부부 관계의 계급적인 변화를 예고하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desire)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ruler over)이니라” (창 3:16b). 여기서 ‘사모하고’ 는 히브리어로 ‘데슈카테크’ 이다. Susan Foh 와 Mary Evans 에 따르면, 창세기 3 장 16 절은 창세기 4 장 7 절과 비슷한 의미로 ‘소유하려는 욕망’ (desire to possess)이나 ‘지배하려는 욕망’ (desire to control) 혹은 ‘자기 뜻대로 하려는 욕망’ (desire to drive on) 으로 타락의 질서 아래 하위 계급으로 내몰린 아내가 남편에게 소유권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예고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한다. 즉 아내를 향한 남편의 다스림(rule over)은 타락의 질서이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후 새롭게 선포된 것이다.<sup>99</sup>

이렇듯 부부 관계가 죄로 인해 피차 상처를 주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바울 사도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린도후서 5:17)임을 선포해 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새 창조의 관계 질서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에서 위대한 천명을 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sup>98</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29-130. 동등성 모델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Hengel, Jewett, Marshall, Fee, Scholer, Maston, Keener, Browning, Bilezikian, 김세윤 등이 있다

<sup>99</sup> 박혜원, “새 창조에서의 부부관계,”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158.

이것은 창세기 1 장 26-28 절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으로,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워 자신의 통치권을 대행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통해 타락으로 왜곡된 인간관계를 바로잡아 옛 세상의 대표적인 구분들, 인종적 구분, 성적 구분, 신분적 구분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다.<sup>100</sup>

타락의 질서 속에서 생겨난 불의, 불평등, 갈등, 압제, 착취, 굴종 등을 가져오는 모든 계급과 차별이 없어지고, 새 창조의 질서인 의와 평강, 평등, 섬김, 사랑, 피차 순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로마서 1:16, 17) 복음이다.<sup>101</sup>

새 창조의 위대한 천명 위에 모든 인간 관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엠펬소서 5:21). 이 동등성과 상호주의로 표현되는 새 창조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자적 뜻에 따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다. 바울 사도는 이 동등성과 상호주의 원리를 부부의 성적 권리와 의무를 행함에서도 지키도록 가르쳤다(고린도 전서 7:2-6). 당시 남성 위주 시대라 여성에게도 이혼 제기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주의 원리를 천명했다(고린도전서 7:10-11). 이와 같이 새 창조에서 남녀가 공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함께 갖게 되었고, 또 남녀가 공히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sup>102</sup> 결론적으로 복음 위에 세워진 새 창조의 관계 질서는 동등성과 완전한 상호주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다.

엄예선은 ‘동반자적 관계 모델’ 이 다음과 같은 7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sup>103</sup> 첫째, 이 모델은 과연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능적인 모델인가? 하나님이 남편보다 아내에게 리더십을 포함한 여러가지 은사들을 더 많이 주신 경우에도 무조건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잠재적 능력을 사장시켜

<sup>100</sup>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29.

<sup>101</sup> 박혜원, “새 창조에서의 부부관계,” 159.

<sup>102</sup>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31.

<sup>103</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39-144.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편은 머리로서 지도자 혹은 의사결정자 역할을 해야 하고, 아내는 몸으로서 남편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델이라면 많은 가정이 이 모델을 통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아내의 의견을 참조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언제나 남편이 내리는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sup>104</sup>

둘째, 이 모델을 통해 부부가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만일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설사 남편이 아내하고 상의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부부는 진정한 부부간의 친밀함을 체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깊은 친밀성은 상하관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105</sup> 레스터(Lester) 부부는 불평등한 지위와 불균형한 힘은 친밀감의 한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지독한 투쟁과 부정, 분노,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sup>106</sup>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코치와 선수의 관계, 대장과 부하의 관계,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서로 친하다 할지라도 친밀감을 강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삶을 통제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장 깊은 곳을 알지 못하도록 방어할 것입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만들고 아내를 조력자로 만드는 사회화의 결과, 친밀감을 가로막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상호성과 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결혼생활이야말로 친밀감을 가장 크게 강화시켜 줍니다...부부가 평등한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한 쪽이 분노를 표출하고 평등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면 성생활을 회피한다거나, 무책임한 소비 행위를 한다던가, 약물 중독, 우울증 등의 문제에 빠지는 것도 권력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모델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움을 가능하게

<sup>104</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40.

<sup>105</sup> Ibid., 140-141.

<sup>106</sup> Andrew D. and Judith L. Lester,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을까?* 신선명, 신현복 역 (서울: 아침영성지도 연구원, 2009), 241-242.

하는가? 건강한 부부 관계는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상대방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남편이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는 상하적인 관계에서는 아내가 빗나가는 남편에게 강하게 권면하여 그를 돌이킴이 불가능하다.<sup>107</sup>

하이패밀리의 대표인 송길원은 남편의 머리됨, 헤드십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하와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 줄 때 하와가 반대 의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예로 든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 주 되심(Lordship)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하와가 아담이 지어 준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머리 됨(Headship)을 인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남편을 가리키는 한자의 지아비 “부”(夫)자는 하늘 “천”(天)자 위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임으로 남편의 부재중에는 집안의 큰 결정을 아내 혼자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야, 그것은 너희 아빠가 결정하실 일이야.” 이처럼 진짜 똑똑한 여자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송길원의 입장은 극단적인 전통적 가부장적 부부 관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가 2011년 5월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내조의 여왕 되기 10 계명’이다. 내용이 길지만 비평적으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계명.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모드를 감탄모드로 전환하자. 잔 소리는 독이 되지만, 감탄은 약이 된다. 남편들은 끼어들기보다 작은 응원가에 더 힘을 얻는다.

2 계명. 남편의 개인비서가 되자. 남편의 인맥관리를 위한 경·조사 챙기기, 명함 정리해주기 등 남편이 소홀히 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신경 써 주자. 어떤 CEO도 안 부럽다.

3 계명. 코디네이터가 되어 남편을 베스트 드레서로 만들어 보자. 비즈니스 상황에 있는 남성들에게 옷은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옷을 입혀 내보내자. 아내가 신경 써 준 옷 하나로 남편의 어깨는 당당해진다.

4 계명. 시택에 남편의 기념비를 세우자. 남편의 업적, 실력, 가문 등에 대해 시택에 자랑해 보자. 직접 칭찬보다 간접칭찬이 메아리가 더 큰 법이다. 집안에서 인정받는 남자는 세상이 부럽지 않다.

<sup>107</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41.

5 계명. 남편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되자. 남편의 연령대에 맞는 비타민군, 철분 등 건강 상비약을 챙겨주자. 남편의 건강은 내 손에 달렸다. 생활 속의 건강은 어떤 보약보다 낫다.

6 계명. 아이들의 엄마보다 남편의 아내가 되자. 간식시간이나 아이들을 훈계할 때 등 생활 속에서 남편 위주로 하자. 그것은 아빠를 아이들의 우상과 인생의 나침판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된다.

7 계명. 핸들 잡은 남편을 기사로 만들지 말자. 설마 길 잃어버릴까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자. 목적지는 찾게 되어있다. 혹시 불법을 저지를 때라도 ‘역시 당신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라는 말이 남편을 흥겹게 한다.

8 계명. 남편의 불뚝 성질을 받아 주자. ‘성질이 없다면 그것도 남자일까?’ 남자의 욕하는 성질을 대지의 어머니처럼 받아줘 보자.

9 계명. 남편 취미생활의 지원군이 되어 주자. 남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취미생활(얼리 어답터를 포함)에 박수쳐 주고 지지해 주자. 남편의 취미를 방해하면 남편의 거짓말만 늘어난다.

10 계명. 알면서도 속아주자. 남편이 상가집에 다녀와서 늦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해도 때론 눈감아 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신뢰가 결국 정직을 불러낸다. 믿어주면 돌아온다.<sup>108</sup>

이상 ‘내조의 여왕 10 계명’ 을 보게 되면, 아내의 자리는 ‘돕는 배필’ 이라기 보다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하녀’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본 연구자는 이런 상하적인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이 모델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모델인가? 클라인벨(Clinebell)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배우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배우자가 잘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쓰임받도록 서로의 은사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09</sup> 특히 리더십의 은사는 매우 중요한 은사인데, 이 모델에 의하면 여성들의

<sup>108</sup> 하이패밀리 자료실(보도자료 번호 207 내조의 여왕, 외조의 고수 10 계명) Online: <http://www.hifamily.net> 참조.

<sup>109</sup> Howard Clinebell, *성장상답을 통한 부부성장 과정*, 이종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엄예선,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 142 에서 재인용.

리더십 은사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섯째,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가 똑같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자에게 단순히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인 리더십을 행사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sup>110</sup> 레스터(Lester) 부부는 창세기 1장 26-28 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탄생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 주장을 발견한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3) 복수 명사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특별한 존재였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수혜자였다. (4)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생육하고 번성할 책임, 가정과 공동체를 이룰 책임을 부여 받았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다. (5) 남자와 여자 둘 다 땅을 지배할 권리와 돌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다.<sup>111</sup>

한 쪽이 지배한다는 개념이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남자는 우월한 지배의 성으로 창조된 게 아니며, 여자를 지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동료이자, 가족을 이루고 땅을 돌보는 일에서도 파트너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요구가 비성서적이지 않는 한 아내는 항상 순종해야만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을 두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이 모델은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가?<sup>112</sup> 셀(Se11)은 동반자적 관계 모델을 지지하는 학자이다. 그는 부부간의 동등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부부간에는 서로 기능의 다름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부의 관계를 삼위일체에 비유하면서 성부, 성

<sup>110</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42.

<sup>111</sup> Lester,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을까?*, 245.

<sup>112</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43.

자, 성령이 동등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셨음을 인용한다.<sup>113</sup>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본질적으로 또는 구원론적으로는 동등하나 남편은 지도자이고 아내는 남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 면에서는 동등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김세윤은 이러한 견해를 일종의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전체와 어긋나고 에베소서 5장 21 절의 “피차 복종하라”는 기본 논지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한다.<sup>114</sup> 그는 또한 삼위일체적 신론이 남편과 아내의 상하 위계 질서와 아내의 복종 기능 개념에 적절한 유비(analogy)를 제공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삼위일체적 신론의 기본 의미는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초월하시는 성부가 성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심’ (sending, commissioning)으로 성자가 성부를 이 세상에 계시하시고 성부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성자 안에 이루어진 성부의 계시와 구원을 실재화(또는 효력이 발생하게 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는 ‘보내심’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보내심’ 받은 성자는 ‘보내신’ 성부를 순종하여(성부의 뜻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켜) 성부를 계시하고 성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자의 내재의 존재 방식이 아닌 부부 관계에, 남편은 ‘보내고’ 아내는 ‘보냄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지 않는 부부 관계에 삼위일체론적 관계를 유비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sup>115</sup>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국과 외국에서 조사된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은 부부가 동등한 권력을 공유하는 부부들이 가정 생활 만족도가 남편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부부들의 가정 생활 만족도에 비해 높다는 일관성 있는 보고를 한다.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 됨과 아내의 순종을 강조해 온 많은 한국 교회들은 그러한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과학적인 연

<sup>113</sup> Sell, *가정 사역*, 186.

<sup>114</sup>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95-97.

<sup>115</sup> *Ibid.*, 97-98.

구들은 불일치할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sup>116</sup>

엄예선은 지금까지 교회가 해온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더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그리고 정신의학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이 가정 사역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있으므로 오로지 성경에만 입각한 사역을 실시해야지 심리학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일부 교역자들과 교인들의 저항과 불편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교인들의 가정 문제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찾을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즉 그들은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6)라는 삶의 원리는 가르치고 있으나 분노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며, 또 성경은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화목한 가정을 구축하기 위한 가족 간의 구체적인 대화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 가정 사역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과 신학과 사회과학은 서로 잘 통할 될 수 있는 학문들이라는 사실을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sup>117</sup>

권면적 상담으로 유명한 아담스(Adams)는 모든 심리학적 이론을 반대하며<sup>118</sup> 오직 성경 및 기독교 전통에 입각하여 지시적, 충고적 상담 방법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목회 상담가들은 심리학과 일반 상담적 지식을 일반계시의 부분으로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제자 상담의 콜린스(G. R. Collins)와 성경적 상담의 크랩(L. J. Crabb)을 들 수 있다. 물론 목회상담자들 사이에 상담 장면에서 성경 또는 기도, 기독교 전통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교회가 영적인 문제와 성숙보다 심리적인 관심에 너무 주의를

<sup>116</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43-144.

<sup>117</sup> Ibid., 526-527.

<sup>118</sup> Jay E. Adams, *목회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교, 2001), 24.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독교 상황에서 기독교의 유산이나 전통이 무시되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에 대한 무지와 상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훈련 없이 상담하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제3절 이혼과 재혼에 관한 성경적 윤리

이혼과 재혼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구절은 신명기 24 장 1-4 절, 말라기 2 장 16 절, 마태복음 5 장 31-32 절, 19 장 3-9 절 등이 대표적이다. 교부 시대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교회는 이혼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취해왔다.

첫째로 “이혼은 어떤 이유로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대표적이다. 로마 교회법 1141 조는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나 중대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거를 권장할 뿐 이혼은 허용하지 않는다.<sup>119</sup> 이 입장은 마태복음 19 장 4-6 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4-6).

예수님은 창세기 2 장 24 절을 인용해 가며 결혼이 곧 언약임을 명확히 하셨다. 겐츠(Getz)는 ‘합한다’는 단어는 매우 강한 말로서 결혼 관계의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결혼 상태에 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

<sup>119</sup> 이정석, “교회의 세 가지 이혼관과 성경적 입장,”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179.

도하셨음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다고 강조한다(마태복음 19:6).<sup>120</sup>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육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육체 이상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바클레이(Barclay)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원리를 제시하셨던” 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원리라는 사실인데 이들은 상당히 다른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린다.<sup>121</sup>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과 온전한 뜻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마태복음 5 장 32 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예외 조항은 이혼을 강력히 금지한 예수님의 분명할 말씀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전반적으로 간음을 유일한 이혼 조건으로 허용한다.<sup>122</sup> 예수님이 마태복음 5 장 32 절과 19 장 9 절에서 말씀하신 ‘음행한 이유’ 라는 구절은 그동안 그 의미에 대해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음행’ 이라는 단어의 헬리어 ‘포르네이아(Porneia)’ 혼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경적인 결혼의 기본인 한 몸(one flesh)의 개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콜린스(Collins)는 음행 사건이 개입되었다 할지라도 이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혼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이유로 이혼이 발생하면 재혼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많은 개혁주의자들이나 후기 신학자들은 죄가 없는 배우자의 경우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고 본다.<sup>123</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 장 5 조는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은 것처럼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

<sup>120</sup> Gene A. and Kenton Getz, *The Measure of a Young Man: Become the Man God Wants You to Be* (Grand Rapids, MI: Revell, 2011), 227.

<sup>121</sup>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 가정*, 264.

<sup>122</sup> 이정석, “교회의 세 가지 이혼관과 성경적 입장,” 182.

<sup>123</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670.

법적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칼빈(Calvin)은 간음이 묵인되는 사회에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간음의 경우 이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124</sup>

루터(Luther)도 간음과 처자 불법 유기를 이유로 하는 이혼에 대하여 예외 조항을 둔다. 간음과 유기는 하나님과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성경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재혼을 허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버려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그리고 어떤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편이 내쳐 버린 부인이거나 혹은 10년 후에 돌아온 남편의 부인과 같이 결백한 배우자는 재혼을 허용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단지 죽음만이 결혼으로 묶인 관계를 풀 수 있고 그 배우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도록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출발점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부인에게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루터도 역시 재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sup>125</sup>

셋째로 “간음 외에도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다” 는 입장으로서, 실제로 현대의 많은 교회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26</sup> 모세가 간음의 경우 이혼을 허용하였다는 말씀은 신명기 24 장 1 절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 즉 ‘에르 왓 다바르’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다. 문맥을 살펴 보면 이 본문의 경우는 신명기 22 장 13-22 절의 혼전 부정을 가리키는 듯하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모든 이혼을 정당화했다.<sup>127</sup>

당시 율법 해석의 두 권위였던 보수적인 샴미아(Shammai) 학파와 자유주의적인 힐렐(Hille) 학파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이혼 문제에 혼란을 가져왔다. 샴

<sup>124</sup> 이정석, “교회의 세 가지 이혼관과 성경적 입장,” 179.

<sup>125</sup> Gordon J. Wenham and William E. Heth, *Jesus and Divorce* (Nashville, TN: Nelson, 1984), 79-80. David A. Thompson, *이혼 상담*, 남상인 역 (서울: 두란노, 2002), 60 에서 재인용.

<sup>126</sup> 노용찬,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190.

<sup>127</sup> 이정석, “교회의 세 가지 이혼관과 성경적 입장,” 184.

마이는 이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성적 부정으로 제한하였으나, 힐렐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 힐렐에 따르면, 남편은 자기 눈에 아내가 이미 늙어 아름답지 못하거나, 빵을 굽다가 좀 태웠거나, 죽을 끓이는 데 냄새가 나게 하는 경우에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다. 김세윤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이혼 금지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시 여성이 이혼을 당하면 생존이 어렵게 되는 가부장적 사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혼이 옳지 않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하면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128</sup>

마태복음 19 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이유든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부정하시면서, 결혼이 곧 언약임을 명확히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결혼의 영속성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만이 이혼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인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울러 음행하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 하는 것은 간음이며 그렇게 하여 결혼한 사람 또한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켈러(Keller)는 언약은 언제든 가볍게 파기할 수 있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결혼과 동시에 형성되는 새롭고도 강력한 연합이므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깨트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너무 딱딱하게 굳은 탓에 뉘우치고 치유할 만한 수준을 넘어 언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경우에는 이혼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sup>129</sup>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담스(Adams)도 이혼은 계약 위반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제도화하지 않으셨지만 다만 이혼은 인정하신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이혼은 성경적 개념이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실질 사례에 잘 적

<sup>128</sup>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33-34.

<sup>129</sup> Timothy Keller,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4), 115.

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이 이혼한 모든 사람에게 대해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30</sup>

아담스(Adams)는 하나님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라기 2:16)고 강조하며 말씀하실 때 그 선언을 이혼이 단지 혐오스런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에레미야 3장 8절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렘 3:8, 버클리역).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이혼 과정을 밟으셨다면 모든 이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을 분명 잘못된 일일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볼 때) 때로 이혼은 특정한 환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합당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이혼을 같은 방식으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다...하나님은 모든 이혼을 심지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하신 이혼조차도-가져온 원인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이혼을 통해 자녀와 상처받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흐르는 결과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인정하지 않으신 근거 위에서 잘못되게 이루어진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이혼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하셨던 이혼도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렇듯 이혼은 단순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혼한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게다가 그런 말은 하나님도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하나님도 이혼했던 분이기 때문이다).<sup>131</sup>

켈러(Keller)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언약과 서약의 개념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이혼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는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을 품고 서약을 깨뜨리는 배우자와 결혼한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계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혼은 끔찍하게 어

<sup>130</sup> Adams,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57.

<sup>131</sup> Ibid., 57-58.

럽고 또 그래야 하지만,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이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이다(예레미야 3:8). 주님은 이혼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sup>132</sup>

아담스(Adams)와 켈러(Keller)가 언급한 대로 예레미야 3장 8절에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드러난다. 영적으로 간음한 백성들이 새로운 상대와 언약을 맺었다. 새로운 연인을 구한 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배우자의 배신과 이혼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사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동원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예언적 책임이고, 또 하나는 목회적 책임이다.<sup>133</sup> 예언적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표준 앞에 순종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또한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책임이 있다. 이미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돌볼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의 책임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sup>134</sup>

만약 한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예언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목회적 책임을 망각한다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을 다루는 그 교회의 상(이미지)은 바리새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하는 그런 교회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예언적 책임을 망각하고 목회적 책임만 강조한다면, 성경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표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준 제시에 소홀한 채 무조건 치료와 돌봄에만 몰두한다면

<sup>132</sup> Keller,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115-116.

<sup>133</sup> Thompson, *이혼 상담*, 135-147. Thompson 은 교회를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진 예언적 공동체와 지지적 공동체 그리고 약속의 공동체로 본다. 교회에는 상호 간의 관심, 보살핌, 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들에 대한 상호간의 지도와 훈육도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

<sup>134</sup> 이동원, *향유 내음 가득한 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304.

그 교회는 무의식 가운데 이혼을 오히려 장려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연구자는 “결혼은 창조 질서의 일부지만 이혼은 구속 질서의 일부다” 라고 주장한 셀(Sell)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혼과 재혼을 계획하신 것은 아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의 신성성과 영원성이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위적으로 나눌 경우 고통스러운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마태복음 19:9)과 배우자와의 사별(고린도전서 7:39), 이 두 가지 뿐이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하였는데 그 사람이 갈라서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린도전서 7:12-16).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배우자 학대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외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럴 경우 남편과 아내가 잠시 별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별거를 하는 목적은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함이 아니라 목회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를 모색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지만 이혼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는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법 위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sup>135</sup>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멧들고 부러진 사람들을 봉대로 싸매 주도록 명령받았다.<sup>136</sup> 확실한 것은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혼한 사람들

<sup>135</sup> Dwight Small, *Right to Remarry*, (Old Tappan, NJ: Revell, 1975) 12. Sell, *가정 사역*, 132 에서 재인용. Small 은 은혜만이 이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결혼은 영구한 것이고, 이혼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다. 이혼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허용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아래에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sup>136</sup> 노용찬, “사례로 본 교회 안의 이혼,” 193. 이혼은 그것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일차적으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과 이혼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점이다.<sup>137</sup> 이들이 더 이상 교회의 그늘에서 움츠리고 있지 않도록 지지 그룹(support group)과 회복 프로그램(recovery program) 운영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민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가정 사역은 가정이 하나님이 작품임을 선포하고 죄로 인해 깨지고 상처받은 가정을 상호적 협력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훈련함을 통하여, 온 가정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sup>138</sup> 홍인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개념을 가족관계의 핵심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관계가 언약인 것 처럼,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이전에 헌신에 기초한 언약관계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듯이, 호세아에게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은(호세아 3:1) 가족과 부부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39</sup>

가족 관계는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사랑을 통해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성장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한일서 4:9-11)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가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통로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가정은 쉽게 흔들린다. 언약과 헌신,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갈등과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게 되고, 따라서 가정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원래의 목적과 의미대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sup>137</sup> Thompson, *이혼 상담*, 35.

<sup>138</sup> 김래현, “교회와 가정 사역,” 39.

<sup>139</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76-87.

## 제 4 장

### 열린문 교회의 가정 사역의 역사와 현황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의 발전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sup>140</sup>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다양한 글과 메시지를 통해 가정 사역을 소개한 양은순과 이동원의 ‘새 생활 가정 세미나’, 두란노서원의 ‘가정 사역학교’,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가정선교원’ 등의 영향이 컸다. 1990년대에 기독교가정 사역연구원, 한국가정 사역연구원과 같은 다양한 전문 기관이 생겨나면서 가정 사역이 더욱 조직화되고 교육적이며 치료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전문 기관이 개발한 다양한 사역 모델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사역을 시작한 대부분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가정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다.<sup>141</sup> 본 장에서는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모델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 제 1절 가정 사역 모델

열린문의 가정 사역은 “교회 안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역”이다. 가정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앞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역이라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한다(에베소서 6:4). 교회의 가정 사역을 통해 부모가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sup>140</sup> 예를 들어, ‘Marriage Encounter’ 나 ‘marriage Enrichment’ 등에서 볼 수 있다.

<sup>141</sup> 유재성,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에 대한 진단과 희망,” 64-65.

삼도록 부모를 돕는다. 존스(Jones)는 오늘날의 가정 사역이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 신앙 훈련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고,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아이를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제대로 된 가정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사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정통합사역 모델,’ ‘가정 기초사역 모델,’ ‘가정구비사역 모델’의 세 가지 가정 사역 모델을 제안한다.<sup>142</sup>

첫째, 가정통합사역 모델(family-integrated ministry)은 연령별 모임과 행사가 없으며, 유소년부, 중고등부, 남녀전도회가 없다.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 제자화와 복음전도를 위한 책임을 지고, 매주일 주보를 통해 아버지는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다. 또한 성경읽기표를 통해 주 중에 모든 교인이 성경을 읽도록 장려한다. 아이들은 설교 때 들은 말씀을 부모에게 반복해서 묻고, 또 적용하기 위해 힘쓴다. 이는 가족들이 똑 같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교인들은 다른 가정과 함께 모이거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sup>143</sup>

둘째, 가정기초사역 모델(family-based ministry)은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역은 모든 세대를 하나로 이끌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훈련에 동참하는 프로그램과 사역을 추구한다. 청소년부, 주일학교, 장년부들을 유지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다른 세대들과 분리된 채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의 사역에 세대 간의 커리큘럼, 활동,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연령별 사역으로 인한 가족과 세대 간의 분리는 연령별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사역이 전략을 잘 세우지 않아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다.<sup>144</sup>

셋째, 가정구비사역 모델(family-equipping ministry)은 연령별로 나뉜 프로그램과 행사

<sup>142</sup> Jones, *가정 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47-59.

<sup>143</sup> Ibid. 47-48. 가정 통합 사역의 대표적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Voddie Baucham Jr.(professor, author, and pastor of Grace Family Baptist Church near Houston, Texas), Paul Renfro(pastor of discipleship at Grace Family Baptist Church in Spring, Texas), Scott Brown(director of the National Center for Family-Integrated Churches (NCFIC)), Doug Phillips(president of Vision Forum Ministries).

<sup>144</sup> Ibid. 48. 가정 기초 사역의 대표적 교회는 다음과 같다. Brandon Shields(minister to high school students at Highview Baptist Church, a multi-site megachurch in Kentucky and Indiana).

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대들을 하나로 묶고 자녀 신앙훈련의 책임자인 부모 역할을 지지하며 그 역할에 책임을 지도록 사역을 재조정한다. 가정기초사역과의 차이점은 사역자 자 자녀의 주된 제자훈련자인 부모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무엇이 가정을 위한 최선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사역한다는 점이다. 가정기초사역이 행사나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반면, 가정구비사역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하도록 교회사역을 재조정한다. 연령별 사역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부모와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 자녀의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sup>145</sup>

존스(Jones)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세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열린문의 가정 사역은 가정기초사역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기존 교회 사역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세대별로 통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민 교회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기존의 연령별 교육을 하되, 의도적으로 가정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도록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교회 사역의 최전선에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게 한다.

## 제2 절 가정 사역의 준비 단계

이민 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실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가?” 이다. 엄예선은 무엇보다도 가정 사역 프로그램이 분명한 신학적 기초 위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 사역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확산에 급급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신학적인 입장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sup>146</sup> 그러므로 가정 사역의 시작을 위해 먼저 기도하면서 분명한 사역 철학과 비전을 그려나가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sup>145</sup> Jones, *가정 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49-50. Southern Baptist Seminary의 Randy Stinson 과 Timothy Paul Jones 교수가 이 사역을 위한 신학적인 뼈대를 발전시켰다. 가정 구비 사역의 대표적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Jay Strother (minister to emerging generations at Brentwood Baptist Church in Tennessee), Brian Haynes(minister to Kingsland Baptist Church in Texas), Steve Wright(minister to Providence Baptist Church in North Carolina).

<sup>146</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94.

단순한 일회성 사역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가정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정의와 목적, 방법과 과정이 성격적으로 조명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sup>147</sup>

열린문의 가정 사역 담당 목회자로 부임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교회의 비전인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 와 함께 갈 수 있는 가정 사역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한국과 미국교회의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계획했다.<sup>148</sup> 장기적 가정 사역을 위해서 가족생활 주기를 활용하여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가정 사역은 돌봄의 사역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돕고 치유하는 회복 사역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섬김 사역에 관한 연구를 했다. 다음은 가정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정 사역팀 회의를 위해 준비한 내용이다.

열린문 장로 교회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가정과 오이코스<sup>149</sup> 그리고 일터에서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우리의 사명은 가족 세대별 특성에 맞는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기독교 가정을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이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특성별 가정 사역을 개발 운영한다. 결혼 예비 상담과 부부 멘토링 그리고 정신 건강 세미나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캠프와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둘째, 크리스천 부부들을 훈련된 가정 사역자로 세운다. 전문 상담자 전공자들로 구성된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원그룹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상담 아카데미 I, II, III 및 스테반 사역자 훈련을 한다. 셋째, 열린문 가정 사역의 노하우를 지역 사회와 교회에 보급하여 이민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sup>147</sup>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100.

<sup>148</sup> 한국: 지구촌 교회 글로벌 상담소, 온누리 교회, 고병인 가족상담 연구소, 하이패밀리(송길원 김향숙), 한국 가정 사역 연구소(추부길) / 미국: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Chicago, IL), Saddleback Church(Lake Forest, CA),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Glenside, PA), Stephen Ministries(St. Louis, MO)

<sup>149</sup> ‘오이코스’란 헬라어로 집, 가족, 가정이라는 뜻으로, 열린문의 작은 가족 소그룹 모임이다. 오이코스마다 리더가 세워지는데 오섬(오이코스를 섬기는 사람)과 오섬애(오섬의 배우자)라고 호칭한다.

교회의 비전과 함께 하는 가정 사역의 범위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교회와 가정 사역원의 비전

교회의 비전	가정 사역원의 비전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예배와 양육	은혜가 임하는 가정 예방과 교육(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작은 가족 ‘오이코스(oikos)’ 와 소그룹 모임	은혜가 머무는 가정 치유와 회복(건강한 가정으로 살리기)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은혜가 흐르는 가정 섬김과 훈련(축복의 통로로서 섬기기)

### 1. 예방 사역

예방 사역이란 가정 교육을 포함한 가정 전반에 대한 교육 사역이다. 즉 대화의 기술, 양육의 기술, 가정의 재정 관리 기술, 대처하는 기술, 결혼 전 상담, 크리스천의 성교육, 부모 교육, 상담 설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방 사역에서 뺄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설교이다. 설교는 개인과 가정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설교는 그룹 상담과 같은 형식 속에 행하여져야 한다. 즉 설교자는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여 설교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하며,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성서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며 가족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는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설교를 통하여 성서적 가정관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sup>150</sup>

가정 사역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역이 아니다. 교회가 먼저 찾아 나서야 한다. 자살 충동을 느껴 목회자에 상담을 요청하면, “기도하라” 는 말밖에 못 듣는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보고도 있다.<sup>151</sup> 자살은 당위론만으로는 예방되지 않는다. 자살

<sup>150</sup> 김래현, “교회와 가정 사역,” *주님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회봉사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42-44.

<sup>151</sup> 우형진, “자살예방 교회가 나서야 한다,” *크리스찬 투데이*, 2007년 3월 14일자, 2017년 12월 인용. 기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자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이민 교회는 예방 사역을 통해 교인들이 아직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는 위기나 문제나 상처들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전에 방지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회복 사역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분야로서 결혼생활의 붕괴로 인한 이혼이나 사별, 독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술, 도박, 마약 등 여러 가지 중독과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돕는 사역이다. 회복 사역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소그룹 사역이다(고린도후서 1:4).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 관계나 신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소그룹에서 나누며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치료하는 방법이다.<sup>152</sup>

이민 교회 안에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닌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의 짐을 지며, 형제를 지켜주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치유 집단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 이미 위기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교인들은 앞서 말한 기능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전문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교인들을 때를 놓치지 말고 자격을 갖춘 기독교 정신과 의사, 임상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가족 치료자들에게 보내야 한다.<sup>153</sup>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요구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sup>154</sup>

자석. Online: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9913](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9913).

<sup>152</sup> 김래현, “교회와 가정 사역,” 46-47.

<sup>153</sup> 엄예선, “산위에 세운 도성 1,” *하나*, 2006년 12월 5일호, 1.

<sup>154</sup> Paul W. Pruyser, *진단자로서의 목사*, 유희동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2), 168.

### 3. 섬김 사역

가정 사역은 평신도 사역이다. 갈란드(Garland)가 가정 사역을 “자신들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해 주는 모든 활동들”<sup>155</sup>로 정의 하듯이, 가정 사역은 평신도 가정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다른 평신도 가족들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 상담자, 멘토, 소집단 인도자, 지역사회봉사자 등으로 세우는 사역이다.

탄(Tan)은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본을 들었다.<sup>156</sup> 그것은 자발적인 비공식적 모본과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본, 그리고 조직화된 공식적 모본이다. 특히 조직화된 비공식적 모본은 평신도 상담과 돌봄을 통해서 다가가기(outreach)와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회에 적합하다.<sup>157</sup> 그는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중국인 교회의 예를 들었다.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 상담을 기피하는 이민 교회에도 적합한 모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테반 사역은 이 모본을 적용한 좋은 예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세계 29 개국에 걸쳐 12,500 개가 넘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sup>158</sup> 평신도 상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본을 연구하여 교회의 가정 사역에 정착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민 교회는 앞으로 예방에 초점을 둔 전교인 대상 공개 집단상담과 개인 비공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또한 평신도 상담자들을 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09 년에 설립된 워싱턴 크리스천 상담 교육원(Washington Christian Counseling Institute, 이하 WCCI)은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협력 단체이다.<sup>159</sup> 크리스천 상담 전문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상담,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써, 상담 사역과 상담 아카데미, Youth Council,

<sup>155</sup> Garland,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374.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22 에서 재인용.

<sup>156</sup> Siang Yang Tan, *평신도 상담자*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87-90.

<sup>157</sup> Ibid, 92.

<sup>158</sup> 스테반 사역은 평신도를 훈련시켜 철저한 비밀 보장 하에 기독교적인 일대일 심방 사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 오도록 도움을 주는 사역이다.

<sup>159</sup> <https://www.wccigcc.org/programs>

Professional Forum, 인턴쉽 프로그램을 주요사역으로 하고 있다.<sup>160</sup>

‘WCCI’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사교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하고 또한 그 개인이 속해있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인적 통합 상담 방법이다. 상담의 모든 기본 원칙과 신학적 기준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단순히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개인, 커플, 부부, 가족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상담 아카데미는 기독교 상담의 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자의 경험과 교훈을 나눌 수 있는 효율적인 평신도 상담 사역을 위한 전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상담 훈련 프로그램이다. 지역교회의 교역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2009년 6월 3 주동안 실시했던 상담 아카데미 I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1 회. 목회 상담과 가정 사역: 가정상담의 개념적 틀과 상담 기법들을 이해, 습득하고, 회복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과목으로, 이민 교회와 가족 상담, 가정 상담의 모델과 적용, 이민 교회와 가정 사역 프로그램에 대해 다룬다.

2 회. 상담 원리와 기술: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 이해 받고, 관심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상담의 여러 가지 기본 방법과 원리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상담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회. 위기 상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위기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목회자나 상담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과목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4 회. 상담적 소그룹: 교회내의 모든 소그룹(셀모임, 성경공부 그룹, 치유그룹 등) 리더

---

<sup>160</sup> Tan, *평신도 상담자*, 89-90. Tan의 세 가지 모본 가운데, WCCI는 조직화된 공식적 모본에 속한다. 이 모본은 평신도 상담이 조직화되고 지도를 잘 받고 있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내에서 평신도 상담 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 사업가, 상담자, 결혼과 가족 치료사, 정신 의학 간호사, 상담 목회자들 간에 면허를 가진 정신 건강 상담자들이 책임자로 있고 전문 상담자나 치료사들이 간사로 있는, 그렇게 잘 조직되고 공식화된 센터나 활동은 독립적일 수도 있고, 교회의 더 큰 상담 센터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의 역할을 상담자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소그룹의 역동성, 의사전달 기술 및 상담적 소그룹 인도방법을 성경적이며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 정신질환: 한인 이민자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 치료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관과 이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해석을 도모한다.

6 회. 결혼과 가정: 성경적인 결혼과 가족관에 근거하여 현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적 그리고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며, 또한 이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Youth Council’ 은 북 버지니아 지역 고등학생들로 이뤄진 카운셀링 공동체로 한 달에 두 번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매해 열리는 ‘Youth Conference’ 의 준비와 상담에 대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당 세대가 제안하는 새롭고 실제적인 답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Professional Forum’ 은 심리, 상담, 교육,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 선별된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그 위에 가장 복음적인 방법론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3절 가정 사역의 실시 단계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사역 단계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처음 3년 동안은 가정 사역을 “Set Up” 하는 시기로, 2011년부터는 가정 사역을 “Build Up” 하며 “Share With” 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준수는 가정 사역의 단계를 전혀 가정 목회의 개념이 없는 단계에서부터 가정 사역을 교회의 중심에 두고 모든 사역을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목표를 두는 단계까지 구분한다. 이는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sup>161</sup>

### 1. 초보적 가정 사역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일 년에 한두 번씩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가정 주일을 정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사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외부의 가정 사역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통한 가정 사역의 도전과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 교회가 첫 번째 단계에 속한다.<sup>162</sup>

2008 년에 2 월에 버지니아와 볼티모어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버지니아 7기 아버지 학교를 열린문에서 개최하였다. 7 월과 8 월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Change Up 가정 축제’ 를 열었다. ‘지혜로 세우는 가정,’ ‘크리스찬 재정 교실,’ ‘창조적인 가정 생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과학과 신앙’ 이란 주제로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 사역자들과 재정 전문가 그리고 교수를 초빙해 세미나를 했다.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 2.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회안에서 좀더 지속적인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일 년의 목회 계획 가운데 가정에 초점을 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단계이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가정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정 사역이 단순히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가정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다.<sup>163</sup>

열린문의 가정 사역은 에제르 여성 모임과 파테르 남성 모임과 같은 소그룹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에제르 여성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10 시에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

<sup>161</sup>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101-103.

<sup>162</sup> Ibid., 101.

<sup>163</sup> Ibid.

린 후 소그룹으로 모여 여성들끼리만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 여성들만의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친구따라 모임에 왔다가 교회와 친숙해져서 등록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전도의 앞뜰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매주 파테르 남성 모임이 시작되었다. “Pater”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남성들이 모여 건강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모임을 위한 교재로 ‘부부 십계명,’<sup>164</sup>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sup>165</sup> ‘10 번의 데이트,’<sup>166</sup> ‘하프타임’<sup>167</sup> 등 가정에 관련된 도서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E100)<sup>168</sup>과 성경 공부 교재(IVP 시리즈)를 봄과 가을로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매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의 족구 토너먼트나 교회 수양관으로 떠나는 파테르 1박 2일 등의 즐거운 시간도 있다. 해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길거리 청소와 어버이 주일 갈렙회 음식 대접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파테르의 활동이다.

2008년 1월 3주 동안 ‘피플퍼즐 세미나’<sup>169</sup>를 열었다. DISC 검사를 바탕으로 하여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로, 장년들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리더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데 사용하였다. DISC는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형(Conscientiousness)의 네가지 유형의 앞 글짜를 딴 행동 유형으로, ‘관계를 위한 기질 이해(people puzzle)’ 시간에는 DISC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보고, 각 유형이 가진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점을 살펴보게 된다.

<sup>164</sup> Ed Young, *부부 십계명*, 홍종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sup>165</sup> Stormie Omartian,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sup>166</sup> David and Claudia Arp, *열 번의 데이트* 정태기 역 (서울: 상담과 치유, 2007)

<sup>167</sup> Bob Bufford, *하프타임*, 이창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sup>168</sup> Whitney T. Kuniholm, *E100 성경읽기 가이드*,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sup>169</sup> Walk Thru the Bible, *피플퍼즐 세미나*, 디모테성경연구원 역 (Santa Fe Springs, CA: 디모테성경연구원, 2000).

2008년 봄 학기에는 전교인 양육 프로그램 과정으로 ‘성경적 부모 교실’ 과 가을 학기에는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를 개설되었다. ‘성경적 결혼관,’ ‘부부의 대화,’ ‘건강한 자아상,’ ‘부부의 성격,’ ‘가정과 재정’ 등 예비 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들이 준비되었다. 강사진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상담학 교수, 전문 상담자 그리고 재정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가정 사역팀에서 홍보와 안내 및 행사장 테코레이션 및 찬양 인도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 3. 전문화된 사역자 양성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더 전문적인 가정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정 사역원을 설치하고 사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가정 사역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인 중 은사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육을 받게 하고 맡길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다.<sup>170</sup> 엄예선은 가정 사역을 교회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때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부서 간의 마찰과 목회자들 간의 마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처음으로 가정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에서 가정 사역부의 부원들을 모집할 때 초신자들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미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차출하게 된다. 어느 대형교회의 경우 30개의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가정 사역부가 처음 설치되어 기존의 부서들에게 일할 사람들을 차출한 결과로 다른 부서들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부서 간의 갈등 뿐 아니라 가정 사역 전담 목회자와 다른 목회자들과의 갈등도 대두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자녀들의 문제를 교인들이 교육담당 목회자와 상담했는데 이제는 가정 사역 목회자를 찾으므로 교육담당 목회자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교구담당 목회자 역시 자신의 관할 교구에 속하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찾지 않고 가정 사역 전담 목회자를 찾을 때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목회자들 간에 미묘한 알력이 생기게 된다.<sup>171</sup>

<sup>170</sup>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101-102.

<sup>171</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520.

위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상담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을 조사한 뒤<sup>172</sup> 가정 사역 담당 목회자로서 해야할 역할에 대해 담임 목사와 당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열린문 교회 비전인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 를 세우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따라 사역을 한다. (Work closely with the Senior Pastor to execute our ODPC vision, “To Be an Open Door to a Life Changing Grace.” )

둘째,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지도 하에 교회 안의 전반적인 장년사역을 우선으로 하여 협력한다. (Insure integration of all adult ministr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Senior Pastor and Session.)

셋째, 교역자 회의에 참석한다. (Attend pastroal staff meetings.)<sup>173</sup>

넷째, H.O.P.E. 상담팀을 구성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열린문의 가정들을 섬기고 있는 오이코스 리더들과 회복사역 리더들의 양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Oversee, equip, and manage H.O.P.E. Counseling team including lay counselors and eventually Oikos leaders. Assist in equipping the Oikos and Support Group Leaders who care for the ODPC families.)

다섯째, 단기 상담과 집단 상담을 일 주일에 5-10 시간 실시한다. (Counsel 5-10 hours per week [including intensives and group counseling as needed].)<sup>174</sup>

여섯째, 열린문 가정들을 위한 교재와 양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Develop curriculum and resources for ODPC families.)

---

<sup>172</sup> Harvest Bible Chapel 참고. Online:<http://www.harvestbiblechapel.org/ministries/biblical-soul-care>

<sup>173</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521. 담임 목사는 가정 사역이 교회에 도입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마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역자 회의를 통하여 각 사역원 간의 역할들과 교역자들의 역할들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정 사역이 교회 내에 정착되기까지는 수시로 사역에 관한 보고를 받아 교역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중재할 필요가 있다.

<sup>174</sup> Harvest Bible Chapel 에서 사역하는 풀타임 상담 목사의 경우 주 15-20 시간을 상담을 하지만, 교구 사역을 포함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이민 교회에서는 주 5-10 시간이 적정선이라고 본다.

일곱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열린문 교회 뿐만 아니라 북부 버지니아, 매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의 교회와 가정들을 세우고 살리는 연합사역을 한다. (Embrace a team approach to building and serving ODPIC and the local churches and families in the DMV area.)

2008년 16명으로 시작한 가정 사역팀이 2010년에는 가정 사역원이 세워지면서 5개의 팀으로 사역이 세분화 되었다. 부부사역팀, 상담양육팀, 에제르 여성 모임과 파테르 남성 모임 그리고 클레마 장애인 사역팀으로 구성된 사역원을 담당 장로와 5명의 팀장 그리고 본 연구자가 담당 목사로서 동역하게 되었다.

2008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 예배지 ‘작은 행복’을 매월 발간하였다.<sup>175</sup> 2009년도에는 부부가 함께 하는 큐티 묵상집 ‘행복 플러스’를 발간하여<sup>176</sup> 교회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두었고, 2010년부터는 ‘작은 행복’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년부 주일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격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sup>177</sup> 또한 전도사역원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신문 ‘패밀리투데이’에 ‘행복 비타민’이라 제목으로 가정에 관련된 글을 기고하게 되었다.

상담양육팀 주관으로 2009년 가을 학기 전교인 양육프로그램 과정으로 “HOPE 상담아카데미 I”이 신설되었다. 지역사회의 전문 상담자들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기독교 상담과 가정 사역,’ ‘자녀 상담,’ ‘상담 원리와 기술,’ ‘상담적 소그룹,’ ‘정신 질환,’ ‘결혼과 가정: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훈련 받기를 원하는 리더 부부들을 위해 “분노 컨트롤” 집단상담을 6주 동안 실행했다. ‘가정 폭력 이해,’ ‘분노 이해,’ ‘분노 표현의 유형,’ ‘분노 치료 1,’ ‘분노 치료 2,’ 그리고 ‘용서하기’라는 주제를 다루었다.<sup>178</sup>

2010년도 봄 학기에 있었던 “HOPE 상담아카데미 II”에서는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sup>175</sup> John Maxwell and Brad Lewis, *Your Family Time With God: A Weekly Plan for Family Devotions*, (Colorado Springs, CO: Chariot Victor Pub, 1995). *주님과 함께하는 푸짐한 밥상*,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1999).

<sup>176</sup> Norman Wright, *Quiet Times for Couples: A Daily Devotional*,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1990) *둘이 가는 한 길*, 박혜영, 정사운 역 (서울: 두란노, 1995).

<sup>177</sup> Carla Barnhill, *Blessings Every Day*,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1).

<sup>178</sup> Chip Ingram, *분노컨트롤*,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1).

의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을 교재로 채택하여, ‘분노,’ ‘죄와 용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 그리고 ‘발달상의 문제들’ 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강의로 진행되었다.<sup>179</sup>

2011 년 가을 학기 “HOPE 상담아카데미 III” 에서는 팀 슬레지(Tim Sledge)의 ‘가족치유 마음치유’ 를 교재로 13 주동안 어린 시절과 관련된 감정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성서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을 매일 개인적인 교재 학습과 매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었다.<sup>180</sup>

#### 4. 교회의 소그룹과 연관된 사역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정 사역을 교회의 소그룹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에 가정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좀더 실제적인 가정 문제와 어려움을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으로 지식이나 기술적인 향상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의 도움과 해결책을 공유하게 된다.<sup>181</sup> 다음은 2011 년부터 2013 년에 걸쳐 신설된 소그룹 모임이다.

##### 가. Marriage Matters(2011 년 봄)

영어권 커플들을 위한 금요 양육프로그램으로 담임 목사와 사모, 영어권 가정 사역 담당 목사, 전문의 그리고 본 연구자가 10 번의 주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의 시간을 인도하였다.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Reclaiming the Biblical Foundation for Marriage,’ ‘Rebuilding Intimacy and Oneness,’ ‘Balancing Your Roles as Partner and Parent,’ ‘God’ s Purpose for the Family,’ ‘Finding Unity in Diversity,’ ‘Building a Creative Love Life,’ ‘The Art of Communication,’ ‘Resolving Honest Conflict,’ ‘Emotion Coaching for Family,’ ‘Developing Spiritual Intimacy.’

<sup>179</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sup>180</sup> Tim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3). 부록 1) 142-146. 각 장의 주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강의안 요약 참조.

<sup>181</sup>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102.

#### 나. 사별 가정 회복모임(2011년 가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사별한 교인들을 돕기 위한 13주 회복 지원 모임으로, 비디오 세미나와 소그룹 토의 및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DVD에는 상실과 슬픔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함께 회복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다.<sup>182</sup>

#### 다. 결혼 생활 멘토링(2013년 1-2월)

3월부터 시작되는 “열 번의 데이트”를 위해 부부사역팀원들과 멘토 부부 훈련을 했다. 교재로는 패롯(Parrott) 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을 사용했다. 결혼 생활 멘토링의 목적은 멘토보다 경험이 적은 부부들과 동행함으로써 평생의 결혼생활을 준비시키고, 강화하고, 회복하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sup>183</sup>

#### 라. 열 번의 데이트(2012년 봄)

결혼 10년차 미만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고, Prepare-Enrich 검사와<sup>184</sup> 존 고트만(John Gottman)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을 함께 배우며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깊은 정서적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sup>185</sup>

<sup>182</sup> Church Initiative, *Grief and Share 인도자용 지침서* (Wake Forest, NC: Church Initiative, 2007), 99. 부록 2) 147-148. 각 장의 주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강의안 요약 참조. Online: <http://www.griefshare.org>

달라스에 소재한 Stonebriar Community Church(Rev. Charles Swindoll)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매주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 Grief Share 회복모임과 Divorce Care 회복모임이 진행된다.

<sup>183</sup> Les and Leslie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유정희 역 (서울: 디모데, 2009), 41.

<sup>184</sup> Prepare-Enrich 검사에 대해서는, 제 5장 열린문 교회의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에서 다룬다.

<sup>185</sup> John M. Gottman and Nan Silver,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2002), 81-294. (1) 애정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2)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3)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4)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5)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라. (6)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상황을 극복하라. (7)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마. H2H(Heart to Heart) 이혼가정 회복 모임(2013년 가을)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교인들을 위한 회복 세미나와 지원 모임으로, 매 주 금요일 13주 동안 비디오 세미나와 소그룹 토의 및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의 내용 중에는 ‘분노 다루기,’ ‘외로움의 문제,’ ‘새로운 관계 맺기,’ ‘자녀 양육 문제,’ ‘용서’ 등이 있다.<sup>186</sup>

##### 5. 교회의 비전에 포함된 교회 전체의 사역

다섯번째 단계는 교회의 사명 선언에 가정 목회를 기술하고 교회의 중심 사역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지역 사회에도 교회의 가정 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교인의 가정뿐 아니라 불신자의 가정에게도 접근한다. 엄예선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 사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에도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현대인들은 의미 있는 관계들에 목말라 하며 그러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특히 가정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사역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sup>187</sup> 셀(Sell)은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날 복음 전도의 최대의 기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정 생활만큼 상처가 많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sup>188</sup>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민 교회는 가정 사역자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역의 노하우를 주위의 교회와 가정들과 나누고 공유하기에 힘써야 한다.<sup>189</sup>

2011년 이후 전교인 금요 양육프로그램이 일반 트랙과 가정 트랙으로 나뉘면서, 주중

<sup>186</sup> Church Initiative, *이혼가정 회복모임 인도자 지침* (Wake Forest, NC: Church Initiative, 2009), 93.

부록 3) 149-150. 각 장의 주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강의안 요약 참조. Online: <http://www.divorcecare.org>

<sup>187</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357.

<sup>188</sup> Sell, *가정 사역*, 26.

<sup>189</sup>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102-103.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다. 2011년 봄 학기에는 지역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HOPE 상담아카데미 III(가족치유 마음치유)” 인도자 훈련을 주중에 실시했다.

2011년 3월에는 뉴저지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주최로 제 4회 가정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목회자들에게 가정 사역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개 교회 실정에 맞는 사역 개발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담임 목사, 부교역자, 평신도 지도자, 상담자는 물론 가정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열렸다. 가정 사역자들과 상담학 교수, 전문 상담자들 등 다수의 강사들이 사흘간 강의를 맡았다. 열린문과 더불어 워싱턴지구촌교회, 뽀엘교회, 한빛지구촌교회, 뉴저지 찬양교회 등 지역 사회의 한인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민 가정들을 함께 살리자는 취지로 공동 후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 가족성장상담센터, 워싱턴한인봉사센터, FBM(Family Builds Ministry) 등의 단체들이 힘을 모은 연합 사역이었다.

2013년 5월에는 MSG(Mustard Seed Generation)의 전문 상담자들을 강사로 한 “Let’s Talk”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열어 지역 사회에 이민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과 치유 방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컨퍼런스는 부모를 위한 강의와 자녀들을 위한 소그룹 주제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Family Bonding 시간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4년도 10월에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과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가 함께 주최한 가정 경제 학교(Financial Literacy School)가 열렸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은퇴 계획, 노후 예산, 은행 이용, 세무, 크레딧 관리 및 부동산 매매 요령 등 각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제 4 절 위탁 사역

교회 안에는 중증환자로부터 별문제도 아닌 단순한 일로 찾아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치유 집단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의 목적과 기능과 역량의 한계를 벗어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속히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인벨(Clinebell)은 도움의 기초를 넓히기 위하여 위탁해야 할 사람의 기준을 열 가지로 두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가와의 밀접한 공동연구 관계를 가지고 ‘위탁에 의한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탁은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전문화된 돕는 기술들에 의지함으로써 충분한 잠재력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sup>190</sup> 이런 점에서 교회는 믿고 의뢰할 전문가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가정 사역을 시작한 첫 해인 2008년부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와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열린문 가정 사역원은 한인 사회의 가정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돕기 위하여 먼저 교회가 가정 폭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다.

첫째, 가정에 관한 설교와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sup>191</sup>

둘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자원의 목록과 자료들을 교회 친교실과 안내 데스크에 한국어와 영문으로 비치해 두었다.<sup>192</sup>

셋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을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sup>190</sup>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7), 479-481.

<sup>191</sup>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의하면, 목회자들 가운데 ‘가정 폭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갈 십자가’ 라며 ‘이혼은 종교적으로 용납이 안되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sup>192</sup> Grant L.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김연 역 (서울: 두란노, 1996), 66-67. 목회자나 상담자는 가정 폭력을 다룰 때 위험이 박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SR 학대 지수는 희생자 본인과 친구 또는 친척까지도 위험 수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학대자와 희생자의 요소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평가는 가족들이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록 4) 151-152. SR 배우자 학대지수와 부록 5) 153. “Are You a Victim?” 참조.

성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오이코스 리더들을 통해 홍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up>193</sup>

넷째, 부부관계 증진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부부가 함께 하는 GIFT와 UNITY를 매년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에서 실시하는 Prepare-Enrich 검사를 통해 학대적 관계와 가정폭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 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가정 사역원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과 재정적인 후원(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을 하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Let's Talk 컨퍼런스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이성 관계를 발전시키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여덟째, 교회 내에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긴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 교육 및 평신도 가정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을 해오고 있다.

교회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이다. 피해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권고와 성서적 관점, 그리고 교회의 지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들을 연결시켜 주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하고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sup>193</sup> 전명희, *가정폭력 예방 가이드북* (워싱턴 한인 봉사 센터, 2006), 96-97. 부록 6) 154-155. Worksheet for Safety Plan 참조.

## 제 5 장

### 열린문 교회의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본 장에서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와 “성경적 부모 교실”과 부부가 함께 하는 주말 여행 “GIFT,” 주말 데이트 “UNITY” 그리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를 소개한다. 결혼에 대한 배움 없이 부부가 되고,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어 갈등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이민 가정들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예측되는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적 교육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문제 예방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부부와 가족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다.

#### 제1절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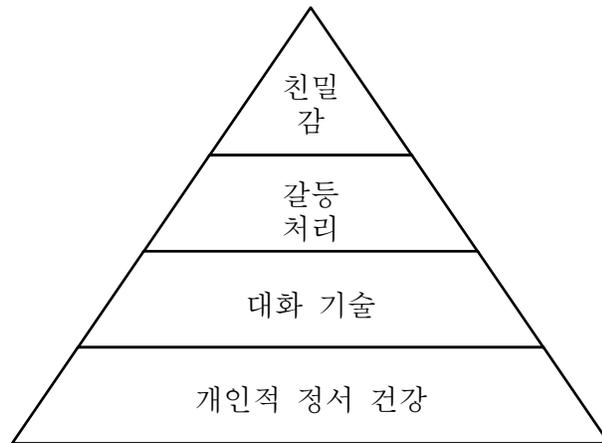
결혼 예비 학교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다. 결혼 생활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친밀감 형성 접근들은 예비 부부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며 훈련이다. 이에 열린문에서는 결혼식 주례를 담임 목사나 부목사에게 부탁할 시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에 참석하거나 결혼 예비 상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실시했던 결혼 예비 학교에서는 교역자들과 외부 전문 강사들의 주제별 강의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결혼 청사진, 건강한 자아상, 남녀의 차이, 부부의 대화, MBTI 성격 검사 그리고 가정 경제에 대해 다루었다. 지역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홍보를 했지만, 첫 해에는 등록 수준이 미비했다. 제 1회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에서는 6

커플이 수료했다. 이 후 광고의 효과보다는 수료자들의 직접적인 홍보와 교회의 결혼 준비 방침이 참가자들의 등록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면서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었다. 열린문에서 실시한 결혼 예비 상담은 프리센(Friesen)의 상담 이론을 기초로 했다. 다음의 <그림 2> 부부 피라미드는 결혼 상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피라미드의 맨 윗 수준은 부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반면에 아랫 부분은 개인의 건강과 관계가 있다. 부부 피라미드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부부 피라미드<sup>194</sup>



맨 아래 혹은 기초가 되는 층은 개인적인 정서 건강이다. 완벽한 정서적 반응이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정서적, 정신적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가 배우자들의 정서적 건강에 익숙해지면 부부의 대화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 기술이 비교적 충분히 개발되면 갈등 조절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 수 있다. 친밀감은 피라미드의 맨 윗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좋은 결혼의 특징이 된다.<sup>195</sup>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집단 상담을 했다. 이민 가정의 특성상 커플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이

<sup>194</sup> Friesen, *결혼상담*, 86.

<sup>195</sup> *Ibid.*, 85-87.

있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편한 약혼자를 위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결혼 예비 학교에 참가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Prepare-Enrich 커플 워크북을 교재로 선정하게 되었다.<sup>196</sup>

Prepare-Enrich는 1977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올슨(David H. Olson) 박사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보다 건실한 결혼 관계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결혼 만족을 다차원적이라고 보았으며 의사 소통, 갈등 해결, 재정 관리, 가족 친구, 성 관계, 자녀 양육 등등 11개의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커플 관계 검사를 받은 5만 쌍의 커플들 10만 명의 결혼 생활을 분석한 결과이다.<sup>197</sup> 이 프로그램은 또한 미혼이나 기혼 커플들을 위해 70,000명 이상의 상담자나 목회자들이 사용했다. 전국적으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커플들의 강점을 개발해주고 그들의 지속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연구결과, 결혼 예비 교육은 이혼율을 30 퍼센트 정도 낮춰 주고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8</sup>

### 1.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심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5-20 가지 관계 영역에 대하여 질문한다. 검사를 혼자서는 실시할 수 없어 둘 중 한 사람이 참여를 거부하면, 검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커플이 함께 검사를 실시할 때 얻어지는 긍정적인 의견 일치 점수(PCA)는 커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점 때문에 Prepare-Enrich 검사와 예비 상담은 커플이 함께 하도록 권장한다.<sup>199</sup>

결혼 예비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매주 1회 1시간 반씩 여덟 번이

<sup>196</sup> <https://www.prepare-enrich.com> 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커플 워크북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facilitator 과정을 이수한 공식 상담사에게만 로그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ID)가 주어진다.

<sup>197</sup> David H. Olson and Peter J. Larson, *커플 체크업*, 김덕일, 나일수 역 (서울: 학지사, 2011), 10.

<sup>198</sup> Ibid., 23.

<sup>199</sup> <http://www.prepare-enrich.com> 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온라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커플이 검사에 사용할 언어를 정해야 한다.

나 2시간씩 여섯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sup>200</sup> 첫째 주는 환영 및 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배우자를 배우자’ 라는 주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둘째 주에는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배운다.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잠재적인 문제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게 한다. Prepare-Enrich 온라인 검사를 마치지 못한 커플이 있을 경우,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결혼 예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커플 중 한 사람만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 목사와 스케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운영되는 결혼 예비 학교는 강의뿐만 아니라 일련의 집단 상담을 병행해서 했다. 이것은 목사의 상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비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 까닭은 집단 상담에서 보다 다양한 연습과 토의,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1</sup> 다음은 6주 집단 상담 가운데 첫 번째 만남에서 다룬 주제와 진행안이다. 두 번째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의 내용은 부록에 정리해 놓았다.<sup>202</sup>

#### 1 회 만남: 배우자를 배우자

가. 목표: 성경적 결혼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한다.

#### 나. 도입

먼저 15분에서 20분 정도 환영 및 소개의 시간을 가진다. 그런 후에 흰 도화지 위에 색연필로 어릴 적에 꿈꿨던 ‘Dream House’ 를 그리게 한다. 그림을 다 그린 후 먼저 커플들이 서로의 그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sup>203</sup>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 그림을 보고 느꼈

<sup>200</sup> 집단 상담이 아닌 커플 상담으로 할 경우, 예비 부부의 스케줄에 따라 두 시간씩 4주로 할 수 있다.

<sup>201</sup> Everett L. Worthington, *결혼 예비 상담*, 김창대 역 (서울: 두란노, 2007), 172. Friksen, *결혼상담*, 278. 결혼 예비 상담에서 집단을 활용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약혼한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질문과 관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sup>202</sup> 부록 7) 156-182.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강의안 참조.

<sup>203</sup> 도시가 아닌 전원 주택에 살고 싶었다, 8 학군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었다, 어릴 적 강아

던 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서로의 'Dream House'에 대해서 처음 듣고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다. 강의와 토론(실습)

나눔을 마친 후, 그림을 그리게 한 이유를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배우자(配偶者)를 한자로 보면, '짝을 지은 사람' 이라는 뜻으로, 나와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를 말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글에서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는 뜻의 '배우다' 와 발음이 같다.<sup>204</sup>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배우자를 배워야 한다. 데이트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지만,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리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보통 우리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지만,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혼 예비 상담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위한 기초 공사라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의 6번의 만남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먼저 마음의 혼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 (1) 결혼의 의미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창세기 2장 18-23 절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장에 7회에 걸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다(18 절).<sup>205</sup> 이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곧 하와를 지으사 아담에게 '돕는 배필' 을 주셨다(20 절). 여

---

지를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면 두세 마리 키울 것이다, 아이들은 몇 명을 낳고 싶다 등등 다양하면서도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sup>204</sup> 송길원, 김향숙, "차이:5-3=2," *연리지 사랑 세미나 강의집* (서울: 해피홈, 2007), 13.

<sup>205</sup> 강병도, *창세기*, 카리스 종합 주석(구약) 제 1 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3), 362. '혼자 사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도' 는 '고독하다' 라는 뜻을 지닌 '바다드' 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서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대면하여’이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지으신 것이다.<sup>206</sup> 결혼의 이유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결혼의 본질은 동반자 관계(companionship)이다.<sup>207</sup> 결혼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인 서로 간의 삶의 연합을 위한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돕는 배필’이란 ‘적합한 조력자’(NIV, a suitable helper)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남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한 단계 낮은 보조자 개념으로 가르쳐 온 ‘돕는 자’(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에는 열등성이나 종속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약의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다.<sup>208</sup>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칭한다. 출애굽기 18장 4절, 신명기 33장 7절, 시편 20편 3절 등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의 백성의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언적 구절들에서 군사적 원조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sup>209</sup> 빌지키안(Bilezikian)도 ‘돕는 자’가 ‘구원자’의 고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지적했다.<sup>210</sup>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종속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다.<sup>211</sup>

‘배필’이라는 단어 역시 남녀의 동등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게드’는 ‘상대자’, ‘파트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전도서 4장 9-10절에서는 ‘동무’로 번역되었다. 동무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관계는 동등성에 기초를 둔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다.<sup>212</sup> 켈러

<sup>206</sup> Gary Chapman,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 가지 포인트*,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6.

<sup>207</sup> Jay E. Adams,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송용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0), 33.

<sup>208</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83.

<sup>209</sup> 강병도, *창세기*, 315. 이사야 30:5; 에스겔 12:14; 호세아 13:9.

<sup>210</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84.

<sup>211</sup> Ibid. Tribble 에 의하면, 성경에서 15 번이나 사람을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예외적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만 남자와 여자의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sup>212</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184-185.

(Keller)는 결혼의 우선 순위를 우정에 두었다. 그는 우정이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 차츰 깊어가는 ‘하나됨’이라고 가리킨다.<sup>213</sup>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부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하여 협력하는 동반자이자 가장 친밀한 동무가 되어 한다. 결혼은 한마디로 동반자 관계의 언약(the covenant of companionship)이라고 할 수 있다.<sup>214</sup>

## (2) 결혼의 원리

창세기 2장 24-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혼 선언문에 담긴 4가지 원리에 대해 소개한 뒤 나눴을 시간을 가진다. 첫 번째 원리를 소개하기 전에, 예비 부부에게 미리 준비해 둔 하트 모양의 종이 두 장을 나누어 준다. 각자의 이름을 하트에 적게 한 뒤 폴로 접착하게 한다.

### (가) 떠남의 원리(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은 혈연의 단절이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저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부모 의존적인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던 자녀의 관계에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관계 전환을 의미한다.<sup>215</sup> 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sup>216</sup> 1990년 이후에 등장한 ‘떠남의 가정 신학’은 온전한 떠남에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떠난다는 것은 탯줄을 끊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중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탯줄을 끊어야 독립적인 생명이 되는 것처럼 결혼을 할 때 부모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하기 하기 위해 정신적인 탯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떠나

<sup>213</sup> Keller,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155.

<sup>214</sup> Douglas Wilson, *결혼 개혁*, 김준범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4), 26.

<sup>215</sup> 이희범, *가정 사역 부부학교 초급과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60.

<sup>216</sup> 이기복, *예비부부와 기혼부부를 위한 결혼코칭* (서울: 두란노, 2011), 50. 경계선(boundaries)이론에 따르면, 관계에는 우선순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족 간에도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부부이다.

지 않았을 때 갈등이 시작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떠남의 신학은 Life Cycle 을 중요하게 여긴다.

<표 5> 떠남의 신학으로 보는 Life Cycle<sup>217</sup>

임태	출생	결혼	중년	사망
남자의 몸을 떠남	엄마의 뱃속을 떠남	부모를 떠남	자녀를 떠나보냄	모든 것을 떠남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진정한 떠남은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적,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떠난다고 해서 꼭 거리가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해준 부모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기에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예비 부부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sup>218</sup> 첫째, 삶의 1 순위가 부모로부터 배우자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나는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셋째,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정중하게 ‘노’ 라고 말할 수 있는가?

#### (나) 연합의 원리(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합한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디바크’ (cleave, stick)는 ‘풀로 붙이다’ , ‘고착시키다’ , ‘계속 그대로 지속되다’ 라는 뜻이다.<sup>219</sup> 룯과 나오미가 둘 다 과부가 된 후에 룯이 나오미에게 헌신을 다짐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절대적 헌신, 절대적 충성, 타

<sup>217</sup>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5), 173.

<sup>218</sup> 이기복, *예비부부와 기혼부부를 위한 결혼코칭*, 49. 이기복은 부모로부터 떠남이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자기 자신에만 적용하라고 주의한다. 상대방에게 은근히 적용하거나 지적하려는 태도는 금물이다.

<sup>219</sup> 이희범, *가정 사역 부부학교 초급과정*, 60.

협 없는 애정과 사랑을 나타낸다. 이것은 넝쿨처럼 달라붙는 의존이 아니라 헌신이다.<sup>220</sup>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혼이다.

마가복음 10 장 6-9 절을 함께 읽은 뒤<sup>221</sup>, 풀로 접착해 놓았던 하트를 분리하게 한다. 예비 부부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하트를 본 느낌을 나누도록 한다. 이처럼 부부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별거를 할 때 감정적, 영적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참가자들 가운데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집단 상담을 병행한 커플 상담을 통해 초혼 시절의 갈등에 대해 다룰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장차 갈등의 소지가 있는 영역들에 대해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콜린스(Collins)의 재혼하려는 커플들을 상담할 때 되새겨 볼 이슈와 질문들은 부록 8)를 참고한다.<sup>222</sup>

#### (다) 하나됨의 원리(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됨은 연합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본래 네 가지 원리는 각각 이전 것 위에 세워진다. 배우자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으려면 먼저 부모를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 ‘연합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육체가 된다. 성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영적,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가 된다.<sup>223</sup> 히브리어 ‘에하드’는 ‘하나됨 안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도 연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sup>224</sup> 스윈돌(Swindoll)은 출애굽기 26 장 6 절의 예를 들어 ‘하나됨’의 정의를 내렸다.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

<sup>220</sup> Swindoll, *행복한 가정의 탄생*, 53.

<sup>221</sup>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sup>222</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688. 부록 8) 183. 재혼하려는 커플들이 되새겨 볼 이슈와 질문들 참조.

<sup>223</sup> 강병도, *창세기*, 321.

<sup>224</sup>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for the Old Testament, vol. 1* (Chicago: Moody, 1980), 30.

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 직역하면 ‘성막이 하나가 된다’ 이다. 그러므로 ‘한 몸 (one flesh)’ 이라는 말에 쓴 ‘에하드’ 는 복합적인 연합이다. 결혼이란 두 인격이 녹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sup>225</sup>

예비 부부들에게 각자 ‘내가 꿈꾸는 미래 가정’ 의 목표와 모습을 적어 보게 한 뒤, 서로에게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함께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 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만일 두 사람이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도 다르고, 비전도 상이하다면 결혼 후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이 모든 가치관과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결혼 전에 서로 인생의 꿈과 비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원리인 부부의 친밀성(두 사람이 별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만남의 시간에 나누기로 한다. 이 주제에 관한 참고도서로 예비 부부들에게 크랩(Crabb)의 *결혼 건축가*<sup>226</sup> 와 채프먼(Chapman)의 *언약 결혼*을 추천한다.<sup>227</sup>

#### 라. 숙제와 마무리

개리 채프먼의 ‘5 가지 사랑의 언어’ 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뒤, 감사지를 나누어 준다.<sup>228</sup> Prepare-Enrich 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세 번째 만남 전까지 온라인으로 감사를 받도록 한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를 써 오도록 한다. 결혼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한 릿 함스 콜킨의 시를 함께 읽은 뒤 기도로 마친다.

결혼은 당신이 나의 몸을 이루고 내가 당신의 몸을 이루는 것.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결혼은 불완전한 존재인 부부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세워 나가며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우리

<sup>225</sup> Swindoll, *행복한 가정의 탄생*, 55.

<sup>226</sup> Lawrence J. Crabb, *결혼 건축가*,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2).

<sup>227</sup> Gary Chapman, *언약 결혼*, 김유태 역 (서울: 황금부엉이, 2004).

<sup>228</sup> Chapman, *5 가지 사랑의 언어*, 장동숙,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231-247.

에게 소중한 것은 결혼과 사랑이어라.<sup>229</sup>

## 2.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과 개선안

### 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

Prepare-enrich 검사가 예비 부부들에게 유용한 점은 온라인 검사받기가 편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통해 서로의 관계강점 영역과 잠재적 성장필요 영역에 대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로 사용되는 그룹 확인(Couple Checkup)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의와 실습과제가 제공된다.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 기술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눔으로써 보다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에 참여한 커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총 12 커플이 응답해주었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설문 1. “결혼 예비 상담과 Prepare-Enrich 검사를 통해 배우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표 6>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1

주제	설문지 응답 내용과 본 연구자의 의견
의사소통	많이 도움이 됨(18명), 정말 많이 도움이 됨(4명), 보통(2명)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예비 부부들이 서로에게 자주 해주기를 바라는 ‘소원의 목록’을 나눔으로써,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갈등문제	많이 도움이 됨(16명), 보통(5명), 정말 많이 도움이 됨(3명) -예비 부부들과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황극을 만들어 해 보면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역할을 바꾸어 상황극을 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sup>229</sup> Fred Lowery,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149-150.

친밀성 & 유연성	보통(10명), 정말 많이 도움이 됨(8명), 많이 도움이 됨(6명) -Prepare-Enrich 커플 보고서에 보면, 커플지도와 원가정의 가족지도가 나온다. 이 지도는 서로의 원가정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비 배우자가 성장하면서 보거나 경험한 것이 현재의 기대치를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한다. 과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비 부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둘 사이에 감추어야 할 그 어떤 상처나 비밀이나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경험이 된다.
성격 (Scope)	정말 많이 도움이 됨(14명), 많이 도움이 됨(5명), 보통(5명) -예비 부부들이 서로의 성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다르다”는 것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서로의 독특한 능력과 관점을 부부의 관계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문 2. “결혼 예비 상담에 참여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표 7>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2

순위	설문지 응답 내용과 본 연구자의 의견
1	결혼 예비 상담을 받았던 커플들의 권유로(8명) -2008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2년 동안은 홍보 매체로 신문 광고와 예배 동영상 광고 그리고 포스터를 사용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입소문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자 최상의 광고가 되었다.
2	결혼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상대방과 나를 앎으로써 좋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5명)
3	결혼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의 추천(4명) -열린문에서는 2009년부터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주례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결혼 예비 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4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해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2명) -처음 두 번의 만남은 프로그램의 기초 공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Prepare-Enrich에서는 다루지 않는 성경적 결혼의 원리와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배우게 된다.
5	결혼 준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2명)
6	먼저 결혼하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1명) 약혼자가 결혼 예비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1명) 재혼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서(1명) -재혼하는 커플들의 경우 과거의 삶의 상처 원인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현

재의 삶의 분석과 개선을 위해 결혼 예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설문 3. “결혼 예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sup>230</sup>

<표 8>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3

순위	설문지 응답 내용과 본 연구자의 의견
1	<p>온라인 검사를 통해 내가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18명)</p> <p>-Prepare-Enrich 검사 결과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와 퍼센트가 주어진다.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가족 및 친구, 종교적 신앙, 역할 및 책임, 자녀 및 자녀양육 등 각 영역별 개인과 커플의 만족 수준을 보여주고, 만족하는 문항들과 불만족 문항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 검사 결과 뿐만 아니라 커플 상호간의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2	<p>주제 강의에 이어 실습과 토론의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집단 상담을 통해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12명)</p> <p>-토론과 실습 시간에 다른 예비 부부들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들으면서 “내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반응이다.</p>
3	<p>성경 말씀에 나오는 결혼의 원리와 부부의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9명)</p> <p>-참가자들 가운데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성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예비 신부들도 있었다. 유교적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예비 신부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동료이자, 가족을 이루고 땅을 돌보는 일에서도 파트너로 지음을 받았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p>
4	<p>결혼 후 멘토가 되어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8명)</p> <p>-태교 교실과 부모 교실 뿐만 아니라 파테르와 에제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p>
5	<p>주말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4명)</p>

<sup>230</sup> 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 가지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4. “다른 결혼 예비 부부에게 결혼 예비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시겠습니까?”

설문 응답자 24 명 전원이 다른 결혼 예비 부부에게 결혼 예비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 3>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반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온라인 검사를 통해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수와 그래프로 분석해줘서 새로웠다,” “다른 커플들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배우는 부분이 좋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먼저 결혼하신 목사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멘토로 계속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좋았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듯 결혼 예비 상담은 커플들로 하여금 관계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 접근을 한다. 동시에 성장 배경과 타고난 성격 특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는 등 과거와 현재를 살펴 커플의 관계에 입체적인 접근을 하게 한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예비 신랑들이 많았다. 결혼생활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로의 차이점과 의견 불일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 나. 프로그램 개선안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는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있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는 결혼식 날짜가 임박하여 6 번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예비 부부들도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교회 모델들을 살펴 보았는데, 휴스턴에 소재한 Second Baptist Church 의 결혼 예비 학교 ‘Marriage Prep Workshop’ 처럼 연초에 실행하게 되면 4 개월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1 월, 5 월, 9 월에 열리는 결혼 예비 학교는 금요일 저녁 6 시 30 분에서 10 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까지 진행되었다.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또한 참가자들이 집단 상담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을 선호하였는데, 6 주 동안 진행되었던 기존의 6 번의 만남을

Second Baptist Church의 결혼 예비 학교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간에 걸쳐 3주로 시도해 봄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Marriage Prep Workshop’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세미나 강사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강의 주제는 ‘Expectations,’ ‘Soul Satisfaction,’ ‘Love Languages,’ ‘Personality Potential,’ ‘Money Marriage,’ ‘Chemistry,’ ‘Conflict Management,’ ‘Boundaries,’ ‘Covenant Vows’로 각각 35-40분의 강의와 10-15분의 ‘테이블 나눔’을 하는데 할애 되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의안이 주어졌고, 부록에는 ‘How to become a Christian,’ ‘각 주제 강의에 필요한 검사지,’ 그리고 ‘추천도서 목록’을 실었는데,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강의안에도 추가하려고 한다.

강의에 앞서 사회자의 강사 소개가 있었으며, 강사에 따라 강의 주제에 관련된 비디오 시청을 한 후나 도입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간단한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시작되었다. 강의 시간 도중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질문은 ‘공개 토론’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한 강의자와 참석자들 모두가 시간을 엄수하여, 휴식 시간을 포함한 각 모임이 정시에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다. 수료식을 마친 커플들에게는 게리 토마스(Gary Thomas)의 ‘A Lifelong Love’<sup>231</sup>와 수료증을 주었다. 텍사스 주는 결혼 전에 상담이나 결혼 예비 교육을 받은 커플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료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sup>232</sup> 이는 결혼 예비 학교의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들이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에서도 전문 상담자를 강사를 세워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들을 세울 수 없을 경우, Prepare-Enrich에서 제공하는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다.<sup>233</sup> 한 명의 강사로 여섯 번의 만남을 진행하는 것보다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참가하는 커플들에게 프로그램이 전문적

<sup>231</sup> Gary Thomas, *A Lifelong Lov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4).

<sup>232</sup> Online: <http://www.cityapplications.com/marriage-licenses/TX-Texas/mrg-Texas.html>. Couples who complete the class are given a discount of \$60 on their marriage license fee and the 72 hour waiting period is waived for them.

<sup>233</sup> Olson, *커플 워크북*, 5-7.

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후에 이것이 좋은 홍보 역할을 한다. 둘째, 커플들이 결혼 후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자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결혼 예비 학교를 수료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는다. 그것은 만일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혼에 앞서 반드시 주례 목사나 상담 목사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이다. 이와 같은 목회자가 보여주는 관심과 진심어린 권고가 예비 부부들로 하여금 교회가 돌봄과 치유의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 제2 절 성경적 부모 교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루터(Luther)가 말한 바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sup>234</sup>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부모가 갖는 특권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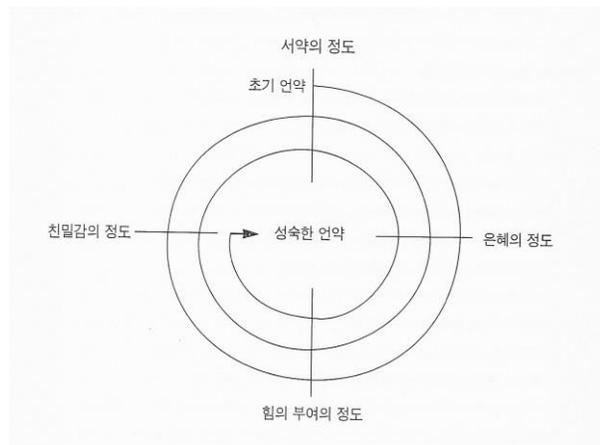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실시했던 부모 교실에서는 ‘성경적 부모 교실’을 교재로 선택하였다. 여섯 가지 주제(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거짓 사랑과 참사랑, 훈계, 자녀발달 이해, 대화, 떠나 보내기)를 12번의 만남 가운데 차례차례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녀발달 이해 부분은 유아기와 걸음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녀의 나이에 맞는 부분만 고르면 8번의 만남으로 줄일 수도 있다. 각 만남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나오고, ‘나눔과 토론’ 부분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소그룹 진행용으로 알맞은 교재이다.

2010년부터는 발스윅(Balswick) 부부의 가족 관계의 신학적 기초인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을 주제로 한 8주간의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의 초기 언약(일방적 무조건적 서약)에서 시작된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갓난아기가

<sup>234</sup>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2), 426.

이러한 서약에 반응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점점 성숙함에 따라 이 초기 언약은 상호 언약(쌍무적 무조건적 서약)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이처럼 부모 자녀 관계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서약의 역할 때문이다. 언약적 서약은 부모가 자녀에게 힘을 부여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단계의 친밀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용서의 환경을 조성한다. 발스윅(Balwick) 부부는 여기에서의 친밀감은 어떤 당혹감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하나의 성숙한 지식과 돌봄이라고 정의한다.<sup>235</sup> 다음의 <그림 3>은 자녀 양육의 성경적 모델을 잘 보여 준다. 중앙으로 향하는 나선형의 그림은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선형을 사용한 것은 점점 더 깊은 상호 서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으로 성장하는 가족 관계의 잠재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sup>236</sup>

<그림 3> 가족 관계의 신학적 기초<sup>237</sup>



가족 관계의 성장에는 부모와 자녀 양쪽의 참여가 필요하다. 만약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고의적으로 언약적 사랑, 은혜, 힘의 부여, 친밀감을 서로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의 성장이 방해받거나 정체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는 이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성장을 멈추게 된다. 가족 관계란 역동적이고 항변적이다. 그렇기 때

<sup>235</sup> Balwick, *크리스천 가정*, 133-134.

<sup>236</sup> *Ibid.*, 18-19.

<sup>237</sup> *Ibid.*, 19.

문에 나선형을 이루어 차례로 더 깊어지는 서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정체된다. 결국에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에,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힘의 부여가 아니라 권력 소유욕에,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에 고착되고 말 것이다.<sup>238</sup>

### 1.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법

성경적 부모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매주 1회 1시간 반씩 여덟 번이나 2시간씩 여섯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주는 환영 및 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라는 주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은혜’와 성숙에 이르게 하는 ‘힘의 부여’에 대해 배운다. 여섯째 주부터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공감과 경청 그리고 감정코칭 훈련을 받게 된다. 자녀의 마음이 격할 때는 경청해 주고, 부모의 감정이 격할 때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힌 뒤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법도 배운다. 2012년부터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아과 전문의와 전문 상담자를 초빙하여 발달 심리학, 미디어 중독, 자녀들의 정신 건강 등의 특별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다음은 2012년 봄 학기에 실시한 가족관계 성장의 네 가지 요소에 기초를 둔 ‘성경적 부모 교실’에서 다룬 주제와 강의안을 요약한 것이다.<sup>239</sup> 여섯번째 만남부터 마지막 만남까지의 내용은 부록에 정리해 놓았다.<sup>240</sup>

#### <표 9> 성경적 부모 교실 주제와 강의안

가족관계 성장의 요소	강의 주제
-------------	-------

<sup>238</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8-19.

<sup>239</sup> Ibid., 26-37. Balswick 부부는 가족 관계 성장의 네 가지 요소를 서로 분리시킨 것이 단지 분석적인 목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가정 생활 속에서 언약, 은혜, 힘의 부여 그리고 친밀감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예가 빈번하다. 특별히 언약과 은혜의 구분은 어렵다. 본질상 언약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은혜 가운데 주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네 요소들을 각각의 분리된 영역에서 깊이 고찰해 보면, 가족 관계들 속에서 이 네 요소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sup>240</sup> 부록 9) 184-193. 성경적 부모 교실 강의안 참조.

언약: 사랑하고 사랑받기 To Love and Be Loved	1 회 만남.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sup>241</sup>
은혜: 용서하고 용서받기 To Forgive and Be Forgiven	2 회 만남. 잘못된 사랑과 참사랑 <sup>242</sup>
힘의 부여: 섬기고 섬김받기 To Serve and Be Served	3 회 만남. 부모의 양육 스타일 <sup>243</sup> 4 회 만남. 훈계 <sup>244</sup> 5 회 만남. 자녀의 발달(특별 세미나) -사춘기 이전(3-10 세)과 직전기(10-12 세) <sup>245</sup> -사춘기 초기(13-14 세)와 중기(15-17 세) <sup>246</sup>
친밀감: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To Know and Be Known	6 회 만남. 감성코칭 검사와 DVD 시청 <sup>247</sup> 7 회 만남. 감성코칭의 핵심 5 단계 <sup>248</sup> 8 회 만남. 똑똑하게 화내는 부모와 자녀 <sup>249</sup>

### 1 회 만남: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 가. 강의

##### (1) 성경적 인간관

모든 교육 이론과 방법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에 대한 견해에서 그 출발 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앞서 인간이 어떤 속성과 경향성을 지니고 태어났는지를

<sup>241</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12-21.

<sup>242</sup> Ibid. 26-47.

<sup>243</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27-132.

<sup>244</sup> Betty N.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 1992).

<sup>245</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94-115.

<sup>246</sup> 김인환,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멘토링* (서울: 두란노, 2011), 83-150.

<sup>247</sup> John Gottman,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7), 49-90. Gottman 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녀를 향한 효과적인 사랑 전달법을 제시한다.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 CD 에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감성코치 5 단계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sup>248</sup> Ibid., 91-148.

<sup>249</sup> 오은영, *엄마표 마음 처방전* (서울: 중앙북스, 2008), 269-312.

이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관이다.<sup>250</sup>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말한다(창세기 1:27-28).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한다. 진리와 거룩, 영원과 영생, 사랑과 헌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죄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 버리고 불행과 저주를 자초했다. 그 결과 인간은 온전한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인간이 지닌 죄성을 직시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교육 이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성선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의 죄성을 인식하는 부모는 훈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부모이다.

셋째,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있다. 자녀 속에 내재하는 죄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공격, 즉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엡 6:12).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의 세계,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의 영혼에 먼저 심어 주어야 한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자녀의 영혼을 선점하기 전에, 영원한 가치관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면 어떤 악과 유혹이 자녀를 공격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 (2) 성경적 자녀 양육 모델

발스윅(Balswick) 부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모로 묘사되고 있다는 데에서 성경적 자녀 양육 모델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카티어(Charrier)도 성경적 증거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을 일곱 가지 방법으로 보여 주신다고 설명한다.

<sup>250</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13-15.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보신다. 이것은 단연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수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눅 15:11-32, 벰전 5:7).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들에 응답하신다. 이것은 홍수 후에 세워진 언약에서(창 9:8-17),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에서, 그리고 값없는 자비와 회복을 베푸심에서(요 3:16; 딤후 3:3-7) 찾아볼 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선물을 주신다. 다시 말해 독생자 아들과 위로자 성령을 주신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사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 받았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요 1:14, 빌 2:5-8, 히 2:17-18, 4:15). 이것은 우리의 실존의 핵심을 관통하는 지식이다(시 44:21, 요 2:25).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마 26:28, 요 3:16-17, 엡 1:7).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잠 3:11-12, 히 12:5-8, 계 3:19). 그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신실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시도였다.<sup>251</sup>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서 기대나 요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위한 징계가 포함된다. 이처럼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자녀 양육 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자녀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부모의 사랑(지지)과 징계(통제)가 한데 엮어지는 모델이다.

#### 나. 토론(실습)과 마무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과 ‘성경적 자녀 양육’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눔을 가진 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 예배지 ‘작은 행복’ 를 소개한다.<sup>252</sup> 호스텔러(Hosteler)의 기도 달력을 나누어 준다. 달력에는 구원, 은혜, 사랑, 정직, 인내 등을 주제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sup>253</sup> 마무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sup>251</sup> Myron Chartier, “Parenting: A theological mod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6 (1978): 54-61.

<sup>252</sup>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예배, 축복의 통로” 부록 10) 194 을 참조한다.

<sup>253</sup> Bob Hosteler, “31 days to Pray for Your Children,” n.p.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fincusa.org/wp->

부모가 되길 위한 기도로 마친다.

## 2 회 만남: 잘못된 사랑과 참사랑

### 가. 강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애착’ 또는 ‘집착’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또한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강요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는 사랑에 대한 혼돈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방해한다. 이기복은 잘못된 사랑의 6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254</sup>

첫째, 과잉보호 사랑이다. 자녀는 때로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해야 하는데, 과잉보호는 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강하게 키워야 한다.

둘째, 무절제한 사랑이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마련이다. 흔히 부모들은 아직 필요를 요청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미리 알아서 물건들을 장만해 주곤 한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무절제한 자녀가 된다.

셋째, 권위 없는 사랑이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성경적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대신하여 자녀를 인도해야 한다.

넷째, 편애다.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뿐 아니라 편애받는 자녀에게도 해롭다. 편애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과 분노라는 상처를 받는다.

다섯째, 완벽주의 사랑이다. 완벽주의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해,”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어” 하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여섯째, 조건부 사랑(conditional love)이다. 사랑을 베풀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

---

content/blogs.dir/45/files/2011/09/31-Days-Calendar-Color.pdf.

<sup>254</sup>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27-32.

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일을 해야만 사랑하겠다는 행위 위주의 사랑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unconditional love)이다.

발스윅(Balswick) 부부는 가족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은 가정이 율법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라는 환경 속에서 지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언약에 기초한 가정 생활은 은혜와 용서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계약에 기초한 가정 생활은 율법에 이르게 되고, 서로에게 완전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가족 관계의 통제를 위해 엄격한 규칙과 제재들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완벽에 대한 압박감으로 불가피한 실패의 죄의식을 가중시키게 된다.<sup>255</sup> 이기복은 이런 완벽주의를 작은 실수도 헤서 안 되는 강박증과 같다고 본다.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쉽고 안식이 없다. 완벽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완벽주의가 치유될 수 있다.<sup>256</sup> 이런 조건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운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 나. 토론(실습) 과 마무리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의 표현이나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나의 양육 스타일 중에서 자녀를 망치는 사랑과 성장시키는 사랑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본다. 다이애나 루먼스(Diane Loomans)의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If I Had My Child to Raise Over Again)” 을 함께 읽고 난 후, 남은 6주 동안 함께 기도할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눈다.<sup>257</sup>

#### 3 회 만남: 부모의 양육 스타일

<sup>255</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26-27.

<sup>256</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31.

<sup>257</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서울: 두란노, 2008), 12-13.

### 가. 강의

자녀 양육에는 통제 능력과 지원 능력 두 가지에 근거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통제(control)는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는 부모의 능력이고, 지원(support)은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독재형, 권위형, 허용형, 방임형이 있다.<sup>258</sup>

#### <표 10> 자녀 양육 유형<sup>259</sup>

		높은 지원			
약한 통제	허용형(Permissive)	권위형(Authoritative)	강한 통제		
	방임형(Neglectful)	독재형(Authoritarian)			
		낮은 지원			

#### (1) 독재형

이러한 유형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분적인 유대감이 생겨난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대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온정이나 개방 의식 또는 친밀감이 없다. 다양한 독재적 유형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가 그에게 복종할 것을 기대하고, 반면에 어머니는 사회 감성적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에도 높은 감정적 지원(지지)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지지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권위적 인물로 여겨지지 않는 쪽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발스윅(Balwsick) 부부는 이러한 유형이 동양의 문화 속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심과 부모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는 그들의 자녀와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sup>258</sup> Bruce and Nellie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0), 131-132.

<sup>259</sup> Ibid., 131.

애쓴다.<sup>260</sup> 이런 유형은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 적개심, 분노, 반항심을 쌓는다.<sup>261</sup>

### (2) 허용형

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독재형과 반대이다. 통제력은 없이 지원만 해주려고 한다. 아이는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가 원하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낀다.<sup>262</sup> 이러한 자녀 양육 유형은 자녀가 가치관과 대인 관계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적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책임감이 결여되기 쉽다. 이들은 또한 상호 의존도 발전시키지 못한다.<sup>263</sup>

### (3) 방임형

독재형과 정반대다. 통제와 지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부모는 “제발 가서 혼자 해, 그게 네 문제야, 난...에 가야 해, 좀 더 조심스럽게 할 수 없니” 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은 허용형과 유사하다.<sup>264</sup>

### (4) 권위형

가장 권장하는 자녀 양육 방식으로, 가장 성경적이며 성공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유형의 특징은 사랑과 자비와 공정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는 방법이다. 통제와 지원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sup>265</sup> 권위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합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려 한다. 즉 말을 주고 받는 행위를 통해 자녀를 고무시키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요구의 이유들을 설명해 준다. 그런 다음 자녀를 훈련시키지만 필요한 때는 힘도 사용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가 독립적이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기(self-directing) 기

<sup>260</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29-130.

<sup>261</sup>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132.

<sup>262</sup> Ibid.

<sup>263</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31.

<sup>264</sup>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132.

<sup>265</sup> Ibid.

대한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부모는 스스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녀들의 욕구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sup>266</sup>

발스윅(Balswick) 부부는 힘의 부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모델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현대 사회 과학적 자료들에 따르면, 힘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녀 양육이란 부모가 이러한 자신의 지위와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힘의 부여는 자녀의 신념을 확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자녀에게 힘을 부여하는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고, 본을 보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부모의 힘의 부여는 자녀로 하여금 그에게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 및 창조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자녀에게 의도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힘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힘의 부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는 하나님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들은 자신을 뛰어 넘어 타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sup>267</sup>

#### 나. 토론(실습)과 마무리

케빈 리먼(Kevin Leman)의 *자녀 교육, 심리학에게 길을 묻다*에 소개된 세 가지 부류의 부모 사례를 읽고 괄호 안에 답을 적게 한다.<sup>268</sup>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한 나눴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나의 부모는 어떤 유형이었는가? 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부모의 양육 방식과는 정반대인가?

##### (1) “버포드, 아직도 잠자지 않는 거니?”

당신 아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sup>266</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31.

<sup>267</sup> Ibid., 134-137.

<sup>268</sup> Kevin Leman, *자녀교육, 심리학에게 길을 묻다*, 이진희 역 (고양시: 느낌이 있는 책, 2010), 83-85.

일인데도 대신 해줄 것인가? 당신은 항상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가? 아이에게 “안 돼”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가? 항상 아이를 구슬려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당신이 요청하는 일을 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가? 이런 부모는 ‘방임형’ 부모다. 이들은 아이의 노예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최우선에 둔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함으로써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앗아간다. 가능한 한 아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숙제를 대신 해주는 식으로 돕는다.

(2) “지금 당장 잠자리에 가!”

당신이 항상 옳은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큰 소리로 고함치며 명령하고, 그리고 경고로 위협하는가? 아이에게 딱 잘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가? 이런 부모는 ‘독재형’ 부모다. 이들은 아이 대신 모든 결정을 내린다.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상과 벌을 사용한다. 자신이 아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을 강하게 돌보며, 아이에게는 눈곱만큼의 자유만 허용한다.

(3) “양치질을 다 하면 알려주렴. 그러면 내가 침대에 눕는지 내가 가보마”

당신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가? 아이들이 그 나이에 적절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아이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행동의 결과물들을 체험하게끔 하는가? 이런 부모는 ‘권위형’ 부모다. 이들은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침들을 명확히 말한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아이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한다. 현실에서 배우게 한다. 아이에 대한 존중, 자존감, 사랑을 전달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다.

4 회 만남: 훈계

가. 강의

(1) 훈계의 정의

히브리어로 ‘훈계’의 어원인 ‘뮈카’는 ‘책망’, ‘경고’ 또는 ‘지도’라고 하며, ‘근신’, ‘징벌’, ‘확인’, ‘정정’, ‘가르침’, ‘책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훈계는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담긴 것으로 부모가 적의와 불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징벌하는 것과는 다르다.<sup>269</sup> 체이스(Chase)는 훈계와 징벌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 11> 훈계와 징벌의 차이<sup>270</sup>

	훈계	징벌
목적	교정과 성숙을 위해 훈련시킴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함
관심의 초점	미래의 바른 행위	과거의 잘못
태도	부모 편에서의 사랑과 관심	부모 편에서의 적의와 좌절감
아이에게 미치는 결과	안정감	두려움과 죄의식

### (2) 훈계의 목적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브리서 12:6).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다. 훈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sup>271</sup> 첫째, 자녀를 잘못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잠언 19:18). 둘째,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다(잠언 29:15). 셋째, 자녀를 성장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잠언 22:15). 넷째, 자녀에게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잠언 22:6). 훈계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이다. 어렸을 때 받은 훈계는 자녀들에게 평생 영향력을 끼친다.

### (3) 훈계의 조건

<sup>269</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41.

<sup>270</sup>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37.

<sup>271</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44-45.

훈계가 반드시 좋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훈계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며 잘못된 길로 이끄는 촉매제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한다. 올바른 자녀 훈계법은 다음과 같다.<sup>272</sup> 첫째,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갈라디아서 6:1).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분노한 심정으로 격노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마음이 감정의 역류상태에 있다면 자녀 훈계는 나중에 미루는 것이 낫다. 둘째, 자녀를 실족케 해서 안 된다(마태복음 18:6-7).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실족케 하는 것이다. 셋째, 때에 알맞은 말로 훈계해야 한다(잠언 15:23).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4) 훈계의 단계

‘훈계(discipline)’ 라는 단어의 어원은 ‘제자(disciple)’로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이다. 체이스(Chase)는 훈계를 자제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이라고 정의하면서,<sup>273</sup> 다음의 3 단계로 설명한다.

<표 12> 훈계의 3 단계<sup>274</sup>

	정의	구체적 방법
1 단계 지도 (Instruction)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  본을 보이거나 가르치거나 명령함으로 아이를 준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 의한 본: 부모는 아이에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본을 보이며 산다.</li> <li>• 비형식적 지도: 부모는 매일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비형식적으로 지도하며 자신의 가치나 기준을 나눌 기회를 만든다.</li> <li>• 정규 가르침: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칠 시간을 따로 떼어 둔다.</li> </ul>
2 단계 훈련	아이로 하여금 습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과 함께 실행하면서 지도한다.</li> <li>• 한 번에 한 단계씩 좀더 복잡한 과제나</li> </ul>

<sup>272</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57-61.

<sup>273</sup>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35.

<sup>274</sup> *Ibid.*, 51-52.

(Training)	들이게 하고 지도 받은 영역에 숙달되도록 도움	개념들을 가르쳐간다. • 지식을 더하고 잘못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다. •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의 아이의 능력을 평가한다. • 훈련 단계에서 보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3 단계 교정 (Correction)	앞서 행해진 지도나 훈련을 잘 따르도록 행동을 취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적응시킴	• 직접적이고 단호한 의사소통 • 매(체벌) • 자연적 귀결 • 논리적 귀결 • 소멸(무시)

훈계는 1 단계에서 시작하고 2 단계에서 발전하여 가며 3 단계는 필요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가 배우고 삶의 가치를 계속 간직해가는 과정이다. 보통의 경우 훈계를 생각할 때 교정(잘못을 바로 잡는 행위)이나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매를 생각한다. 교정은 훈계의 한 부분이기도 하나 결코 전체는 아니다.<sup>275</sup> 교정의 방법 가운데 자연적 귀결과 논리적 귀결은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어 주며, 부모에게 충분한 통제력을 주는 훈육 방법이다. 아동기의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며, 자아가 강한 아이들과 겪는 힘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자아 존중을 세워 주는 훈육 방법이기도 하다.<sup>276</sup>

자연적 귀결은 자녀가 선택한 행동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날 아이가 코트를 입지 않고 얇은 셔츠만으로 학교에 가겠다고 우긴다.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경험하게 함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추운 겨울날 셔츠 차림으로 외출하지 않게 될 것이다.<sup>277</sup>

<sup>275</sup>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51.

<sup>276</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85-86.

<sup>277</sup>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75-77. Chase 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한 자연적 귀결을 배우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 귀결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개입하여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결과를 계획한다. 논리적 귀결을 사용할 때는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벽에 낙서를 했다. 논리적 귀결은 아이 스스로 벽에 쓴 낙서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다. 벽에 낙서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재미가 아닌 힘든 고통을 경험해 봄으로 부정적 귀결을 맛보게 한다. 이 방법은 부모와 아이의 힘의 갈등을 약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자아가 강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sup>278</sup>

#### 나. 토론(실습)과 마무리

‘훈계 십계명’을 설명한 뒤, 암송하는 시간을 가진다.<sup>279</sup> 훈계 십계명 가운데 잘 지키고 있는 것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훈계의 성공적 사례를 나눈다.

### 2.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과 개선안

#### 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

2014년 봄학기 실시한 성경적 부모 교실에 참여한 부모들 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8번의 만남 가운데 2번에 나누어 제출한 독서 보고서와 설문지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설문 1. “성경적 부모 교실을 통해 자신과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표 13> 성경적 부모 교실 설문지 응답 1

주제	설문지 응답 내용과 본 연구자의 의견
----	----------------------

치명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자연적 귀결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sup>278</sup> Chase,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77-84.

<sup>279</sup> 부록 11) 196-198. 훈계 십계명 참조. 이영숙의 ‘성서적 훈계의 십계명’과 이기복의 ‘자녀 훈계 18 계명’을 토대로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훈계 십계명’을 숫자와 연결하여 재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 스타일	<p>많이 도움이 됨(16명), 정말 많이 도움이 됨(4명), 보통(2명)</p> <p>-Balswick 부부가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적 자녀 양육은 성숙에 이르게 하는 힘의 부여이다. 네 가지 자녀 양육 유형-말하기, 가르치기, 참여하기 그리고 맡겨 두기-는 자녀의 성숙도를 반영하며 연속적으로 발전한다. 여기에는 부모가 성숙하는 자녀와 함께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자녀 양육 유형의 발전은 성숙한 힘의 부여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모는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 자녀 양육을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sup>280</sup></p>
훈계	<p>정말 많이 도움이 됨(18명), 많이 도움이 됨(4명)</p> <p>- 훈계 10계명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관성 있게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훈계 이전에 분명하고 적절한 가르침과 지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훈계의 목적이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조금씩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정해 주는 능력 부여(empowering)라는 것을 배운다.</p>
자녀의 발달	<p>많이 도움이 됨(10명), 정말 많이 도움이 됨(6명), 보통(6명)</p> <p>-참가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 방법과 훈련 목표와 과정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하였다.<sup>281</sup> 소아과 전문의의 특강 후 Q&amp;A를 통해 십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p>
감정코칭	<p>정말 많이 도움이 됨(14명), 많이 도움이 됨(8명)</p> <p>-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숨은 감정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가자 부모들도 공감했지만, 이민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고민을 나누는 부모들이 많았다.</p>

설문 2. “수업과 책을 읽고 얻게 된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sup>282</sup>

<sup>280</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141.

<sup>281</sup> Tedd Tripp,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207-323.

<sup>282</sup> 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 가지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lt;표 14&gt; 성경적 부모 교실 설문지 응답 2

순위	설문지 응답 내용과 본 연구자의 의견
1	<p>부모가 먼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 좋지 않는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성격이 바뀌길 원하면서, 정작 부모인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 하고 걱정만 했다. 부모가 먼저 달라진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면 아이의 태도와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다(15명).</p> <p>-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해진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8주간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p>
2	<p>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 봐야 한다(14명).</p> <p>-참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또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은혜의 렌즈로 자녀를 바라보고 은혜의 법으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 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p>
3	<p>감정코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의 감정을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충고의 말’ 에 앞서 ‘이해의 말’ 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녀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신뢰하고 자기존중감을 키울 수 있다(12명).</p> <p>-많은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더욱 심각한 점은 정작 부모 자신은 그런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가정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와 감정적인 학대도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sup>283</sup></p>
4	<p>자녀 양육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관성있는 행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부모는 아이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행동에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11명).</p>

<sup>283</sup> Cary R. Collins, *가정의 충격*, 안보현, 황의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399.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어린이나 어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Andrew Vachss 는 이렇게 썼다. “당신의 자아 개념이 갈갈이 찢기고, 학대적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다음 그 상처는 모두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당신은 바로 당신을 학대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정해 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의 변화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의 마음이나 감정 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치우친 훈육은 더이상 훈육이 아니다. 자녀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일관성 있는 양육법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신뢰와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 없는 훈계는 자녀에게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주는 반면, 훈계 없는 사랑은 자녀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해서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한다. 성경적 부모 교실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지니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한다.
5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10명).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가정예배 시간만큼은 다그치고 훈계하기 보다는 마음을 열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예배가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6	부모가 아이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가정에서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칭찬과 격려로 자녀의 능력을 믿어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가치를 높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8명). -8 주 동안의 가정 프로젝트로 3 P.P.P.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 기도(Pray)하고 자녀들과 15분 놀이(Play)를 하면서, 매일 한 가지 이상의 칭찬(Praise)을 하도록 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3).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자녀를 버거운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야곱이 형에게 가서 자기 자식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임을 고백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sup>284</sup>

#### 나. 프로그램 개선안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한부모나<sup>285</sup> 복합가정에서 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과 별거

<sup>284</sup>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창세기 33:5).

<sup>285</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177. 홀로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편부모, 홀 부모, 한부모 등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해 왔다. 그 중에 가장 중립적인 용어가 한부모일 것이다.

가 늘어나면서 한쪽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형태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남은 한부모가 재혼하지 않거나 재혼 전까지 자녀들과 함께 사는 전통적 형태의 한부모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적인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것도 한부모 가정의 형태일 수 있고, 일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한부모가 아이들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말 부부, 그리고 아예 자녀 교육 때문에 한부모와 자녀들이 해외에 머물고 주로 아버지는 남아서 일을 하는 소위 기러기 가정, 아니면 아빠가 취업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면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sup>286</sup>

또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복합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각각 다른 권위를 갖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의 결혼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고,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sup>287</sup> 부모의 규율이 각각 다르고, 자녀가 그 부모 중 한 사람을 방문할 경우, 자녀 양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방학, 휴일, 생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부모와 복합가정에서는 특별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엄예선은 이런 가정들을 위한 “지원 집단”(support circle)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회가 남편, 아내, 아이들 각각에게 지원 그룹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88</sup>

이에 ‘성경적 부모 교실’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후원하는 부모 지원그룹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언급한 H2H(Heart to Heart) 이혼 가정 회복 모임 워크북에는 매주 자녀양육 페이지가 따로 소개되어 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나 혼란스런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보다 더 견고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매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장점 살리기” 숙제가 있다.<sup>289</sup>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그룹으로는 DC4K(Divorce Care for Kids)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13주의

<sup>286</sup> 홍인중, *결혼과 가족*, 177-178.

<sup>287</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688.

<sup>288</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459.

<sup>289</sup> Church Initiative, *이혼가정 회복모임 인도자 지침*, 41.

만남을 통해 상실에 대한 슬픔의 과정을 지나도록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전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특별히 9주차는 이혼이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 이혼은 부모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아이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sup>290</sup> H2H 성인 모임과 DC4K 자녀 모임, 그리고 성경적 부모 교실이 함께 운영된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지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 제 3 절 부부 수련회와 가족 캠프

#### 1. 부부를 위한 주말 여행 GIFT 와 주말 데이트 UNITY

‘부부관계 개선 교육’ 이라고 일컫는 Marriage Enrichment Program(ME) 운동은 데이비드 메이스(David Mace)와 베라 메이스(Vera Mace) 부부에 의해서 1961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같은 해에는 허버트(Herbert)와 로베르타 오토(Roberta Otto)가 결혼 교육과 가정 생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사역은 주말 이틀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More Joy in Your Marriage” 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sup>291</sup> 그 후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현대 사회에서의 결혼생활을 자극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ME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가톨릭의 “ME: Marriage Encounter” 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1962년 가브리엘 칼보(Gabriel Calvo) 신부의 지도 아래 스페인에서 시작된 ME는 미국에서는 1967년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3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 프로그램은 부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도자 부부의 발표(강의)와 묵상, 부부간에 편지 쓰기, 부부간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일요일 저녁까지 실시하

<sup>290</sup> Online: <http://www.dc4k.org>.

<sup>291</sup> Herbert and Roberta, Otto,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New Perspectives and Programs* (Nashville: Abingdon, 1976).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ME의 주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의 만남(encounter)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자신과의 만남-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둘째, 배우자와의 만남-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결혼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가?” 셋째,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피차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주말 경험을 마치고 부부는 지역의 신앙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격려 받는다.<sup>292</sup>

이렇게 Marriage Enrichment 운동이 촉발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날로 증가하는 이혼율(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둘째, 결혼 자체가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혼한 부부들이 상담 요청을 꺼려한다는 사실, 셋째, 일방적 권위에서 상호적 권위로의 전환과 자지주장과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여성해방운동, 넷째, 집단 경험과 개인의 자아성취를 부추겼던 인간잠재력개발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293</sup> 이러한 ME 운동의 필연성은 우선 많은 부부들이 결혼에 대비한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약혼한 남녀 대부분은 그들의 ‘결혼’을 위해 준비하기 보다는 ‘결혼식’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한다. 올바른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에 열린문에서는 결혼 5년 차 이상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결혼을 위한 주말 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2박 3일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GIFT 2009’<sup>294</sup>을 교회 인근의 힐튼 호텔에서 가졌다. 주강사로 박수용 장로와 박애자 권사 부부를 초청하여 ‘부부와 내적 치유,’ ‘하나님의 창조적 가정,’ ‘부부와 성격 차이,’ ‘부부와 자녀 교육,’ ‘부부와 성 생활,’ ‘부부와 사랑의 언어’ 세미나를 열었다. 토요일 밤에는 담임 목사의 주례하에 혼인 서약과 결혼반지 교환이 있었다. 이 후 2010년부터는 부부사역팀 주관

<sup>292</sup> 정동섭, *2 일이면 더 행복한 결혼*, (서울: 이레서원, 2006), 28-29.

<sup>293</sup> Otto,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New Perspectives and Programs*, 14-15.

<sup>294</sup> GIFT는 Grace of God, Incredible Intimacy, Fellowship Together, Total Commitment를 줄인 말로 부부 간에 서로가 아름다운 선물(Gift)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Grace of God) 가운데 친밀감(Incredible Intimacy)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주말 부부 데이트나 여행(Fellowship Together)을 하며 연인보다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언약(Total Commitment)을 맺게 된다.

으로 해마다 다른 연령별 다양한 계층에 맞추어 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로 GIFT가 진행되었고 주말 데이트로는 UNITY를 교회에서 실시하였다. 다음은 2010년 6월에 있었던 GIFT의 일정과 진행안이다.

<표 15> GIFT 일정과 진행안

첫째 날(금)	
17:00-18:30	교회 집합, 참가자 접수 및 환영
18:30-18:45	버스 탑승 준비, 담임 목사의 기도후 수양관으로 출발
18:45-21:45	오리엔테이션, 지원동기 및 자기 소개 저녁식사, 간단한 오락, 찬양
21:45-23:00	수양관 도착, 예배 및 안내 광고 야식, 취침
둘째 날(토)	
6:00	참가자 기상 / 자유 시간(산책)
7:30-8:30	아침식사
8:30-10:15	찬양(15분) / 강의(90분) 나는 누구인가
10:15-11:30	부부 산책과 나눔
11:30-12:3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2:30-14:55	찬양(15분) / 강의(90분)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 나눔(40분)
14:55-16:30	레크레이션(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 중심으로)
16:30-17:00	자유 시간
17:00-18:30	저녁 식사
18:30-20:30	찬양(15분) / 강의(90분) 크리스천의 성생활 / 휴식(15분)
20:30-21:30	풋볼 예배
21:30-23:00	자유 시간(캠프 파이어) / 취침
셋째 날(주일)	
6:00-7:30	기상, 자유(상담) 시간
7:30-8:30	아침 식사
8:30-10:15	찬양(15분) / 강의(90분) 21 세기의 성경적인 자녀교육
10:15-11:30	집정리 및 청소
11:30-12:00	폐회 예배

12:00	교회로 출발(3시 도착 예정 / 교회 도착시 중보기도팀의 환영)
-------	-------------------------------------

GIFT 주말 여행은 결혼생활의 영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측면에서 부부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격려한다. 클라인벨(Clinebell)이 지적한 것처럼, 부부는 정서적, 지적, 사회적, 성적, 오락적, 위기적, 영적 차원에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sup>295</sup> 이것은 결혼 주기에 수반되는 변화와 공통된 적응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다.<sup>296</sup> 가정 사역에는 결혼 예비 교육, 부부 역할 교육, 부모 역할 교육,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아이를 치유하는 지원그룹 사역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결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부부 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친밀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이다. 부부 체계가 건강할 때 가족 체계는 물론, 교회와 사회 체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GIFT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부부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소풍’이라는 주제로, 부부를 위한 세미나와 더불어 자녀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UNITY가 준비되었는데, 일정과 진행안은 다음과 같다.

<표 16> UNITY 일정과 진행안

첫째 주(토)	
17:45	참가 가정 친교실 도착(출석 확인 및 테이블 배정)
18:00-18:30	재즈 밴드 Performance
18:30-20:00	강의(90분) 대화의 기술
첫째 주(주일)	
15:45	참가 가정 친교실 도착(출석 확인 및 테이블 배정)
16:00-16:30	재즈 밴드 Performance
16:30-18:00	강의(90분) 갈등의 원인과 해결
18:00-19:00	저녁 식사

<sup>295</sup> Howard Clinebell, *전인건강*, 이종현, 오성춘 역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251-358.

<sup>296</sup>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49.

19:00-20:00	강의(60 분) 아름다운 성
둘째 주(토)	
10:00	참가 가정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 하버 도착
10:00-10:30	유람선 승선 및 좌석 배정
10:30-12:00	레크레이션 및 기도
12:00-13:00	점심 시간
13:00-13:30	자유 시간 및 해산

UNITY 주말 데이트는 자녀와 함께 하는 주말 데이트 뿐만 아니라 중년부부, 대학과 결혼으로 자녀를 떠나 보낸 Empty Nester 들, Next 청년들 등 해마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다. 브라운(Brown)이 정리한 가정생활 수련회의 목적을 참고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유형과 일정 그리고 주제 강의와 진행 방법 등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sup>297</sup>

가. 은퇴한 사람들: 노인들을 돕기 위해 외로움의 문제에 직면하고, 가치감을 가지며 그것을 계발하고, 인생의 목적 의식을 계발 유지하고, 은퇴에 따른 금전 문제에 직면하며, 신체적 건강 문제와 일을 조절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한다.

나. 중년기의 사람들: 자녀들이 떠난 ‘빈 둥지’에 대해 준비하게 하고, 사위, 며느리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조부모가 손자들과 건강한 관계의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고, 결혼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다. 십대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 십대 자녀를 둔 부모를 돕기 위해 의사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고, 십대 자녀의 성적 성숙을 수용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성욕을 받아들이도록 돕게 하며, 십대들의 생리적 변화와 인격적 필요와 특성을 이해하고, 십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다. 자녀들에게는 신체에서 일어

<sup>297</sup> Aury Brown, *Church Family Life Conference Guidebook*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73), 9-10.

나는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성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 성, 구혼, 결혼에 대한 적합한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라. 십대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건강하고 일관성 있는 훈육 패턴을 발달시키도록, 자녀들과의 의사 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자녀들의 발달적 필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발달시키고,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신체에 관하여 건강한 개념을 발달시키고, 가치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발달시키고, 그들이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마. 결혼 경험이 있는 독신자들: 한부모 가정이 그들의 상황에 맞는 훈육 문제를 이해하고, 이혼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죄책감, 분노, 적대감 등을 해결하며, 만족스러운 사회 적응과 여가 활동을 즐기도록 돕는다.

바. 결혼 적령기의 독신자들: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체가 다른 점을 깨닫고, 건강한 배우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배우자에게서 바라는 자질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셀(Sell)은 가정 생활 수련회를 계획할 때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내세우기보다는 범위가 좁은 목적을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활하는 방법보다는 가정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 너무 폭넓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협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특별한 제안을 주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성취와 향상에 대한 만족감을 주게 한다.<sup>298</sup>

## 2.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

<sup>298</sup> Sell, *가정 사역*, 513-514.

2012년부터 매년 초여름에 열려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아빠와의 추억을 선사해주는 “아자(아빠와 자녀) 캠프”는 파테르 아빠들의 긍지이자 기쁨이다.<sup>299</sup> 교회 수양관에서 1박 2일에 걸쳐 열리는 아자캠프는 게임과 오락, 수영, 캠프화이어,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아버지와 자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기회를 갖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Sell은 가족 캠핑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열린문의 아자 캠프는 캠프라마(camporama)캠핑이라고 볼 수 있다.<sup>300</sup> 이 유형의 캠핑은 보통 주말에 캠프 장소가 있는 교회나 공원 또는 대단위의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주로 세미나와 영화가 준비된 캠프화이어 모임이 있다. 대개 가족들은 주어진 장소에서 캠핑을 하며, 스스로 음식을 마련한다. 캠프라마가 주일까지 이어지면, 모든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Sell은 이러한 활동들이 교회의 지체가 일상적인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관계를 매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강조한다.<sup>301</sup> 다음은 2013년 6월에 교회 수양관에서 열렸던 아자캠프의 일정과 진행안이다. 총 26가정이 등록하였고, 2명의 목회자와 12명의 스태프들이 행정팀, 주방팀 그리고 레크레이션팀으로 섬겼다.

<표 17> 아자 캠프 일정과 진행안

첫째 날(토)		
9:00	교회 집합, 담임 목사 기도후 수양관으로 출발	행정팀: 출석 확인 및 차량 배정 / 아자 캠프 티셔츠
9:30-12:30	수양관 도착	
12:30-13:00	참가자 텐트 설치 및 문패 부착	주방팀: 점심 식사 준비
13:00:14:00	점심 식사 및 휴식	레크레이션팀: 게임 준비
14:00-16:00	게임	주방팀: 간식 준비(과자)
16:00-16:30	간단한 간식	

<sup>299</sup> 창립 30주년 기념사역위원회, *은혜가 이끄는 교회*,(서울: 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14) 172..

<sup>300</sup> Sell, *가정사역* 305-312. (1) 거주 중심의 가족 캠프 (2) 거주-절충식 가족 캠프 (3) 가정 생활 향상 캠핑 (4) 가족-캠포라마 캠핑 (5) 가족 단위 그룹 모임의 캠핑 (6) 가족 부락 캠핑 (7) 가족 단위의 여행 캠핑

<sup>301</sup> Ibid., 308-309.

16:30-17:30	축구 시합 / 수영	행정팀: 상품 준비
17:30-18:00	득점왕 및 게임 MVP 시상식	
18:00-18:30	세면 및 휴식	주방팀: 저녁 식사 준비(BBQ)
18:30-20:00	저녁 식사	레크레이션팀: 캠프 파이어와 야외 극장 준비
20:00-22:30	캠프 파이어 / 찬양 아빠가 자녀에게 쓴 편지 낭독 및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10 가지 읽어 주기 야외 극장 영화 상영	주방팀: 고구마와 옥수수, S' mores 준비 행정팀: 기도문 준비
22:30-23:00	텐트 안에서 축복 기도해주기(민 6:24-26) 취침	행정팀: 아자 캠프 기념 액자 제작(아빠와 자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둘째 날(주일)		
8:00	기상	
8:00-9:00	아침 체조 및 보물찾기	주방팀: 아침 식사 준비
9:00-10:00	아침 식사	행정팀: 큐티 자료 준비
10:00-10:30	아빠와 함께 큐티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읽기	행정팀: 상품 준비
10:30-11:00	보물찾기 선물 증정 및 기념 촬영	
11:00-12:30	예배 및 소감 나누기(그룹별)	주방팀: 점심 식사 준비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아빠와 함께 산책 / Pedal Boat 타기	행정팀: 기념 사진 준비 주방팀: 간식 준비(컵라면)
14:30-15:00	청소 및 출발 기도 아자 캠프 기념 액자 증정	

로즈붐(Rozeboom)은 캠프라마는 친교를 위한 것으로, 가족들이 주말에 야외에서 매우 신나고 즐겁게 모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sup>302</sup> 캠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sup>302</sup> John Rozeboom, *Family Camping: Five Designs for Your Church* (Nashville: Board of Disciple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73), 39.

설명한다.<sup>303</sup>

가족 한 사람의 필요가 가족 전체의 필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캠프에 참여한 한 가정의 필요는 각 가정과 각 개인의 필요가 된다. 각 가족 구성원들은 실제로 서로의 구성원이 되며 서로 돌보고 또한 보살핌을 받는다. 이들은 서로의 믿음의 증인이 되며, 이러한 증인 됨을 통해 믿음과 헌신은 이들 삶의 한 부분이 된다.

이처럼 가족캠프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됨(동질감)을 느끼며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304</sup> 셀(Sell)은 가족 캠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이스라엘 민족의 장막절 기간 동안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커다란 도시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년에 한 번 씩, 일주일 동안을 달개 지붕(lean-to)의 단순한 생활로 옮기게 하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활의 단조로움과 매일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졌다. 그는 교회 역시 가족 캠핑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캠프장에서 학습한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 유형은 교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세대간 그리고 가족간 교제는 교회 전체의 연합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sup>305</sup>

다음은 셀(Sell)이 주장한 가족 단위 그룹 모임의 목표와<sup>306</sup> 가족 캠핑의 가치들에 근거하여 아자캠프의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함께 재미있고 보람된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연합과 사랑의 증진을 돕는다. 둘째, 다른 가족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자녀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제공한다. 셋째, 집을 떠나 자연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 기뻐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경험하게 한다. 넷째,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또한 자기 자녀에 대한 다른 아버지들의 인식을 관찰하면서 자기 자녀에

<sup>303</sup> Rozeboom, *Family Camping: Five Designs for Your Church*, 4.

<sup>304</sup> Elizabeth and William Genne, *Church Family Camps and Conference*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9), 18.

<sup>305</sup> Sell, *가정 사역*, 303.

<sup>306</sup> *Ibid.*, 298-299. 가족 단위의 그룹 모임 프로그램은 고립된 핵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위적으로 대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 안목을 얻게 한다.<sup>307</sup>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된다.<sup>308</sup> 이처럼 아자캠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가족관계를 의미있고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얻게 한다.

“아자 캠프 2013”에 참석하여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뒤 2014년부터 스텝으로 섬기게 된 한 아버지의 간증은 야외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정 생활에서 잃어버린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사역에 대해, 다른 가족들에 대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309</sup>

…캠프에 가기 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저를 만져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내면의 감정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저녁 캠프 파이어를 하는 동안 우리 그룹 아버지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감동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종이에 아버지로서 후회되는 일은 한 것을 한 가지만 적으세요.” 저는 이것이 도전적인 것이 아닌 그저 편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후회되는 것이 무척이나 많은 제게(특히 나의 세 아들 중 둘째에게), 이 요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이라는 이유로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성취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숨기려고 애는 썼지만,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장면은 제가 아들에게 매를 들어 우리 관계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축구팀 단체 사진촬영에 불참한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꼭 참석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안타까운 심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축구팀 사진을 찍기로 했던 때를 잊지 말아라...” 아들은 갑자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가 매를 들었던 부분에 대해 말하자 아들은 눈물을 쏟으면 제 가슴에 얼굴

<sup>307</sup> Sell, *가정 사역*, 298-305.

<sup>308</sup> 자녀들이 아자 캠프를 통하여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sup>309</sup> “아자 캠프를 마치고: 아들과 소통하는 재미,” *열린문*, 2013년 7월호, 16-17.

을 묻고 저를 껴안더니 갈라진 조그만 목소리로, “아빠, 아빠가 그 얘기를 하니 너무 슬퍼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맘속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들을 힘껏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이를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우리의 죄처럼 그것도 불태워졌고 재로 변하였습니다. 아들은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많은 아빠 엄마들이 이러한 문제로 분명히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서 나, 우리의 부주의한 무의식적 반응, 아니면 가끔 부모로서의 중압감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분명한 것은 아자캠프가 저의 인생 방정식에서 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변수들을 끌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말 내내 저는 오로지 제 아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아자캠프가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운동이나 어떤 수업과 같은 것에 이런 논리를 적용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아자캠프”가 저를 좋은 아버지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아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해 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케 해 주셨습니다. 아자캠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 당신을 바칠 기회를 찾는다면, 이보다 더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자캠프를 우리 가족의 여름 연례 행사로 만들어준 열린문 교회와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기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많은 아버지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그 대열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민 가정의 급격한 이혼율 증가, 청소년들의 탈선,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가정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점들은 교회를 통한 효과적인 가정 사역을 통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 온스의 예방이 1 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 는 말이 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은 건강 검진이나 환경 문제에서처럼 커플 관계의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부부 치료에 오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커플을 치료하는 것은 마치 말기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어렵다. 부부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가정 사역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사역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제 6 장

### 열린문 교회의 미래의 가정 사역

본 장에서는 앞으로 열린문의 가정 사역이 새롭게 시도할 예방과 치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한다.

#### 제 1 절 결혼 예비 학교 후속 프로그램

##### 1. 외도 예방 세미나

이민 가정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다. 가정 문제 상담 기관인 기독교 상담소(소장 염인숙)가 2009 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 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의뢰한 한인은 총 1106 명으로 이 중 420 명이 ‘부부 갈등’ 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했다. 부부 갈등 문제를 세부 사항별로 분석해 보면 ‘배우자 외도’ 문제가 116 명으로 이민 한인 가정의 단일 문제로 1위를 차지했다.<sup>310</sup>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는 이민 1 세 부부들 뿐만 아니라 1.5 세와 2 세들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다. 따라서 긴 근무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상사, 동료 등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성 동료와의 공적인 친밀함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사적인 감정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나 ‘오피스 허즈밴드(office husband)’ 와 같은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

<sup>310</sup> “부부 갈등 원인 '외도' 가장 많아, 기독교 상담소 통계” *LA 중앙일보*, 2009 년 1 월 15 일자, 미주판 4 면. 2017 년 12 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1338](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1338).

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sup>311</sup>

‘오피스 와이프’란 실제 부부나 애인 관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아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남편처럼 친하게 지내는 남성 동료는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한다.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Captivate Network가 2012년 화이트 컬러 계통에 종사하는 640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3분의 2(65 퍼센트)가 ‘오피스 배우자’(office spouse)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63 퍼센트가 오피스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59 퍼센트는 가정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으며 35 퍼센트는 성적인 고민도 상담해봤다고 답했다.<sup>312</sup> 이처럼 정신적 외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직장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이성 동료와의 정신적인 친밀감이 육체적 외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혼 예비 상담을 통해 예비 부부들에게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단둘이의 만남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Second Baptist Church의 ‘Marriage Prep’처럼 이 주제에 대해 ‘부부의 성’ 강의 시간을 할애하여 탐 아이젠만(Tom Eisenman)의 ‘12 Steps to an Affair’(외도에 이르는 12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sup>313</sup> 이 내용을 앞으로 진행될 ‘Prepare-Enrich’의 ‘두 번째 만남: 부부의 친밀감’ 강의 자료로 추가하려 한다. 다음은 강의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계. 준비(readiness):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이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2 단계. 경보(alertness): 주변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성을 발견하게 된다.

3 단계. 결백한 만남(innocent meeting):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관계

<sup>311</sup> “오피스 와이프, 10명중 3명 ‘있다’...배우자나 연인에게 있다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3년 10월 11일자, 사회면.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news.joins.com/article/12830753>.

<sup>312</sup> Online: <http://officepulse.captivate.com/workspouse>

<sup>313</sup> Tom L. Eisenman, *Temptations Men Face: Straightforward talk on Power, Money, Affairs, Perfectionism, Insensitiv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0), 88-93.

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

4 단계. 의도적인 만남(intentional meeting):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사실은 의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위험선을 넘어선 것이다.

5 단계. 여럿이 보내는 오랜 시간(public lingering):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합리화를 한다. 하지만 이미 이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

6 단계. 둘만이 보내는 오랜 시간(private lingering): 그룹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두 사람만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7 단계. 고의적인 고립(purposely isolating): 이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계획한다. 배우자를 기만하는 일들이 늘어난다. 집에서 배우자가 구두 및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감소를 알아 차린다.

8 단계. 즐거운 고립(pleasurably isolating): 좀 더 친밀감을 느끼며 흥분과 모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한다. 결혼 생활의 즐거운 시간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9 단계. 따뜻한 포옹(affectionate embrace): 서로에 대한 갈망이 강렬해진다. 간지럼이나 레슬링같은 장난기 있는 신체적 접촉이 증가한다.

10 단계. 열정적인 포옹(passionate embrace): 열정적인 신체적 애정 표현이 시작된다.

11 단계. 성적인 포옹(sexual embrace): 성관계를 갖는다.

12 단계. 인정(acceptance): 이제 이들은 외도의 늪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침소’에 해당하는 ‘코이테’는 ‘침대’란 뜻으로 결혼 생활에서 성적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절한 성적 관계는 침대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행위이다.<sup>314</sup> 가정을 가장 황폐화시키고 이혼의 사유로 가장 널리 수용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외도가 일어날 때는 두 사람 다 어떤 모양이든 그 상황이 발

<sup>314</sup> 강병도, *히브리서*, 카리스 종합 주석(신약) 제 23 권 (서울: 기독교지혜사, 2003), 820.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한쪽이 실제로 그러한 접근을 함으로 외도가 시작된다.<sup>315</sup> 성적 음행이 한 번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외도를 한 사람이 후회하며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배우자는 배반감과 거절감, 상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흔들리는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 배우자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며, 내면에는 분노와 두려움,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sup>316</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예비 부부들에게 교육함이 필요하다.

Second Baptist Church의 ‘Marriage Prep’에서는 외도로 인해 파괴된 결혼 관계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에 외도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부부를 위한 관계 회복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에, Texas A & M University의 심리학 교수이며, 임상수련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더글라스 스나이더(Douglas K. Snyd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심리학과 교수인 도널드 바우콤(Donald H. Baucom), 그리고 용서와 외도 및 커플치료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University of Tennessee의 크리스티나 고든(Kristina Coop Gordon) 교수가 공저한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Heal, and Move On-Together or Apart*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sup>317</sup> 한국어 번역본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이다.<sup>318</sup>

이 책은 외도를 경험한 부부들을 위해 쓰여졌는데,<sup>319</sup> 2부에서 다루는 주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예방차원에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 자료로 유용하다고 본다. 다음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외도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sup>315</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672.

<sup>316</sup> Ibid., 672-673.

<sup>317</sup> Douglas K. Snyder, Donald H. Baucom and Kristina Coop Gordon,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Heal, and Move On-Together or Apart*,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7).

<sup>318</sup> Baucom and Gordon Synder,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권정혜, 오현주, 정정숙 역 (서울: 학지사, 2010).

<sup>319</sup> Ibid., 12. 약 20 퍼센트의 남성과 10 퍼센트의 여성이 성적으로 외도를 하는데, 여기에 정신적인 외도가 포함될 경우 남성은 45 퍼센트, 여성은 25 퍼센트까지 그 비율이 증가한다.

첫째, 외도 전에 우리의 결혼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차이를 얼마나 잘 다루었는가? 중요한 것은 ‘부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갈등의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의 증가는 외도에 취약하게 만든다.<sup>320</sup> 관계에 장점이 많아도 둘 사이에 핵심적인 갈등이 있다면 관계를 충분히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이나 주제를 확인하고, 그것을 더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sup>321</sup>

둘째, 우리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유대감이 있는가? 경험과 목표 그리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체적으로 얼마나 친밀했는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서로 헌신하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이다. 부부는 함께 일하고 즐기면서 현재 벌어지는 일이나 미래의 꿈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낀다.<sup>322</sup>

셋째, 우리는 건강한 부부였는가? 우리는 왜 부부가 되었는가?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얼마나 만족했는가?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다시 굳건한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모든 부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부부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과거에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 사람이 힘들 때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지지해 주었는지 등을 열거해 본다.<sup>323</sup>

넷째,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었을까?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느라 결혼생활이 위태해지지 않는가? 결혼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해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부 관계를 망치는 중요한 외부 요인(업무의 압박, 경제적 부담과 같은 주요 스트레스, 외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 외도에 취약하게 만드는 외부의 요인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도록 도와줄 요인과 사람들-친구

<sup>320</sup> Snyder,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258.

<sup>321</sup> Ibid., 286.

<sup>322</sup> Ibid., 287

<sup>323</sup> Ibid., 289.

부부, 개인적인 친구, 관계를 지지해 주는 집단 등도 있다.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sup>324</sup>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의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연습 문제에 대한 답변은 외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325</sup> 저자들은 부부에게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상처가 되는 상호 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부부가 함께 가정 안과 밖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특정 기간(예: 30 일, 90 일)을 정해 최대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기간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함께 한다. 그런 기회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326</sup>

배우자의 외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 외상 경험 중 하나다. 그것은 배우자와 두 사람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나 믿음을 뒤흔들고, 매우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된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때때로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행동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는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지만, 외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앞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회복 과정을 거친다면 언젠가는 그러한 느낌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상황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27</sup>

## 2.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

<sup>324</sup> Snyder,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315-316.

<sup>325</sup> Ibid. 251-394. 7 장 우리의 결혼생활이 어디가 잘못되었던 것일까? 8 장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었을까? 9 장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외도를 하게 되었을까? 10 장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sup>326</sup> Ibid., 284.

<sup>327</sup> Ibid. 33.

6주간의 집단 상담으로는 대화의 기술, 갈등 처리, 친밀감에 대해 다루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개인적인 심리 문제나 역기능 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가족치유 마음치유” 집단 상담(13주)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sup>328</sup>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들 가운데 ‘분노 조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루지 못했다. 분노 또한 예비 부부간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 둘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 부부들에게 가정 사역 프로그램으로 “분노 컨트롤” 집단 상담(6주)이 있음을 소개했다.<sup>329</sup>

열린문에서 실시했던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가운데 결혼 예비 상담을 받은 커플들이 참여하길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18> 두리하나 결혼 예비학교 설문지 응답 5

순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	성경적 태교 교실(18명) 성경적 부모 교실(18명)	예비 부모를 위한 말씀 태교와 건강 세미나 자녀 양육 원리 및 훈계와 대화 그리고 양육 스타일
2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16명)	1박 2일 교회 수양관 자녀와의 친밀감 회복을 위한 캠프
3	부부가 함께 하는 열번의 데이트(12명)	말씀 묵상과 적용을 통한 영적인 성장 & Love Map 을 통한 친밀감 회복
4	분노 컨트롤(8명) 부부가 함께 가는 주말 여행 GIFT(8명)	분노의 유형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집단 상담 2박 3일 교회 수양관 부부의 친밀감 회복을 위한 수련회
5	에제르 수요일 여성 모임 (6명)	한 주간 묵상한 말씀과 함께 삶을 함께 나누는 여성들 의 모임
6	파테르 목요일 남성 모임 (4명) 가족치유 마음 치유(4명)	건강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남성들 의 모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

<sup>328</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sup>329</sup> Ingram, 분노컨트롤.

이상의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예방적 가정 사역 프로그램인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가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라 기획된 다양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예비 학교를 마치고 젊은 부부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후속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에 파테르 남성 모임에서 실시했던 “사랑의 도전 40 일”을 결혼 예비 학교를 수료한 결혼 5년 차 이상의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려 한다. 7 주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표 19> 사랑의 도전 40 일 진행안

만남	주제 및 활동
1 회	<p>① Fireproof 영화를 본 후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소방 대장 Caleb은 책임감이 두텁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결혼 7년째를 맞은 아내 Catherine과의 관계다. 두 사람의 감정은 매일 병원에 나가는 아내와 24시간 3교대로 일하는 Caleb의 일상 리듬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Catherine은 젊은 의사의 유혹을 받고 있다(정신적 외도). Caleb은 아버지에게 “사랑의 도전”이라 적힌 노트를 받고 40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시작한다.</p> <p>② 교재 1. “사랑의 도전”<sup>330</sup> “The Love Dare”<sup>331</sup>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Day1-사랑은 오래 참는다’, ‘Day2-사랑은 친절하다’ 식으로 40일 동안 실행할 ‘오늘의 도전’ 리스트가 있다.</p>
2 회	<p>교재 2. Fireproof 참가자용 교재<sup>332</sup> 6주 동안 다룰 주제를 소개한 뒤 DVD 시청을 한다. 소그룹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He Said/She Said: how do we fulfill our God-given roles in marriage?</p>
3 회	<p>He First Loved Us: Do you know God’s love? Do you reflect that love to your spouse?</p>

<sup>330</sup> Stephen Kendrick and Alex Kendrick, *사랑의 도전*, 이지혜 역 (서울: 살림, 2009).

<sup>331</sup> Kendrick, *The Love Dare* (Nashville, TN: B & H Publishing Group, 2008).

<sup>332</sup> Jennifer Dion, *Fireproof Your Marriage Participant’s Guide* (Vista, CA: Outreach, 2008). DVD와 참가자용 교재는 영어로 되어있다.

4 회	Love for a Lifetime: Do you understand the “covenant” nature of marriage vows?
5 회	Breaking Free: Are temptations or addictions threatening your marriage?
6 회	Forgiveness: Is unforgiveness hindering your relationship with God or with your spouse? Is there anything for which you need to ask forgiveness?
7 회	A Better Way of Living: Do you love your spouse unconditionally?

Fireproof 영화는 위기에 처한 한 부부의 현실 모습과 역경 극복의 이야기를 통해 부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를 진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랑의 도전” 교재는 실제로 그 회복과 개선을 위해 실천하도록 돕는다. 이 책은 ‘사랑의 도전’을 하는 것이 부부의 힘만으로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일수록 위태하다고 본다. 그래서 “The Love Dare”은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 둘 사이에 하나님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그리고 외도의 아픔과 상처는 있지만 결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부부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제 2 절 부부 사역

### 1. 소그룹 부부 모임

열린문의 작은 가족 ‘오이코스’ 모임은 12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열린문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섬기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이코스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 모임에서는 주일 예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예배를 통해 임한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 계속 머물러 영적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교회가 점점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성도 개개인이 서로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가족의 연대감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다.<sup>333</sup>

큰 교회 속의 작은 공동체인 오이코스에 참석하는 부부들을 위해 휴스턴 서울 교회의 목장 모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의 삶” 프로그램과 알프(Arp) 부부가 고안한 중년 부부들을 위한 “결혼 건축가(Marriage Builder)”를 도입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삶의 습관을 연습해 가며 습득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오이코스 교재로 사용하게 될 “부부의 삶”은 미국 남침례교에서 부부간의 결혼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13주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주제들을 다룬다.<sup>334</sup>

<표 20> 부부의 삶 진행안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1) 언약으로서의 결혼	(2) 약속으로서의 결혼
결혼에 대한 내적 고찰	(3) 독특성을 존중함	(4) 하나됨을 기념함
결혼에 대한 외적 고찰	(5) 결혼과 그 목적	(6) 결혼과 동반자 관계
동등한 동반자 관계	(7) 분노와 갈등의 조절	(8) 결정과 갈등의 해결
사랑의 동반자 관계에로의 헌신	(9) 결혼과 사랑	(10) 결혼과 미래
성숙한 부부 관계	(11) 성숙한 삶을 향한 동반자	(12) 결혼을 통한 사역

최영기는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휴스턴 서울 교회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335</sup> 초점은 이혼의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쓰는 데 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칭찬 하기, 하루에 한 번 안아 주기 등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스는 결혼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sup>333</sup> 창립 30주년 기념사역위원회, *은혜가 이끄는 교회*, 168.

<sup>334</sup> Diana S. Garland and Betty Hassler, *부부의 삶*,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열린문의 오이코스는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모인다.

<sup>335</sup> 최영기, “교회 안의 이혼, 이렇게 대처하자,”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213.

좋다고 강조한다. 이혼 직전까지 가면 너무 깊은 상처를 주고받아서 코스를 수강하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힘들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영기는 성경 공부 기간에는 결혼 생활이 괜찮아지는 듯하다가 끝난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잡아 줄 이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중재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사람이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휴스턴 서울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인도하는 가정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매 주 모임을 통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부끄럼 없이 말함으로써 부부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중년 부부들이 많은 오이코스 모임에서는 “결혼 건축가” 를 도입하려고 한다.<sup>336</sup> 이 프로그램을 고안한 알프(Arp) 부부는 “행복한 부부 만들기 세미나” (Marriage Alive Seminar)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 후반기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첫째는 자녀 중심의 결혼에서 배우자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이다. 완충지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떠나게 된 부부들은 결혼을 재정의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때 부부는 더욱 친밀해든지 아니면 결혼은 서서히 붕괴되어 버린다. 둘째는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과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과제이다. 셋째는 노부모와 성년의 자녀들과 함께 변화하는 역할들에 적응해야 한다.<sup>337</sup> 이렇게 결혼 후반기의 부부들이 부딪히게 되고 넘어야 할 과제들을 세분화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혼 건축가” 이다. 다음은 오이코스에서 중년 부부들이 토론과 실습을 통해 다루게 될 8가지 과제들이다.<sup>338</sup>

#### <표 21> 결혼 건축가 진행안

과제 1.	과거에 실망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남은 결혼생활을 최고로 만들어 가는 일에 헌신하라
-------	--

<sup>336</sup> David and Claudia Arp, *중년기 이후의 부부, 이렇게 사랑하라*, 정동섭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sup>337</sup> Ibid., 17-18.

<sup>338</sup> Ibid., 281-329.

과제 2.	자녀 중심이 아닌 배우자 중심의 결혼을 창조하라
과제 3.	깊은 내면의 감정들과 즐거움 그리고 관심들을 표현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대화 체계를 유지하라
과제 4.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분노와 갈등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라 <sup>339</sup>
과제 5.	더 깊은 우정을 쌓고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과제 6.	낭만을 일깨우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회복하라
과제 7.	노부모님과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라
과제 8.	당신의 영적 순례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고, 배우자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성장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알프(Arp)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부의 믿음과 결혼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결혼의 질, 특히 결혼 후반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sup>340</sup>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갖게 되는 친밀감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친밀감이다. 결혼 후반기는 부부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하여 친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시기이다. 매터슨(Matterson)과 해리스(Harris)에 따르면, “깊은 우정을 경험하는 만족스러운 결혼의 열쇠는 새로운 습관들을 개발하는 것” 이라고 한다.<sup>341</sup>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삶” 과 “결혼 건축가” 과정은 부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친밀감을 회복하는 제 2의 신혼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깊은 정서적 만남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사랑

<sup>339</sup> Gottman,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188-189. Gottman 은 부부 사이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69 퍼센트는 해결이 안되는 ‘지속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오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조사한 부부들 가운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일단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 상담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갈등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부들의 해결 방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정이 따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부드러운 말로 시작한다. 둘째, 회복 시도를 주고 받는다. 셋째, 서로 흥분하지 않는다. 넷째, 타협한다. 다섯째, 상대방의 실수에 관대해진다(상대방의 좋은 점은 두 눈으로 보고, 나쁜 점은 한 눈으로 본다).

<sup>340</sup> Ibid., 65.

<sup>341</sup> Richard Matterson and Janis Long Harris, “What Kind of Friend Are You?” *Marriage Partnership* (Seminar Notes, Winter 1994): 51.

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하는 결혼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부부의 삶이 되게 할 것이다.

## 2. 멘토 부부 훈련

소그룹 모임은 인도하는 리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리더가 좋은 나눔방을 만든다. 리더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나눔을 이끌어 가는 인도자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이다. 인도자의 역할은 참여자들의 말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읽은 본문과 관련된 발표와 적용 외에 다른 주제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 참여자가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대답해 주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문이 막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역동적인 나눔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sup>342</sup>

이를 위해서 소그룹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라포르(raport) 형성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따뜻한 사랑을 가진 리더는 관계를 편안하게 해준다. 패롯(Parrott) 부부는 멘토링 관계에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때 라포르가 형성되고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라פור는 신뢰와 조화,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협력, 일치, 연합이라는 특징을 가진 관계이다. 라포르를 형성하는 것은 소그룹 리더 부부가 집단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라פור는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경험과 가치관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안에서 라포르가 형성될 때 집단성원들은 편안함과 만족감, 화합을 느끼게 된다.<sup>343</sup>

또한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 리더 부부는 기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성원들도 철저히 훈련 시켜야 한다. 교회 안에서나 소집단 내에서 가장 흔히 부딪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집단성원들끼리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교인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교인들은 교회나

<sup>342</sup> 천만큐티운동본부, *큐티세미나: 중급반 교재* (서울: 두란노, 2011), 57.

<sup>343</sup>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130. Rapport 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다.

소집단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자신들을 도와준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이 창피하고 거북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이에 엄예선은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이 가정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서 상처받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는지, 기밀이 누설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런 점들이 있었다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하여금 떠나고자 하는 성도에게 철저히 사과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44</sup>

새들백 교회의 다섯 가지 운영 지침은 소그룹 모임을 안정적인 곳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의 지침을 매회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읽도록 한다.<sup>345</sup> 첫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계속 나누라. 당신의 나눔을 3-5분으로 제한하라. 둘째, 논쟁은 금지한다. 논쟁이란 두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둘이서만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방해 없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이 모임에 왔다.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 고 하지 않는다. 넷째, 익명성과 비밀 유지는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그룹 안에서 함께 나눈 내용은 그룹 안에서만 알고 있기로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임 안에 호전적인 언어를 쓸 수 없다.

열린문의 에제르 여성 모임에서도 소그룹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지침을 함께 읽고 시작할 수 있도록 순서지에 첨부했다. 첫째, 에제르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다. 둘째, 우리는 매일 QT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위해 모인다. 셋째,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그 내용을 꼭 비밀로 지켜준다. 넷째, 우리는 개인 QT를 통해 얻은 교훈과 적용한 내용을 적어와서 소그룹 시간에 같이 나눈다. 다섯째, 우리는 모임의 시간을 준수하며 모임에 최대한 출석하도록 한다. 이처럼 비밀 보장에 관한 지침은 열린문에서 실시된 모든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 강령으로, 부부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에서도 필수 지침으로 삼을 것이다. 모임 안에서 나누어진 모든 이야기는 모임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참여한 모든 집단성원들이 비밀을 지켜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sup>344</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528-529.1

<sup>345</sup> John Baker, *회복 축재: 참가자용 교재 1*, 정동섭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16.

소그룹 리더 부부들이 결혼생활 멘토로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8주 간의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부부사역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실시했던 패롯(Parrott) 부부의 “Marriage Mentoring” 훈련 DVD 의 내용 중 결혼 생활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2> 결혼생활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들<sup>346</sup>

1 회	결혼생활 멘토링의 큰 그림	결혼생활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결혼생활 멘토가 될 수 있는가? <sup>347</sup>
2 회	결혼생활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들	Skill 1. Building Rapport 라포르를 형성하라. Skill 2. Walking in Another Couple' s Shoes 다른 부부의 입장이 되어 보라
3 회		Skill 3. Working as a Team 한 팀으로 일하라 Skill 4. Agreeing on Outcomes 결과에 대해 합의하라
4 회		Skill 5. Asking Meaningful Questions 의미 있는 질문을 하라 Skill 6. Listening Aggressively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5 회		Skill 7. Fielding Questions 질문에 대처하라 Skill 8. Telling Your Stories 자신을 열어 보이라
6 회		Skill 9. Praising Together 함께 기도하라 Skill 10. Staying Sharp 예리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라
7 회		Skill 11. Being Yourself and Going with the Flow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라
8 회		Bonus Skill: Spotting Red Flags 위험 신호: 멘토리 부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할 때 <sup>348</sup>

이처럼 소그룹 리더들과 평신도 가정 사역자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결혼 생활

<sup>346</sup> Parrott, *Marriage Mentor Training and Recruiting Leader's Guid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6-7.

<sup>347</sup>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51. 소그룹 리더들에게 Parrott 부부의 “나는 결혼생활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가 진단 설문서의 항목들을 점검하도록 한다. 부록 12) 199 를 참조.

<sup>348</sup> *Ibid.*, 259-260. 소그룹 리더는 결혼생활 멘토로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열거한 부록 13) 200 을 참조. 이 ‘위험 신호들’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한다.

멘토링을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멘토링을 하는 동안에도 얼마간의 기간은 가정 사역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지도감독(supervision)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49</sup> 탄(Tan)은 정기적인 슈퍼비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50</sup> 그는 좋은 슈퍼비전은 기술 훈련(슈퍼바이저의 가르침이나 세련되고 효과적인 상담 기술과 방법의 본뜨기)과 과정의 논점이나 역동에 대한 토론(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1</sup> 오이코스 리더 부부들을 비롯한 열린문의 모든 소그룹 리더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선발해 평신도 상담자로 준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지도감독해 주기 위해 목회상담학, 임상사회사업,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신학적인 기초를 갖춘 지역사회의 전문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자 한다.

### 제 3 절 실버 사역과 천국 준비 교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7 퍼센트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퍼센트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퍼센트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로 정의한다. 미국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5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에 따르면, 전국 한인 7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2015년 추정치로 전국 한인 가운데 5~17세 연령은 12.8 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sup>349</sup> 엄예선,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463.

<sup>350</sup> Tan, *평신도 상담자*, 149. 임상적 슈퍼비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세 명(슈퍼바이저 한 명에 수련생 두 명), 집단(슈퍼바이저 한 명에 셋이나 그 이상의 수련생), 동료(서로서로 슈퍼비전하는 둘이나 그 이상의 수련생 또는 동료들). 시간과 슈퍼비전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신도 상담 센터는 3 명이나 집단, 동료 구조에서 슈퍼비전을 하고, 필요하면 일대일 슈퍼비전을 보충한다. 그러나 슈퍼비전 시간이 수련생을 위한 치료나 상담 시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sup>351</sup> Ibid., 150.

14.7 퍼센트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반면 65 세 이상은 10.4 퍼센트에서 13.1 퍼센트로 증가했다.<sup>352</sup> 앞으로 이민 한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 교회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실버 사역의 관심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 1. 실버 사역

열린문 교회의 ‘갈렙회’는 68 세 이상 시니어들의 모임으로 매 주일 모임과 성경 공부, 친교를 나누고 있다. 연중 행사로 시니어 소풍, 성경 학교, 연극 관람 및 성탄 초청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VBS)는 ‘갈렙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시니어들을 초청해 여는 행사다. 이틀 동안 예배와 세미나, 노래, 사회복지 특강,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 또 나오미 중찬단을 통해 시니어 아파트 방문 합창사역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도 하고 있다. 이처럼 갈렙회는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실버 사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는 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열린문의 이웃 교회인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 또한 교인 중에 1,300 여 명이 65 세 이상이 시니어이다. 이렇게 시니어들의 비중이 점점 커짐으로 실버 사역이 확대되어 전에는 친교사역원 내의 한 부서로 존재했던 시니어 사역부가 2014년부터는 독립된 시니어 사역원으로 새롭게 조직되었다. 사역원은 행정기획부, 예배 교육부, 사역부, 문화부 등의 4개 부서와 산하 12개 팀을 두고 있는데, 시니어들의 육적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첫째, 건강상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직접 주거지역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하는 “찾아가는 예배(Mobile Church)”가 시작되었다. 6개 아파트의 10개순 단위 별로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역으로 참석자 상당수는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연세가 80 세이 넘는 분들이다. 예배를 마친 후 시니어 사역원 부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거운 담소도 나눈다. 둘째, 시니어들이 좀더 친밀한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신앙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남녀 연령대별로 ‘엘림 자치회’를 조직하였다. 자치

<sup>352</sup> Online: <https://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회에 동참하길 원하는 회원은 자치회 회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조직은 다음과 같다.<sup>353</sup>

<표 23> 엘림 자치회 조직표

남자	생년	여자
로렘나무	1939년 이전	정오의 샘
백향나무	1940-1945년	엔게디 샘
종려나무	1946-1950년	기혼 샘

시니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역은 방문 사역이다. 점점 연로해지면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니어들은 고독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 방문 사역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사역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다.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에서도 시니어 사역의 하나로 한인 독거노인 친구 돼주기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교회는 교회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sup>354</sup> 또 하나의 방문사역으로 점심 식사 배달 사역이 있다. 이미 Wheels On Meals([www.mealsonwheelsamerica.org](http://www.mealsonwheelsamerica.org))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식사 배달 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봉사단체와 연류하여 지역의 식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드리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 2. 천국 준비 학교

최근에는 이민 교회가 펼치는 시니어 사역이 경로대학, 효도잔치 등을 통한 여가 생활 프로그램을 뛰어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2007년에 토론토 영락교회(담임목사 송민호)에서 하이패밀리 주관으로 열렸던 가정 사역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천국 준비 교실”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는 ‘하나님, 천국이 보입니다’이다.<sup>355</sup> 총 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 과를 2회로 나누어 진행할

<sup>353</sup> Online: <https://www.kcpc.org/disciples-column/item/721-disciples-column8>

<sup>354</sup> “노년의 삶, 종교를 다시 생각한다” *뉴욕 중앙일보*, 2009년 10월 6일자, 종교면.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8927](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8927).

<sup>355</sup> 송길원, *하나님, 천국이 보입니다* (서울: 기가연, 2007).

수도 있다.

첫번째 만남에서는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 단계로 ‘인생 점검표’를 만드는 순서를 갖는다. 인생 점검표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은 얼마이며, 그 세월동안 무엇을 보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현재 자신의 나이를 적게 한다. 그 중 잠자며 보낸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등이 얼마나 되는지 각자 적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정도 될 것인지 적게 한다. 이를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진다.<sup>356</sup>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모세의 기도(시편 80 편)와 히스기야의 기도(이사야 38:9-13)를 통해 자신의 생애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과제로 가계도 그리기를 한다. 넓은 종이 위에 가계도를 그린다. 그리고 그 위에 가족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찾아서 이름 위에 붙인다. 이는 부모 세대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편,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후손이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sup>357</sup>

두번째 만남 ‘노인다운 노인이 되는 비결’에서는 시편 7 편 5-9 절과 전도서 12 장 3-5 절 말씀을 묵상하며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 실천 사항으로는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 적어본다. 세번째 만남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에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누가복음 16:19-31)를 묵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나사로와 부자 중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나눔을 가진다. 과제로 유언장 적어오기가 주어진다.<sup>358</sup> 네번째 만남 ‘아름다운 노후를 만드는 비결’에서는 요셉의 죽음과 장례(창세기 50 장)를 묵상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죽음과 그 후를 설계해 놓고 떠났음을 강조한다. 마지막 과제로 죽음 준비를 위해 해 두어야 할 일곱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유언 남기기: 비디오에 담아 둔다. 장례식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sup>356</sup> 송길원, *하나님, 천국이 보입니다*, 9.

<sup>357</sup> *Ibid.*, 9-21.

<sup>358</sup> *Ibid.*, 23-46.

떠난 이후에도 삶의 큰 교훈으로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다. (2) 영정 사진 찍기: 장례식장에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사진이다. 미리 준비해 둔다. (3) 가족들을 용서하기: 용서되지 않은 상처와 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떠난다. 남은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 (4) 감사를 표현하기: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 엽서를 써 둔다. (5) 유산 정리하기: 재산 상속과 기부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6) 약사(略史) 정리하기: 장례식에서 소중한 자료이다. (7) 마지막 헌신: 장기기증 의사가 있다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 둔다.<sup>359</sup>

2011년에 열린문에서 개최했던 가정 사역 컨퍼런스의 선택 강의 가운데 패밀리터치의 “죽음 준비 학교(Death Preparation School)”가 소개되었다. 과거의 나를 되돌아 보고(remember),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하며(renew), 미래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 간다(rebuild)!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열린문의 시니어들을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역이다. 다음은 패밀리터치의 “죽음 준비학교” 강의안 내용이다.<sup>360</sup>

<표 24> 죽음 준비학교 강의안

제 1 단원 나의 삶, 나의 꿈	1 회. 나의 삶 그리고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공부한다.
	2 회. 나의 어제와 오늘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며, 그 속에 담겨있는 과거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노화)와 건강에 대해 공부한다.
	3 회. 나의 꿈, 아름다운 노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나의 꿈과 사명”을 찾는다. 인생을 재설계하여 이에 도전한다.

<sup>359</sup> 송길원, *하나님, 천국이 보입니다*, 47-55.

<sup>360</sup> 김충정, *시니어 사역과 죽음 준비 학교* (강의안; 제 4 회 가정 사역 컨퍼런스, 2011년 3월 28일-29일) 3-5.

제 2 단원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	4 회. 분노와 용서 분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배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
	5 회. 사랑의 관계 기술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말하고 듣는 기술과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배워 성숙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간다.
제 3 단원 마지막 여행을 위한 준비	6 회. 유언장, 유산정리, 사전의료지시서 유언장과 사전의료지시서(Living Will)을 작성한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며 정리해 본다.
	7 회. 나의 장례식 내가 원하는 장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미리 정리해 둔다.
	8 회. 열매맺는 죽음을 위한 마지막 여행 가이드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하고 여행가이드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한다.

죽음 준비 학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킨다. 둘째, 삶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이다. 셋째,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넷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존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죽음 준비교육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기 위해서이다.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둘째, 인간 관계의 회복을 돕는다. 셋째, 죽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후반전 인생을 재설계하도록 도전한다. 다섯째, 구원의 확신과 재점검의 시간을 갖게 한다. 여섯째, 상실로 인한 애도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다. 죽음 준비 학교 커리큘럼은 8-9 주용으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모임을 가진다.

패밀리터치는 이 프로그램을 1년에 두 세 차례씩 개최하면서 의미있는 강의와 활동들을 제공한다. 2016년에 실시했던 “죽음 준비 학교”에서는 “Cookie Therapy”를 접목시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과 감정, 자신의 성격, 욕구와 소망 등을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자가치료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을 통한 발달을 도모했다. 그리고 전문 사진 작가를 초빙하여 스토리가 있는 자연스런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나의 장례식 준비”라는 7번째 강의에는 실제적으로 입관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관 체험은 5명의 시니어들과 1명의 패밀리터치 직원이 참여하였는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같이 영정 사진, 유언장 그리고 조사까지 준비하여 참여하였다. 입관 체험 순서는 먼저 참가자가 자신의 유언장을 읽고 관에 들어가면, 장의사가 하반신 부분의 관 뚜껑을 닫는다. 참가자가 관에 누워있는 동안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 조사를 읽는다. 참가자는 조사의 내용을 듣고 나머지 관 뚜껑을 닫으면, 1분 동안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 입관 체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관에서 두려움보다 도리어 아늑하고 편안했다”며, 또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sup>361</sup>

이처럼 죽음 준비 학교는 시니어 복지 문제가 육체적인(건강, 오락) 만족만 채우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신앙적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을 준비하며 긍정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남은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전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사상이 폭넓게 퍼져 있었다. 성경에서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1-2)라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는 자의 마땅할 바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하여 여유있고 밝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니어들을 돕는 천국(죽음) 준비 사역은 교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다.

<sup>361</sup> “죽음준비학교 입관체험” *아멘넷 뉴스* 2016년 4월 23일.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talk&wr\\_id=858&page=14](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talk&wr_id=858&page=14).

## 제 7 장

### 결 론

열린문교회의 가정 사역은 가정 생활 주기에 따라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특수 목적의 사역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정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혼 청년을 위한 이성 교제 세미나, 결혼을 앞둔 커플을 위한 “두리하나 결혼예비학교,” 신혼 부부를 위한 “태교 교실” 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성경적 부모 교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가 함께 떠나는 주말 부부 여행 “GIFT” 와 주말 데이트 “UNITY,” 그리고 젊은 부부를 위한 “열 번의 데이트” 등이 있다. 또한 특수한 환경의 가족을 위한 다양한 소그룹 치유 모임으로 이혼 가정을 위한 “H2H(Heart To Heart),” 사별 가정을 위한 “GS(Grief and Share),”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를 위한 “가족치유 마음치유” 모임과 같이 공개적인 모임보다는 특별한 환경의 가족이 같이 문제를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치유 그룹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의 교회와 가정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위해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 워싱턴 크리스천 상담 교육원(WCCI), 뉴저지의 패밀리터치, MSG(Mustard Seed Generation) 그리고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와 캘리포니아의 HIS 대학교의 가정 사역자, 사회 복지사, 전문 상담자, 상담학 교수들과 협력 사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합 단체 형태의 장점은 한 개인 목회자가 가정 사역의 모든 분야를 감당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역 형태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 개교회로서는 실행 불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사역자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역 과중으로 인한 탈진을 피할 수 있으며, 각

사역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62</sup>

본 연구자는 이민 교회가 교인들의 가정 문제들을 잘 예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정 사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먼저 제 2 장에서는 가정 사역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이민 가정의 특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정 사역이 단순한 가정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필수 사역으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함께 하는 사역임을 제시했다. 또한 가정이 자녀의 영적 훈련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정신 건강을 위해 부단히 관여할 책임이 있음을 제시했다.

제 3 장에서는 가정의 기원과 기독교 가정의 목적, 모든 가족체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와 이혼과 재혼의 성경적 윤리에 대해 논의했는데,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게 되고, 따라서 가정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원래의 목적과 의미대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임을 제시했다.

제 4 장에서는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모델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였다. 장기적 가정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가정 사역은 돌봄의 사역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돕고 치유하는 회복 사역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섬김의 사역을 실시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 5 장에서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들 가운데 ‘두리하나결혼 예비 학교,’ ‘성경적 부모 교실,’ 부부 주말 여행 ‘GIFT’와 주말 데이트 ‘UNITY,’ 그리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 캠프’를 소개하였다. 프로그램들이 더 나은 부부와 가족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세대간 그리고 가족간의 교제가 교회 전체의 연합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 6 장에서는 열린문 가정 사역원의 미래 사역으로 결혼 예비 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외도 예방 세미나’와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 부부들을 위한 ‘부부의 삶’과 ‘결혼건축가’ 오이코스 모임 그리고 ‘결혼생활 멘토 부부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는 예방 사역

<sup>362</sup> 오제은, “가족을 고려하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119.

(prevention)을 통해 교인들이 아직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는 위기나 문제나 상처들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전에 방지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민 교회가 회복사역 (recovery)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대별, 특성별 가정 사역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교회 안의 지원그룹과 지역 사회의 상담 전문가들과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과 ‘천국 준비 교실’에 대한 연구와 개발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 사역이 전세대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 이민 교회는 더욱더 체계화된 훈련과정으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여 다른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예방과 진단, 치유, 강화의 회복의 사역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재생산되는 가정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교회마다 아동, 십대, 청년, 신혼부부, 중년, 장년, 노년, 등 생애의 특징 있는 부분들을 세분하여 그 시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다. 이민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한 교인들을 바로 키우는 일과 함께 위기와 문제에 부딪힌 교인들을 도와서 해결하게 하고 상처받고 좌절한 교인들을 치료하여 성장케 하는 일도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 부록 1 “가족치유 마음치유” 강의안 요약 (각 과의 주제와 학습 내용)<sup>363</sup>

### 1 회. 오리엔테이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지원그룹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sup>364</sup> 내가 자라온 근원가정이 역기능 가정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역기능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감정표현을 제한한다.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한다. 가정 내의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다.<sup>365</sup>

### 2 회. 자존감의 발견

역기능가정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순기능가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의 감정을 지지해 준다: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해 준다. 자녀들의 감정에 반응한다. 그 감정이 적절한 것일 때에는 자녀들의 감정을 지지해 준다. 자녀들의 감정을 돌보아 준다. 하지만 역기능가정에서 아이의 감정은 중독적(강박적) 성격을 가진 부모의 감정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그 가정은 항상 위기 상황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sup>366</sup>

### 3 회. 충동적 행동의 인식

역기능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충동적 행동을

---

<sup>363</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sup>364</sup> Ibid. 11.

<sup>365</sup> Ibid. 15.

<sup>366</sup> Ibid. 25.

초래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충동적(강박적) 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반복적이며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숨겨진 원인을 가지고 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감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때로는 좋게 느껴지고 때로는 좋지 않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에게 또다른 충동적 행동을 유발시킨다.<sup>367</sup>

#### 4 회.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

역기능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수치심이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마음 속 깊이 느끼는 감정이다. 죄책감이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지만, 수치심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에 대한 것이다.<sup>368</sup>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말한다. 당신에게 상처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열등적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수치심이 당신 자신의 수치심이 될 수 있다.<sup>369</sup>

#### 5 회.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역기능가정이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덟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측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너무 많이 기다린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동시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성취를 통하여 자기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가면을 쓰도록 부추긴다. 영웅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중심이 되는 한두 가족의 감정에 의해 살아간다.<sup>370</sup>

#### 6 회. 너무 일찍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

성인아이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른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아이로 다음의 특성을

<sup>367</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47-50

<sup>368</sup> Ibid., 71.

<sup>369</sup> Ibid., 80-82.

<sup>370</sup> Ibid., 105-108.

가지고 있다: 놀이보다는 계획을 한다. 부모에 의해 양육받기 보다는 부모를 돌본다. 삶 가운데 자신만의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너무 일찍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스스로 돌본다. 현실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관점을 발전시킨다. 자신의 두려움을 혼자서 감내한다.<sup>371</sup> 또한 성인아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린시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인으로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끝나지 않은 “놀이 시간” 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어른으로 여기는 데 갈등을 겪는다. 어린시절의 고통 속에 갇혀 있고 그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거나 부모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아직도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적인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강박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sup>372</sup>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한다. 잃어버린 어린시절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과거에 직면하라. 잃어버린 부분들을 돌아보라. 어린시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을 되살리라.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계발하라.<sup>373</sup>

#### 7 회. 완전주의와 미루는 습관

완전주의의 뿌리는 다음과 같다: ‘좀더’ 라는 메시지,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메시지, 놀지말라는 메시지, 최고가 되라는 메시지.<sup>374</sup> 완전주의를 포기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혼자만의 힘으로 완전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완전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완전주의를 포기하도록 결정하라.<sup>375</sup>

#### 8 회. 고통스러운 기억의 치유

---

<sup>371</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143.

<sup>372</sup> Ibid., 143-144.

<sup>373</sup> Ibid., 148.

<sup>374</sup> Ibid., 165-170.

<sup>375</sup> Ibid., 180.

감추어진 고통스러운 외상적 기억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위험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성인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시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린시절 살았던 집의 어떤 방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있다. 숨겨진 기억을 되살린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았다. 어떤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sup>376</sup> 고통스러운 기억에 치유를 가져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쌓여있는 감정을 풀어놓으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직면하라. 그 기억에 예수님을 초청하라.<sup>377</sup>

#### 9 회. 고통스러운 과거의 유익

역기능가정에서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떠맡게 되는 역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희생양, 잃어버린 아이, 광대, 위로자, 영웅, 반항아, 대리 배우자, 어린 부모, 어린 왕자/공주<sup>378</sup> 고통스러운 과거의 긍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경험으로부터 선한 것을 가져다 주신다. 고통스러운 어린시절은 당신에게 강한 생존본능을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에게 탁월함을 향한 욕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당신이 자신의 아픔에 직면하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379</sup>

#### 10 회. 당신 자신을 용납하라

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어린시절에 형성된 정체감은 역기능적인 가족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이 사람의

<sup>376</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194-197.

<sup>377</sup> Ibid., 205-207.

<sup>378</sup> Ibid., 223-227.

<sup>379</sup> Ibid., 228-238.

능력과 미래에 대해서 대중매체가 말하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당신은 영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sup>380</sup>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롬 8:35-39).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sup>381</sup>

#### 11 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

진정한 용서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용서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괴로움을 주었던 사건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더 이상 당신에게 빛진 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 과거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것.<sup>382</sup>

#### 12 회. 축복으로 나아감

역기능가정이 축복을 왜곡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축복은 항상 손에 닿을라말락 하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축복은 조건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축복은 부분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축복은 어떤 아이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아이에게는 유보되었을지도 모른다.<sup>383</sup>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3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아직도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축복을 찾는 것을 그만두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축복을 찾으라.<sup>384</sup> 그리고 다른 사람과 축복을 나누라.<sup>385</sup>

<sup>380</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245-250.

<sup>381</sup> Ibid., 258.

<sup>382</sup> Ibid. 286.

<sup>383</sup> Ibid. 299-303.

<sup>384</sup> Ibid. 304-309.

<sup>385</sup> Ibid. 314.

13회. 복습과 나아갈 길: 당신은 그동안 소그룹에 참여해 오면서 얼마만한 성장을 경험했는지 평가하고 치유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다.<sup>386</sup>

---

<sup>386</sup>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309.

## 부록 2 “GS(Grief Share) 회복 모임” 강의안 요약 (각 과의 주제와 학습 내용)<sup>387</sup>

1 회. 슬픔을 안고 살아가기(34 분): 이 과에서는 GS 모임 참석자를 소개한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왜 참석자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지 설명해 준다.

2 회. 슬픔의 여정(35 분): 이 과에서는 슬픔의 여정에서 무엇을 겪게 되는지 준비시킨다. 또한 사람마다의 여정이 독특하기에 서로의 경험을 비교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3 회. 슬픔의 영향(29 분): 아마도 참가자들은 슬픔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놀랄 것이다. 이 과에서는 그것을 정상적이며 그런 중에도 위로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준다.

4 회. 배우자와의 사별(40 분): 이 과에서는 사별한 배우자의 남은 배우자가 겪는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사랑하는 이가 없이 직면해야 할 삶의 현실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5 회. 슬픔과 당신의 가족(41 분): 이 과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슬픔 속에 잠겼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아울러 자녀를 잃은 경우의 어려움을 다루어준다.

6 회. 왜요?(39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갖는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과 함께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7 회. 슬픔의 특성 1부(41 분): ‘이 과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사망 원인이나 개인적인 친밀함이 우리의 슬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자살이나 장기투병, 사고, 죄책감등을 다룬다.

---

<sup>387</sup> Church Initiative, *Grief and Share 인도자용 지침서*, 99.

8 회. 슬픔의 특성 2부(38 분): ‘현재나 과거의 관계도 슬픔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에선 민감치 못한 조문자의 문제와 참석자들이 고인과의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다룬다.

9 회.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32 분): 유가족은 너무 많은 조언으로 인해 힘들 수 있다. 아울러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에 대해선 무시하는데, 이 과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

10 회. 슬픔에 간힘(35 분): 슬픔의 여정 가운데 간힘기가 쉽다. 이 과에선 치유의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11 회. 슬픔이 주는 20 가지 교훈들 1부(35 분): 이 과에서는 이전에 슬픔의 여정을 지난 사람들이 슬픔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줄 것이다.

12 회. 슬픔이 주는 20 가지 교훈들 2부(32 분): 이 과에서는 슬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알게 될 것이다.

13 회. 천국(37 분): 이 과에서는 실망스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실제적인 조언을 준다.

### 부록 3 “H2H 회복 모임” 강의안 요약 (각 과의 주제와 학습 내용)<sup>388</sup>

1 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37 분): 도입부로서, “내가 지금 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지체들로 하여금 ‘지원 모임’ 이란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2 회. 치유의 과정-도움 얻기(31 분): 이 과에서는 이혼의 결과로 인해 빚어지는 상실들을 정의하고,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의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들에 관해 제시한다.

3 회. 분노를 직면하기(36 분): 이혼 당사자 둘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 분노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분노를 다루는 건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4 회. 우울증 다루기(32 분): 이혼을 겪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감정이며, 이 과에서는 그 우울증에 건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5 회. 외로움 다루기(35 분): 이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대처하려 하다가 더욱 깊은 고통을 겪게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에서는 외로움을 극복할 건전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6 회. 인생 안내서에 어떻게 쓰여있는가?(35 분): 이 과에서는 별거나 이혼, 또는 재혼에 관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해답들을 찾아서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시한다.

<sup>388</sup> Church Initiative, *이혼가정 회복모임 인도자 지침*, 93.

7 회. 새로운 관계(40 분): 이 과에서는 미숙한 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상처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돕는다.

8 회. 경제적으로 생존하기(35 분): 이혼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존하는 방법과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금전적 이슈들을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9 회. 자녀문제(37 분): 이 과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되는 영향을 부모가 이해하도록 도우며, 홀부모로서의 효과적인 자녀양육법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된다.

10 회. 독신자의 성문제(36 분): 특별히 중요성을 띠는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과 성적 충동과 욕구를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토론한다. 다시 싱글이 되어도 성적으로도 어렵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11 회. 용서(34 분): 이혼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에서는 용서 없이는 치유도 없음을 보여준다.

12 회. 화해(41 분): 이 과에서는 이혼후 화해의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정리하고, 화해할 의도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에서조차 화해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13 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38 분): 이 과에서는 이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 부록 4 SR 배우자 학대지수: 당신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sup>389</sup>

이 질문지는 지금 당신의 생활 상황이 학대 상황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학대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한 사람이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를 전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는 당신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마다 해당하는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질문에 답한 후에 점수 합계를 내고, 당신의 점수와 학대지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잠재적으로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학대당하고 있다면 그 학대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주 그렇다                      2 때때로 그렇다  
1 거의 안 그렇다                0 전혀 안 그렇다.

- ( ) 1. 배우자가 당신의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항상 시간을 확인하게 하는가  
(심부름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 출근할 때 등)?
- ( ) 2. 당신이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비난하거나 당신을 의심한 적이 있는가?
- ( ) 3. 당신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있는가?
- ( ) 4. 다른 동성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게 방해한 적이 있는가?
- ( ) 5.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 ( ) 6. 당신의 일상적인 것, 요리, 의상, 외모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가?
- ( ) 7.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엄격한 계산을 요구하는가?
- ( ) 8. 배우자의 기분상태가 매우 고요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 ( ) 9. 배우자는 당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가?

<sup>389</sup> Martin, *가정폭력과 학대*, 66-67.

- ( ) 10. 배우자는 술을 마실 때는 더 쉽게 분노하는가?
- ( ) 11.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자주 성 관계를 요구하는가?
- ( ) 12. 성 관계를 거절 할 때 배우자는 자주 화를 내는가?
- ( ) 13.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는가?
- ( ) 14. 자녀를 낳는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가?
- ( ) 15.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당신을 친 적이 있는가?
- ( ) 16. 어떤 물건이나 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
- ( ) 17. 어떤 물건이나 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
- ( ) 18.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당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가?
- ( ) 19. 눈에 띄게 상처(예, 매 자국, 멍, 벤 자국, 머리의 혹)을 입힌 적이 있는가?
- ( ) 20.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 상처를 응급 처치한 적이 있는가?
- ( ) 21. 상처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응급실을 찾아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는가?
- ( ) 22. 당신에게 성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뜻에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는가?
- ( ) 23.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 ( ) 24. 밖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 ( ) 25. 분노를 했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깨버린 적이 있는가?
- ( ) 26.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는가?
- ( ) 27. 당신이나 가족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경찰에 전화했거나 전화하려 했던 적이 있는가?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이 합계 점수가 당신의 학대 지수 점수가 됩니다.

120-94 대단히 위험한 학대 관계    93-37    심한 학대관계

36-15    보통의 학대관계                      14-0    전혀 학대적이 아닌 관계

## 부록 5 Are You a **Victim**?<sup>390</sup>

Quiz: How Is Your Relationship? Does your partner:

- **V**erbally insult, demean or threaten you?
- **I**solate you from friends, family or other people? Do they become excessively jealous, possessive and/or angry in attempt to control you?
- **O**rganize schedules to follow or harass you?
- **L**imit your mobility or access to money and/or other resources?
- **E**xplode into a rage and abusive behaviors after using drugs and/or alcohol?
- **N**egate your words, abilities, ideas and actions?
- **C**hoke, punch, slap, kick, pull hair, bite, throw things, abuse or damage your personal belongings or force you to have sex?
- **E**xcuse each attack and promise to stop?

If you answered "yes" to some of these questions, you may be in an abusive relationship.

However, you are not alone. Whether you need information, support, or a safe place to stay, the Office on Women's Domestic Violence Program has people who can help.

---

<sup>390</sup> "Are You a Victim?" A poster issued by Alexandria, VA. Online:<http://alexandriava.gov/DomesticViolence>

부록 6 Worksheet for Safety Plan<sup>391</sup>

## 1. 구타가 일어날 경우

- A. 내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나는 \_\_\_\_\_로 갈 것이다. 만약 거기로 갈 수 없다면 \_\_\_\_\_로 갈 것이다.
- B.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 연습한다. 어느 문, 계단, 비상구로 나갈 것인가?
- C.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나는 지갑/돈/신분증/차와 집 열쇠 등을 \_\_\_\_\_ 숨겨 놓을 것이다.
- D. 나는 믿을 만한 두 사람 \_\_\_\_\_와 \_\_\_\_\_에게 폭력에 대해 미리 말해 놓고 긴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E. 나는 아이들이 경찰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시켜 놓는다.
- F. 나는 \_\_\_\_\_를 나의 암호로 지정하여 아이들이나 친구에게 위험을 알려야 할 때 사용할 것이다.
- G. 만약 가해자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면 나는 안전한 장소인 \_\_\_\_\_로 움직이려 시도할 것이다.(화장실, 창고, 밖으로 나갈 출구가 있는 방 등)

## 2. 구타를 피해 떠나려고 준비할 때

---

<sup>391</sup> 전명희, *가정폭력 예방 가이드북* (워싱턴 한인 봉사 센터, 2006), 96-97.

- A. 나는 돈과 여분의 열쇠를 \_\_\_\_\_에 놓아두어 내가 갑자기 떠나야 할 때 대비한다.
- B. 나는 중요한 문서들의 사본을 \_\_\_\_\_에 놓아둘 것이다.
- C. 나는 은행계좌를 열어두어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D.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나는 \_\_\_\_\_ 것들을 준비해 두겠다.
- E. 나는 \_\_\_\_\_와 \_\_\_\_\_에게 연락하여 일시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긴급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F. 나는 여분의 옷을 \_\_\_\_\_에게 맡겨 두겠다.
- G. 나는 나의 안전계획을 연습하고 만약 적절하면 아이들과도 연습을 하겠다.
3. 내 집에서의 안전계획
- A. 나는 문과 창문의 고리와 자물쇠를 \_\_\_\_\_(언제)까지 빨리 바꾸겠다.
- B. 나는 안전경고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고 창문이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
- C. 나는 문밖에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누가 오더라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 D. 나는 아이들의 학교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_\_\_\_\_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_\_\_\_\_와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 \_\_\_\_\_를 알려줄 것이다.

## 부록 7 두리하나 결혼 예비 학교 강의안

### 2회 만남: 부부의 친밀감

두 번째 만남을 가지기 전에 상담 목사가 커플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한다. 개별 상담을 이 필요한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5번의 만남에서 특별히 다루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불편했었던 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부부들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 검사를 모임 전까지 해오도록 한다.

가. 목표: 부부의 4가지 친밀감에 대해서 알게 한다.

나. 도입: 첫 번째 만남에서 다루었던 ‘배우자를 배우자!’ 강의와 나눔을 통해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에 대해서 10분 정도 나눔을 가진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읽는다. 이제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의존하는 데서 과감히 떠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만큼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준 부모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된다.<sup>392</sup>

다. 강의와 토론(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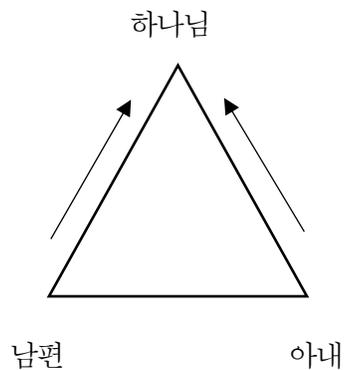
인류 첫 남자와 첫 여자의 삶에 대해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창 2:25).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서로를 향하여 완전히 개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준다고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다.<sup>393</sup> 결혼에서의 진정한 친밀감은 육체적 친밀감 이상의 것이다. 결혼에서 ‘한 몸’ (one flesh) 관계는 부부의 영혼과 육이 하나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친밀감은 영적, 지적,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p>392</sup> 결혼식 피로연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액자에 담아 선물로 드리게 한다.

<sup>393</sup> Chapman, *언약결혼*, 246.

## (1) 영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안정감이나 자부심, 중요성과 같은 기본 욕구를 채우는 것을 말한다. 크랩(Crabb)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격적 필요를 다음과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주장한다.<sup>394</sup> 첫째, 인격적 필요의 실재를 무시하고 대신 육체적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 둘째, 참된 안전감과 중요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취, 부, 명예 등을 통해 가짜 만족을 얻으려 한다. 셋째, 안전감과 중요감을 배우자에게서 찾는다. 그 결과 자신의 인격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조작적 관계가 나타난다.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상대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 주기에 완전히 적합한 자는 없으므로 이런 착취 관계는 반드시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영적 친밀감은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 주는 분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밀감의 결과는 하나 됨, 즉 연합이다. 부부의 영적 친밀감은 삼각형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 부부의 영적 친밀감<sup>395</sup>

삼각형의 꼭짓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위에 계신 하

<sup>394</sup> Crabb, *결혼건축가*, 66.

<sup>395</sup> Chapman,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 가지 포인트* 19.

남께로 각자 나아가야 한다. 남편과 아내 둘다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 남편과 아내만 있는 2자 관계로 서로 친밀감을 요구하다 보면 곧 에너지가 고갈되어 불만을 갖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sup>396</sup>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채프먼(Chapman)은 영적인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5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했다.<sup>397</sup> 첫째, 부부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야기를 해야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비 부부들과 채프먼(Chapman)이 제시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목록을 나눈다.<sup>398</sup> (1)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일주일에 한번 같이 나눈다. 왜 그 구절이 인상이 깊었으며, 그 구절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야기 한다. (2) 예배에 참석한 후에는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 가지씩만 서로 나눈다. (3) 신앙 생활에 관한 책 한 권을 선택한다. 서로 번갈아 읽으면서 한 장씩 읽을 때마다 느낀 점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눈다.

둘째, 함께 하는 기도와 배우자를 위해 개인 기도를 한다. 예비 부부들에게 스토포미 오마산의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기도 모음집을 선물로 준비한다.<sup>399</sup> 셋째,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에 참석한다. 영어가 편한 커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도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www.multiplymovement.com](http://www.multiplymovement.com) 의 방문을 강력히 추천한다. 넷째, 함께 섬기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봉사를 부부가 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성가대 봉사를 하는 시간에,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다.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은 일에 봉사를 한다면 부부 사이의 영적인 친밀감이 훨씬 증진된다는 것을 예비 부부들에게 권장한다. 결혼 예비 상담을 마친 뒤 예비

<sup>396</sup> 이기복, *예비부부와 기혼부부를 위한 결혼코칭*, 154.

<sup>397</sup> Chapman, *언약 결혼*, 331-346.

<sup>398</sup> Ibid., 332.

<sup>399</sup> Omartian,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기도모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기도모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부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커플들이 많았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한다. 부부가 함께 봉사도 하고 영적인 친밀감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sup>400</sup> 행복한 결혼생활 세미나에 참석한다. 제자훈련을 받는다. 선교 사역에 자원한다. 교회를 짓거나 보수 공사에 참여한다. 전도사역을 담당한다. 구제사업에 참여한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를 상담해준다.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해준다.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어린아이들을 대신 돌봐준다.

영적 친밀감에 대한 실습으로, ‘사랑의 언어 365’ 1장 ‘변함없는 사랑의 시작’을 함께 읽은 뒤 10분 정도 나눔을 가진다.<sup>401</sup>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를 하게 한다. 예비 부부들 가운데는 아직 자신은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참가자들이 있다. 스토포미 오마산의 기도모임에 나오는 맨 처음 기도문을 서로에게 읽어 주도록 한다.

## (2) 지적 친밀함

지적인 친밀감은 부부가 마음속의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한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배우자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배우자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받는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부부가 대화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어떤 말을 꺼냈을 때 배우자의 반응이 어떠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받아주는 자세는 지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본이다.<sup>402</sup> 대화의 유형과 적극적인 경청 기술에 대해서는 세 번째 만남, Prepare-Enrich 의사 소통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sup>400</sup> Chapman, *언약 결혼*, 344.

<sup>401</sup> Gary Chapman, *사랑의 언어 365*,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2010). 커플들 가운데 영어가 편한 예비 배우자가 있을 경우 *The One Year Love Language Minute Devotional*(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을 읽게 한다.

<sup>402</sup> Chapman, *언약 결혼*, 286.

### (3) 정서적 친밀함

정서적 친밀감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감정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이 형성된다. 채프먼(Chapman)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욕구는, 내가 잘되기를 배우자가 바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욕구는 나의 지력, 능력, 인격, 성격에 대해서 배우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욕구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배우자가 알아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부가 서로 이런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잘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친밀해진다는 것이다.<sup>403</sup>

결혼을 통해 부부는 이러한 친밀감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 받기 원한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갈망하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채프먼(Chapman)은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이 사랑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5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저술했다. 예비 부부들에게 ‘5 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한 후, 검사를 한다.<sup>404</sup> 가장 높은 점수가 제 1의 사랑의 언어이다. 한 가지 점수가 다른 것들보다 높다고 해서 나머지 언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 나머지 언어들 중 하나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와 상대방의 언어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말할 때 얻는 유익은 둘 사이의 유대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이해가 증진되며, 결국은 둘 사이의 사랑이 커질 것이다.<sup>405</sup>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서로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

### (4) 성적 친밀감

<sup>403</sup> Chapman, *언약 결혼*, 265.

<sup>404</sup> Chapman, *5 가지 사랑의 언어*, 231-249. 예비 신랑용과 예비 신부용을 따로 준비해 둔다.

<sup>405</sup> Chapman, *언약 결혼*, 237.

성(sex)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은 좋은 것이다. 채프먼(Chapman)은 결혼은 명예로운 관계이며,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린다.<sup>406</sup>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는 가장 만족스런 성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틀(Stott)의 결혼에 대한 정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그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지는 독점적인 이성간의 약속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보증하셨으며 그에 앞서 공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고 성교로서 완성되며 서로를 받쳐주는 영원한 협력관계를 낳고 일반적으로 자녀를 선물로 받음으로 영예를 얻는다” 는 것이다.<sup>407</sup>

결혼 예비 상담을 하면서 혼전 성 경험과 임신을 한 커플들을 만나게 된다.<sup>408</sup> 이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커플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지 확인한다. 과거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 자유함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하게 한다. 예비 부부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절제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약속의 시간을 가진다. 다음은 보다 큰 기쁨과 깊은 친밀감을 위해 서로를 지켜 주기 위한 순결 서약서의 내용이다.<sup>409</sup>

#### 순결 서약서(Vow of Purity)

순결은 언제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백합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과

<sup>406</sup> Chapman, *언약 결혼*, 294.

<sup>407</sup> John Stott, *결혼과 이혼*, 김원주 역.(서울: 두란노, 1991), 15.

<sup>408</sup> The Barna Group, "Born Again Adults Less Likely to Co-Habit, Just As Likely to Divorce," *The Barna Update* (6 August 2001):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www.barna.org> 2001 년 조사에서 바나 그룹은 거듭난 성인들의 혼전 동거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약간 낮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성인 중 33 퍼센트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여러 이성과 동거한 경험이 있다. 그중 그리스도인은 25 퍼센트로 조사되었다.

<sup>409</sup> 딱딱한 형식의 문구보다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있는 서약서를 만들어 준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결혼하는 그 날까지 오래 참는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순결과 정신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합  
 니다.

#### 라. 숙제와 마무리

Prepare-Enrich 온라인으로 검사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트하는 동안 서로의 사랑  
 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한다.

- 인정하는 말: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준다. 기회가 있다면  
 양가 부모나 친구들 앞에서 그를 칭찬한다. 예비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부모님도 좋은 사위/며느리 얻었다고 기뻐하는 갑절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
- 함께 하는 시간: 함께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말해 보게 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매달 한 가지씩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를 물어본  
 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자를 보낸다. “이 번 주에는 당신이 말한 그곳에서 데이트  
 합시다. 언제가 좋을지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 줘요.”
- 선물: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한다. 특별한 주간이 아니어도 된다. 단언하건대 그  
 주가 ‘특별한 주’ 가 될 것이다. ‘선물 아이디어 노트’ 를 만든다. 예비 배우자가  
 ‘이 선물 맘에 들어.’ 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해 둔다. 잘 들으면 선물로 줄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
- 봉사: 예비 배우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주기 원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달라  
 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 달라고 한다. 그것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사랑의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매일의 일과 계획에 그것을 집어넣는다.  
 ‘작은 일’ 이지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육체적 접촉: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들어갈 때 예비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  
 데이트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면, 평소보다 한걸음 빨리 나가 반갑게 맞이한다. 기도

할 때 손을 잡아 준다. 중요한 것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작은 ‘접촉 경험’을 하게 한다.

### 3회 만남: Prepare-Enrich 의사소통

회기 전에, 모든 커플들이 검사를 마쳐야 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pdf 파일로 된 검사 결과를 커플들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상담자용 보고서는 커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sup>410</sup> 커플에게는 커플용 보고서를 제공한다. 커플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활기찬 커플’은 일반적으로 그들 관계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스러워하며,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을 잘 한다. ‘조화로운 커플’ 역시 대부분의 그들 관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인다. ‘전통적인 커플’은 흔히 서로에게 매우 헌신적이지만,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기술이 부족하다. ‘갈등있는 커플’은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흔히 그들의 여러 영역에서 갈등을 빚는다. ‘활기 없는 부부’는 매우 불행하다고 느끼며 거의 모든 관계 영역에서 개선이 요구된다.<sup>411</sup>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 27쌍의 검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커플이 행복한 커플에 분류되었다. 활기찬 커플 12쌍, 조화로운 8쌍, 전통적인 커플 5쌍이었다. 갈등있는 커플 2쌍이었다.<sup>412</sup>

가. 목표: 자기 표현과 적극적인 경청 기술을 익힌다.

#### 나. 도입

지난 주 예비 배우자가 준비한 ‘사랑의 언어’를 받았을 때의 느낌과 감동에 대해 나눈다. 그리고 Prepare-Enrich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관계 강점 영역 및 성장 필요 영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관계 강점 영역은 커플 사이에 서로 동의하며 긍정적인

<sup>410</sup> 상담자 보고서는 Prepare-Enrich 공식 상담사 또는 훈련된 멘토 커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sup>411</sup> Olson, *커플 체크업*, 48-53.

<sup>412</sup> Ibid., 48. 데이비드 올슨 연구팀에 의하면, 기혼 부부의 경우 ‘활기찬 부부’ 18 퍼센트, ‘조화로운 부부’ 24 퍼센트, ‘전통적인 부부’ 17 퍼센트, ‘갈등 있는 부부’ 22 퍼센트, ‘활기 없는 부부’ 19 퍼센트이다.

부분들이고, 성장 필요 영역은 서로 불일치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각각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다음의 항목들 가운데 예비 배우자와 서로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영역을 확인한다.<sup>413</sup>

- 의사소통: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한다
- 갈등 해결: 우리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 파트너 유형과 습관: 우리는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을 인정한다
- 재정 관리: 우리는 예산과 재정 문제에 서로 동의한다
- 여가 활동: 우리는 혼자나 함께 하는 활동에 균형이 있다
- 성과 애정표현: 우리는 애정표현이나 성 생활에 대해 편히 얘기할 수 있다.
- 가족이나 친구들: 우리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
- 역할: 우리는 책임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동의한다
-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문제들에 서로 동의한다
- 영성(가치관): 우리는 서로 비슷한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커플끼리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돌아가면서 관계 강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장 필요 영역도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다음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룹토의를 한다.

- 예비 배우자의 반응이 당신에게 의외였던 것이 있었나요?
-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잘 일치했나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불일치했나요?

#### 다. 강의와 토론(실습)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구별해 주는 가장 강력한 영역은 의사소통이다. 행복한 부부들은 파트너의 격려와 위로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며, 중요한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능력에 만족한다. 또한 파트너의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 그리고 파트너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만족한다.<sup>414</sup>

<sup>413</sup> Olson, *커플 워크북* (Life Innovations, 2007) 4.

<sup>414</sup> Olson *커플 체크업*, 47.

(1) 자기표현(assertiveness)<sup>415</sup>: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표현이란 참으로 귀한 대화의 기술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두 사람이 모두 자기표현을 하는 편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들은 서로가 분명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 요구한다. 자기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들은 “당신은” 이란 말로 시작하기를 피한다.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서 그들은 대화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다. 그들이 각자 다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곧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친밀감이 증가된다. 자기표현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분 좋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며 개인적인 목표를 이를 확률이 높다. (예) “난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내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 적극적인 경청(active listening)<sup>416</sup>: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고 말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들은 바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훌륭한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어야 한다. 적극적인 경청의 과정에는 말한 사람이 자신이 말한 바의 내용이나 감정이 분명히 이해되었는지의 여부를 알도록 재진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경청은 판단이나 비난을 피하고 배우자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대신, 잠시 후엔 자기도 말할 차례가 주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말한 내용을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 (예)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우리끼리 함께 하는 시간도 좋지만,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는 것 같군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잡길 원하는 거죠?”

---

<sup>415</sup> Olson, *커플 워크북*, 5.

<sup>416</sup> Ibid.

(3) 대화 실습(소원 목록 만들어 교환하기)<sup>417</sup>: 이 실습에서는, 자신의 예비 배우자가 더욱 자주 해주기를 바라는 ‘소원의 목록’을 만든다. 그런 후, 서로의 목록을 상대방에게 전해준다. 예비 배우자와 소원 목록을 나눔으로써, 자기표현의 기술과 적극적인 경청의 기술을 보여주게 된다.

#### 라. 숙제와 마무리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과 사랑에 관한 25가지 비현실적인 기대’를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표시해 오게 한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관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18</sup> ‘기대(주 안에 우리 하나)’ 송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1. 우리 결혼 후 큰 문제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
2.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서 낭만적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4.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5. 나의 배우자는 내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진실한 영혼의 짝이다.
6. 우리는 이전의 내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7. 우리는 이전의 내 가정에서 했던 것은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다.
8. 우리 재혼 가정은 늦게 핀 한 다발의 꽃처럼 살 것이다.
9. 우리 재혼 가정은 어느 다른 가정과 같을 것이다.
10. 우리 모든 일에 대해 동의(해야) 할 것이다.
11. 우리의 관계는 아기가 태어나면 더 좋아질 것이다.
12. 누군가 책임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고쳐질 것이다.
13. “당신은 나의 부족한 \_\_\_\_\_ 부분을 메꾸어 줍니다.”

<sup>417</sup> Olson, *커플 워크북*, 6.

<sup>418</sup> David H. Olson and Peter J. Larson, *약혼 커플 토의 지침* (Life Innovations, 2006), 16.

14. 내 배우자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며 내게만 신경을 써줄 것이다.
15. 참된 사랑이라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거야.
16. 내가 무엇인가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17. 어떤 것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없다.
18.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19. 결혼하고 나면, 내가 싫어하는바 배우자를 변화시키기가 쉬울 것이다.
20. 내 배우자는 항상 동일할 것이다.
21. 내 배우자의 성에 대한 관심은 나와 동일할 것이다.
22. 우린 대단한 성 생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쉽고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23. 우리의 첫날밤과 신혼여행은 가장 놀라운 성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24. 난 배우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다.
25. 난 결혼 전 어려움들은 결혼 후엔 자연스레 사라지리라 믿는다.

#### 4 회 만남: Prepare-Enrich 갈등문제

결혼 예비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은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갈등은 나쁜 것인가? 갈등은 결혼 생활의 일부일까? 갈등은 모두 해소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 갈등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프리젠(Friesen)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서로 다르게 창조된 존재의 일부로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sup>419</sup> 모든 커플은 서로간에 차이와 불일치한 면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적음 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혼생활의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복한 커플들은 갈등이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존중을 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의 관계를 한결 튼튼하

---

<sup>419</sup> Friesen, *결혼상담*, 118.

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420</sup>

가. 목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찾는다

나. 도입

예비 부부들과 ‘결혼과 사랑에 관한 25 가지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비현실적인 기대의 목록 가운데 가장 믿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나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기대가 비현실적인지에 대해 그룹이 함께 토의를 한 뒤, 상담자는 예비 부부들에게 기대에 대한 세 가지 함정들을 소개한다. 첫째, 커플들은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헐리웃이나 사랑의 노래, 대중 문화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장하고 로맨스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셋째, 커플들은 서로의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기대치를 표현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른다. 불일치 혹은 거절을 받을 수도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대치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실망과 상처, 분노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21</sup>

다. 강의와 토론(실습)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기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부부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거짓말 중 하나이다. 갈등은 인간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다. 사람은 서로 다르며, 언제나 조화로울 수는 없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다루면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sup>422</sup>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잘 해결하면서 산다는 데 동의한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에

<sup>420</sup> Olson, *커플 워크북*, 11.

<sup>421</sup> Olson, *약혼 커플 토의 지침*, 15.

<sup>422</sup> Olson *커플 체크업*, 94-95.

도 서로의 의견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sup>423</sup>

예비 부부들에게 채프먼(Chapman)의 ‘병든 대화기술 4 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모든 종류의 병든 대화 뒤에는,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갈망이 숨어 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발버둥도 숨어 있다. 이런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깨어지게 된다. 부정적인 대화들의 패턴을 4 종류의 새로 비유할 수 있다.<sup>424</sup>

- 비둘기<sup>425</sup>: 이 유형은 상대방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무조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아”라는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라고 늘 말한다. 비둘기 남편(아내)들은 항상 배우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배우자가 불편해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다. 비둘기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거의 모든 일에 배우자의 의견을 따른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음의 평화만을 유지하겠다는 배우자는 결국은 혼자 남게 된다.

- 매<sup>426</sup>: 이 유형은 배우자에게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으며,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늘 “당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잖아”라고 말한다.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멍청해요.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 같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당신 같았으면, 그렇게는 안 해”라고 주장한다. 수많은 비난을 퍼붓는 매의 특징은, 항상 비난만 한다는 것이다. 즉,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긍정적인 시도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참조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가족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내뱉을 뿐이다.

- 올빼미<sup>427</sup>: 이 유형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상징이다. 이러한 사람은

---

<sup>423</sup> Olson, *커플 체크업*, 48.

<sup>424</sup> Chapman, *언약결혼*, 84-94.

<sup>425</sup> Ibid., 84-85.

<sup>426</sup> Ibid., 86-87.

<sup>427</sup> Ibid. 88-89.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배우자가 싫은 소리를 해도 전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논리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이런 배우자를 대하면 인간을 대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컴퓨터를 대하는 것 같다. 올빼미형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조용하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다. 너무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도저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게 만든다. 올빼미형 인간의 속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가져다 주는 안정성을 믿고 있다. 반대로 감정을 다루는 데는 미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감정적인 면을 노출시키지 않고 지적인 것으로 덮어서 감추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빼미형 인간은 감성지수를 높이는 일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

- 타조<sup>428</sup>: 이 유형은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타조는 적이 공격을 해오면 모래에 머리를 쳐 박고 적을 보지 않는다. 타조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무시해버린다. 타조형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마치 돌덩어리처럼 무반응이다. 배우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대다수의 타조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진지한 논쟁을 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일단 피하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남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의 대화방법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부모의 대화방식을 살펴보면 자신의 대화방식을 알아낼 수 있다. 나의 대화 패턴은 어떤 유형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만약 부모와의 대화 패턴과 다르다면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도 나눈다.

예비 부부들과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황극을 만든다. 예

---

<sup>428</sup> Chapman, *언약 결혼*, 89-91.

를 들면, 부부 중 청소를 누가 할 것인가,<sup>429</sup> 명절 때 친정과 시댁의 방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등이다. 예비 부부들이 하고 싶은 주제나 스토리로 정할 수 있다. 상황극을 마친 후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상황 대처법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점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남녀 역할을 바꾼 상황극을 진행한다. 전의 상황극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받았던 느낌과 새롭게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 나눈다. 이러한 상황극을 실제로 시행해보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른 예비 부부들의 대처 방안을 보며 상황극을 통한 공감과 다름을 깨달을 수 있다.

결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깨진다. 의사 소통의 결여, 양육 방식의 차이, 재정 지출의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마다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은 ‘불공평하다’ 라는 느낌이다. 여러 이혼들의 배후에 자리잡은 실제 이유는 한쪽 배우자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공평하게 함께 나누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리젠(Friesen)은 부당한 느낌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sup>430</sup> 채프먼(Chapman)도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고 한다.<sup>431</sup>

문제 부부의 가장 흔한 불평은 상대방이 의미 있는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는 부당함이나 불공평함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큼이나 불공평하다고 비난을 받는 배우자도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이에 프리젠(Friesen)은 신혼 부부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으로 리사 엔겔하르트(Lisa Engelhardt)의 ‘부부 싸움에 대한 열 가지 계명’ 을 제시한다.<sup>432</sup>

<sup>429</sup> Olson, *커플 체크업*, 202-203. 남편이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것을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한다는 사실은 부부간의 불평등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의 체계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은 그 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동반자 관계이다. 예비 부부들에게 집안 일과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균형과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sup>430</sup> Friesen, *결혼상담*, 140.

<sup>431</sup> Chapman,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 가지 포인트*, 80.

<sup>432</sup> Friesen, *결혼상담*, 141-142.

- 약속을 하라. 시간과 장소는 두 당사자끼리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에베소서 4:26).
- 진짜 문제를 털어놓으라. 논쟁을 벌이는 진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a)상처를 주는 행동 + (b)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 + (c)그것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털어놓으라.
- ‘나’ 라는 진술을 사용하라. ‘나’ 라는 진술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중립적, 비판단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게 한다.
-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우리는 언제나 이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우리는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 들으라. 싸우는 문제에 귀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발견하기 위해 의자 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 자신을 웃기라. 갈등의 한복판에서 웃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유머는 우리로 하여금 둘 사이의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든다. 웃음은 긴장과 위협감을 갖춘다. 그렇지만 조심하라. 유머와 냉소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다.
- 안정을 유지하라. 갈등이 격해지면, 처음의 문제들을 반복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싸움이 불가피할 것 같으면, 휴전을 청할 필요도 있다. 나중에 서로 동의한 시간으로 이야기를 미루라.
- 창조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제시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계획을 짜서 사용하고 평가하라.
- 약속을 맺으라. 하나님은 언약-갈등의 끝, 화해,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갈등이 해결된 뒤에는 약속을 마무리짓는 태도를 취한다. 필요하다면 사과하라.
- 사랑으로 잊고 친구가 되라. 우리의 용서는 끝이 없다. 우리가 상처를 털어 내려고 애쓰는 만큼 용서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사랑, 존중, 그리고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생산적인 대결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부부 싸움에 대한 열 가지 계명’에 제시된 개념들은 부당함이나 불공평함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부부 갈등에도 도움이 된다. 예비 부부가 함께 ‘부부 싸움 열 가지 계명’을 만들도록 한다.

#### 라. 숙제와 마무리

고트만(Gottman)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들 가운데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라’를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두었다.<sup>433</sup> 그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은 사랑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폭풍에 휩쓸렸을 때에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강한 힘을 부여해준다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한 상세한 애정 지도를 갖고 있는 부부는 역경에 처하거나 충돌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예비 부부들에게 ‘애정 지도 테스트’를 숙제로 내준다.<sup>434</sup> 다음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당신은 자신의 애정 지도의 수준을 한 눈에 알 수가 있게 된다.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정확히 알기 위하여 예비 부부가 함께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 바란다. 다음 각 문장을 읽고 ‘예’나 ‘아니오’로 표시를 한다.

- 예비 배우자의 친구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가 현재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 최근에 예비 배우자의 신경을 몹시 곤두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의 인생의 꿈을 몇 가지 들 수 있다.

<sup>433</sup> Gottman,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36. Gottman은 자신의 부부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이 ‘행복한 결혼은 부부의 깊은 우정으로부터 성립된다.’는 간단명료한 진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정이란, ‘부부가 협동 생활자로서 서로 존경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친밀하게 알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나 버릇과 인생에 대한 희망이나 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일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sup>434</sup> Ibid., 88-90.

- 예비 배우자가 가진 종교에 대한 믿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제자매 또는 친척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가 좋아하는 영화를 3편 들 수 있다.
- 예비 배우자는 내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가 이제까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을 3가지 이상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가 어렸을 때 경험한 가장 괴로웠던 일을 말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의 인생에서 최대의 소망과 꿈을 말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예비 배우자는 내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쪽이 복권으로 큰 돈을 타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 예비 배우자와 만났을 때의 첫인상을 자세히 말할 수 있다.
- 나는 주기적으로 예비 배우자의 주변 일들에 대해 듣고 있다.
- 나는 예비 배우자가 나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 예비 배우자는 내 소망과 희망을 알고 있다.

채점: 예' 를 1 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

10 점 이상: 당신들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예비 배우자의 일상 생활, 두려움, 꿈에 대해서 꽤 상세한 '애정 지도' 를 가지고 있다.

10 점 미만: 당신들의 결혼 생활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아마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던가, 서로 화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지도 모른다.

5 회 만남: Prepare-Enrich 친밀성과 유연성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은 우리의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결정하고, 가족의 가치

관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경험은 결혼관과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일과 여가, 교육, 돈, 정치, 종교 등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가족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가. 목표: 원가정에서 경험한 친밀성과 유연성에 대해 알고, 커플 관계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운다.

#### 나. 도입

먼저 예비 부부들과 ‘애정 지도 테스트’ 결과에 대해 나눔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자신을 예비 배우자에게 소개한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직하게 답변하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정을 돈독하게 해주는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은 고트만(Gottman)이 제시한 ‘나의 공적과 노력’에 관한 질문들이다.<sup>435</sup>

-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해냈다!’고 생각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때까지의 고생과 노력, 고뇌 그리고 스트레스나 피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 이 일을 성공함으로써 당신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변했는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의 정도가 변했는가?
- 그 자랑스러움(자랑하고 싶은 마음, 칭찬받았을 때의 기분, 다른 사람을 칭찬한 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sup>435</sup> Gottman,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99-100.

-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가? 그들이 어떤 형태로 사랑을 표현했는가? 당신이 자라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주 애정 표현을 했는가? 만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미래의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당신의 결혼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비 배우자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의 역할과 긍지를 이해하는가?

상대방이 자기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다. 배우자를 더 잘 알고, 배우자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이다.

#### 다. 강의와 토론(실습)

Prepare-Enrich 커플 보고서에 보면, 친밀감과 유연성의 지도를 표시하는 커플지도와 원가정의 가족지도가 나온다. 이 지도는 예비 부부의 원가정이나 현재의 관계를 묘사하거나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데 도움이 된다.<sup>436</sup> 예비 배우자가 성장하면서 보거나 경험한 것이 현재의 기대치를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또한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정이 한 가족관계로 연합해가는데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 (1) 친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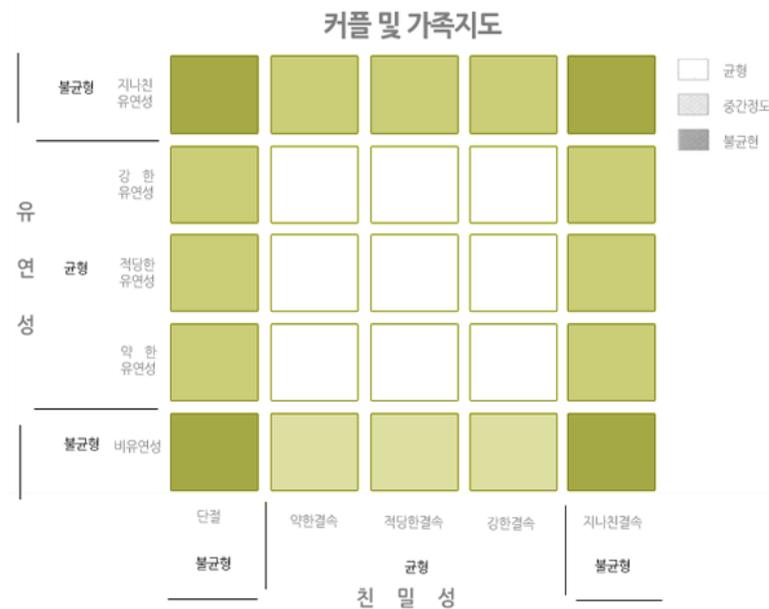
친밀성이란 예비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과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말한다.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분리됨(독립)과 함께함(연합)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sup>437</sup>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과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춘다. 이러한 커플과 가족은 가족이 함께 서로 의지할 뿐만 아

<sup>436</sup> Olson, *커플 워크북*, 25.

<sup>437</sup> Ibid.

나라 각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일을 잘한다.<sup>438</sup> 연합과 분리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커플사이에서나 가족 간에 친밀성을 갖는데 열쇠와 같다. 비록 때로는 단절된 상태(지나친 독립)나 지나친 친함(지나친 결속)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을 향해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sup>439</sup> 균형은 가족 구성원이 분리와 연합을 쉽게 오가며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의 <그림 5>는 친밀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단절된 관계로부터 결속된 관계, 가장 높은 단계인 지나친 결속의 단계까지 나뉜다.

<그림 5> 커플 및 가족지도<sup>440</sup>



(2) 유연성

유연성이란 커플이나 가족관계에서 변화에 대해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관계 안에서의 리더십, 역할, 규칙들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sup>441</sup> 친밀성과 마찬가지로, 유연성도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단계인 유연성이 없는 단계로부터 유연한

<sup>438</sup> Olson, *커플 체크업*, 244-245.

<sup>439</sup> Olson, *커플 워크북*, 25.

<sup>440</sup> Ibid.

<sup>441</sup> Olson, *커플 체크업*, 248.

관계, 가장 높은 단계인 지나친 유연성이 있다. 이 부분도, 양극단이 짧은 기간 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하지 못하다.<sup>442</sup> 행복한 부부는 평등하게 리더십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규칙을 바꿀 수 있다.<sup>443</sup> 생활이 바빠질수록 커플 및 가족 관계 안에서 변화와 안정의 균형이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삶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므로 커플과 가족은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에서 안정성도 필요하다. 안정성이 없다면 빠르게 변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 누가 자녀의 학교 모임에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인지 등을 정한다. ‘균형적인’ 수준의 유연성이 있는 관계는 체계적이면서도 가족 간에 리더십을 공유한다. 가족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유연성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변화된 상황과 역할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sup>444</sup>

커플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친밀성과 유연성의 결과를 비교해본다.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데이트 중이나 원가정에서 경험한 친밀성이나 유연성에 대해 나눈다. 하이벨스(HyBELS) 부부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서, 각각 자신의 부모와 집안 분위기,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하라고 한다. 가족의 밝은 면 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445</sup> 갖가지 문제와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기억들, 미래의 가정에서는 결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잠재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예비 부부는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공유할 수 있으며, 즐거운 기억과 가족의 소중한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결혼 관계와

---

<sup>442</sup> Olson, *커플 워크북*, 25.

<sup>443</sup> Ibid., 47-48.

<sup>444</sup> Olson, *커플 체크업*, 249

<sup>445</sup> Bill Hybels and Lynne Hybels, *정말 이 사람일까요?*, 박상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108.

가정생활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비 부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둘 사이에 감추어야 할 그 어떤 상처나 비밀이나 기억도 없음을 알게 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는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고 서로를 존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연합을 앞당길 수 있다.<sup>446</sup>

#### 라. 숙제와 마무리

마지막 만남에 서로에게 읽어줄 결혼 서약문을 준비한다. 게리 스몰리의 *평생의 약속*에 나오는 서약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예문을 나누어 준다.<sup>447</sup> 서약문에 나오는 다섯 가지 약속을 읽어보고 예비 신랑 신부가 각자 자신의 서약문을 직접 만들어 오도록 한다.<sup>448</sup> 이 서약문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에게 하는 약속들이지만,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 나눈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예식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예식을 진행할 때 주의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 6 회 만남: Prepare-Enrich 성격(SCOPE) 과 청혼식

부부가 서로 아무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항상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별과 배경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격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성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서로를 사랑하지만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커플들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줄 수 있다.<sup>449</sup>

가. 목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파트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sup>446</sup> Hybels, *정말 이 사람일까요?*, 112.

<sup>447</sup> Gary Smalley, *평생의 약속*, 이나경 역 (서울: 리이프북, 2007), 236-239.

<sup>448</sup> 본 연구자가 주례한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미리 준비해온 결혼 서약문을 읽도록 한다.

<sup>449</sup> Olson, *커플 체크업*, 305.

## 나. 도입

성격에 따라 선호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파트너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게 한다. 유사한 성격과 다른 성격으로 인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파악하게 한다.

## 다. 강의 및 토의(실습)

성격 발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인간이 눈이나 머리카락 색깔을 타고 나는 것처럼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세계관에서도 특정한 성향을 타고난다고 가르친다. 1950 년대에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와 캐서린 브릭스(Katherine Cook Briggs)는 융(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선천적인 특성의 다양한 조합을 기초로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를 고안했다. 이 검사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Assessment 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한국과 이민 교회들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비 학교나 부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된 바 있다.

Prepare-Enrich 프로그램에는 사회성(social), 변화(change), 조직성(organized), 배려(pleasing)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emotionally steady)의 머리 글자를 따서 SCOPE 라고 불리는 성격특성 검사가 있다. SCOPE 의 범주는 긍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5 가지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거나 또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각각의 성격특성은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각각의 SCOPE 의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개요이다.

<표 25> SCOPE 성격척도<sup>450</sup>

사교성(S)	외향적 vs. 내향적	사회적 상황들을 다루기 능숙함, 파티의 중심인물,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함, 친구를 쉽게 사귀, 끊임없이 활동함, 규모가 큰 파티를 좋아함,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음
변화(C)	개방적	다양한 방법을 더 좋아함,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함,

<sup>450</sup> Olson, *커플 체크업*, 315.

	vs. 폐쇄적	새로운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즐김, 가치관이 유연함, 어떤 일을 하는 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즐김, 변화에 편안함
조직성(O)	성실한 vs. 비조직적	항상 준비되어 있음, 계획을 짜고 그것을 밀어붙임, 계획을 실행함,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 일을 구해서 즉시 실행함, 명령하는 것을 좋아함, 규칙을 따름
배려(P)	수용적 vs. 강압적	다른 사람을 존중함, 강요받는 것을 싫어함, 다른 사람의 좋은 의도를 믿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함, 경쟁을 넘어 협동을 가치 있게 여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함, 모든 사람을 칭찬함
정서적 안정(E)	침착한 vs. 반응적	어떤 것에 의해 쉽게 방해받지 않음, 거의 화를 내지 않음, 거의 불평하지 않음, 거의 우울해하지 않음,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해함, 자기 본 모습에 편안함을 느낌, 압박에도 침착함을 유지함

예비 부부들과 성격유형 SCOPE 부분의 결과를 살펴본 뒤, 다음의 질문을 한다.<sup>451</sup>

- 어떤 부분에서 서로의 성격이 비슷합니까?
- 그러한 비슷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나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격유형은 어린 시절 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의 성격 유형을 비난하거나 예비 배우자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올슨(Olson)은 처음 매력을 느끼게 했던 예비 배우자의 성격의 긍정적인 면을 기억하라고 한다.<sup>452</sup> 성격적인 차이는 서로의 독특한 능력과 관점을 부부의 관계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라. 청혼식

청혼식을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비 신부들은 화관을 쓰고 예비 신

<sup>451</sup> Olson, *커플 워크북*, 29.

<sup>452</sup> Olson, *커플 체크업*, 335.

량은 꽃다발을 준비한다. 준비해온 결혼 서약문을 서로에게 읽어 준다. 결혼 예비 학교에 참가한 커플이 5-6 쌍일 경우 한 커플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를 부른 뒤, 상담 목사나 가정 사역원 담당 장로의 기도로 마무리 한다.

## 부록 8 재혼하려는 커플들이 되새겨 볼 이슈와 질문들<sup>453</sup>

- 당신이 재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만한 이유들을 몇 가지 제시하라
- 당신이 재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이유들을 몇 가지 나열하라
- 당신이 이전 결혼 문제를 극복했다고 할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과거의 이슈들 중에서 새로운 결혼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전 결혼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 새로운 결혼에 임하는 시점에서 당신에게 있는 강점이나 특성은 무엇인가?(자기 개념에 대한 점검)
- 새로운 결혼이나 새 배우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태도나 성격, 약점들이 당신에게 있는가?
- 당신에게 있는 우선적인 필요 10 가지는 무엇이며, 새로운 결혼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 미래 배우자의 10 가지 우선적인 필요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 당신의 결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 당신이 재혼하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나 장애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자세한 방안들은 무엇인가?
- 당신이 재혼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미래 배우자의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가?
- 당신의 재혼은 성경적 원리들에 부합되는가? 그러한 증거는 무엇인가?
- 당신이 재혼하여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sup>453</sup> Collins,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688.

## 부록 9 성경적 부모 교실 강의안

### 6회 만남. 감정코칭 검사와 DVD 시청

#### 가. 강의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키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감정적인 표현이 풍부한 아이가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이다.<sup>454</sup>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정서지능은 ‘감정코칭’에 의해 길러진.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코칭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진다.

당신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아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의 감정에 대처하면서 감정코칭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고트만(Gottman)은 ‘감정코칭’을 하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감정목살형’ 부모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1) 별것 아니야, 축소전환형<sup>455</sup>

“우리 규민이 착하지. 아프지 않을 거야. 울지 않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으면 집에 갈 때 아빠가 게임기도 사주고, 이번 주말엔 놀이동산도 데려갈게.” 아플까 봐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얼러서 우선 치과 치료를 받도록 ‘뇌물’을 제공하려 한다면 ‘축소전환형 부모’ 유형에 속한다.

- 아이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한다. 때론 비웃거나 경시한다.

<sup>454</sup> Gottman,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22

<sup>455</sup> 최성애, 조벽,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102-105.

- 감정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은 살아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보이면 불편해서 아이의 관심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린다.
- 아이의 감정은 비합리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유형의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자기가 상황을 느끼는 방식 때문에 자신이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 (2) 그럼 못써, 억압형 부모<sup>456</sup>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감정을 읽어주기보다는 '뚝 그쳐!', "너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 불러 잡아가라고 한다.

-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든다.
-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성격, 나약한 성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 아이는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부정적 감정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 부정적 감정은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 아이의 부정적 감정은 매를 들어서라도 없애주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아존중감이 낮다. 여자 아이는 의기소침하며 우울해하는 경향이 생긴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 있다. 남자 아이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화가 나면 무조건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sup>456</sup> 최성애, 조벽,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105-106.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이 술과 담배를 빨리 배우며,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청소년 비행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 (3) 뭐든 괜찮아, 방임형 부모<sup>457</sup>

어떤 감정이든 다 허용해 얼핏 보면 참으로 이상적인 부모인 것처럼 여겨진다.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다 인정하고 공감해주지만 아이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거나 한계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이 영망이 될 수 있는 양육 방식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방임형 부모는 감정과 관련하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 아이의 보는 감정을 다 받아준다.
-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 감정은 물론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감정을 분출하면 보는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다.
-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아이가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감정을 마음껏 누리고 표출하고 살았으니,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감정 조절은 행동의 한계를 인식해야 가능하다. 자기감정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 언제나 괜찮다고 허용해주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행동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숙하며, 대인관계를 어려워한다.

### (4) 함께 찾아보자, 감정코칭형 부모<sup>458</sup>

<sup>457</sup> 최성애, 조벽,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107-108.

<sup>458</sup> Ibid., 108-111.

아이의 감정을 다 받아주고 공감한다는 면에서는 감정코칭형 부모와 방임형 부모가 같다. 하지만 감정코칭형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그어준다.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는 대략 다음의 두 가지로 간단한 원칙을 세우두면 좋다. 첫째, 남에게 해로운 행동, 둘째,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은 안 된다고 한계를 긋는 것이다.

-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둔다.
- 감정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나누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다 받아들인다.
-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
-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
-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 가. 토론(실습) 및 마무리

‘자가진단 테스트: 당신은 어느 유형의 부모인가?’ 를 한다.<sup>459</sup> 이 테스트에는 부모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일어나는 슬픔, 두려움, 화와 같은 감정에 대한 부모의 느낌을 묻는 질문이 있다. 총 81 개의 항목에 ‘예’ 와 ‘아니오’ 로 답한 후, 네가지 방식의 점수를 비교해 본다. 각 양육 방식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과 그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내용을 읽는다.<sup>460</sup>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DVD 를 시청한 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양상 중 바꾸고 싶은 측면들에 대해 나눔을 가진다.

<sup>459</sup> Gottman,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51-58.

<sup>460</sup> *Ibid.*, 60-64.

## 7회 만남. 아이와 공감하며 대화하는 감정코칭의 핵심 5 단계

### 가. 강의

감정코칭을 잘하려면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경청과 공감의 의미를 ‘아이의 모든 상황을 무조건 이해하고, 아이의 어떤 말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감정은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다 받아주어야 하지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말투까지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옳지 않은 행동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다만 아이를 꾸짖을 때도 여전히 대화의 기술은 필요하다. 감정을 실어 야단을 치면, 아이는 부모가 드러내는 감정에만 주목할 뿐, 부모가 말하는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투로 개선하는 데 있는 만큼, 부모가 대화하는 방법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이의 정서 지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들이다.<sup>461</sup>

1 단계: 아이 감정 인식하기

2 단계: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친밀감 조성의 기회로 삼기

3 단계: 아이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기

4 단계: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 주기

5 단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기

### 나. 토론(실습) 및 마무리

교재에 수록된 아이 감정을 파악하고 부모가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할 수 있는 ‘감정코칭 기술 테스트’를 한다.<sup>462</sup>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지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어떻게 감정코칭을 할 수 있는지 연습할 수 있다. 각 문항마다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sup>461</sup> Gottman,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102-148.

<sup>462</sup> Ibid., 175-180.

답이 있다. 모든 상황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이며, 이에 따른 부모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추측한 뒤에, 아이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 나눔을 가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부모가 허둥지둥 찾는다. 시간이 지난 후 울고 있는 아이를 백화점 직원이 데려온다.

- 부적절한 반응: “바보, 멍청아! 정말이지 너 때문에 화가 나 못살겠다. 다시는 백화점에 데려오나 봐라!”
- 부모의 기대: 부모도 매우 걱정했고 아이가 무사하길 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
- 아이의 감정 상태: 공포.
- 긍정적 반응: “많이 무서웠지. 엄마도 겁나서 혼났단다. 자, 이리 와 엄마한테 안기렴. 앞으로 또 이래서는 안 돼.”

## 8회 만남. 똑똑하게 화내는 부모와 자녀

### 가. 강의

#### (1) 똑똑하게 화내는 부모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한번 화낼 때마다 한번 늙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진다는 뜻이다. 이 오래된 지혜는 최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은 건강은 물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가 난 아이를 다룰 때 부모가 같이 화를 내면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 호통 치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게 화를 내게 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똑똑하게 화내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매일 마다 실천해야 한다. 화난 아이를 다루는 부모 지침을 ‘화’의 영어 단어인

‘ANGER’의 알파벳을 이용해 설명한다.<sup>463</sup>

Acknowledge: 먼저 화난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가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Notice: 부모도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Gear down: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감정이 상승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려면 잠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를 잠시 자기 방 안에 가 있게 하거나 부모가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Time Out 을 활용한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한다거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셔도 좋다. 아니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50 까지 세어보는 방법도 있다.

Express: 이제 자녀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 부모의 화난 감정을 ‘나 전달법(I message)’으로 표현해 본다. 훨씬 부드러운 대화의 장을 열어 자녀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나 전달법: “엄마가 숙제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네가 귀담아듣지 않으니 엄마는 화가 나는구나. 네가 숙제를 안 해 가서 선생님이 무책임한 아이로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 너 전달법: “넌 도대체가 몇 번을 말해야 말귀를 알아듣겠니? (엄마가 너 때문에) 속 터진다 속 터져. 네가 자꾸 숙제를 안 해 가면 선생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니?”

‘나 전달법’은 부모가 느끼는 감정의 주체가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부모가 받는 감정의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된다. 하지만 ‘너 전달법’은 부모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이라는 죄책감과 함께 ‘너 때문’이라는 비난의 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 문을 닫고 철통방어막을 치게 된다. ‘나 전달법’의 핵심은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말하고 부모에게 미친 영향과 그 때문에 갖게 되는 부모의 감정 또는 느낌을 전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녀가 거부감 없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더 나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나 전달법’을 쓴

<sup>463</sup> 오은영, *엄마표 마음치방전*, 283.

다음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청취를 해야 한다.<sup>464</sup>

**Recognize:**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중에서 부모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없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기를 요구해서 아이를 화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무턱대고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아이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화낸 것에 대해 사과하는 용기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

## (2) 똑똑하게 화내는 아이

화내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화를 냈을 때 무조건 “화내지 말라고 했지.” 같은 식으로 대응한다면 당장에는 아이의 화에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현명한 부모의 태도가 아니다. 비록 ‘화’ 라는 감정으로 표출되기는 했지만, 화도 엄연히 아이가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이므로 이것을 억압한다는 것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 자체를 억압하거나 없애는 것과 같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가 화를 낼 때에도 그 화난 감정 자체는 받아 주면서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화를 표출하지 말고 좀 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화라는 것은 좌절감에 의한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이므로 심각한 문제 행동이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화를 내는 이유를 잘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다루어 주고, 심각한 정도를 따져 보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의도적인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 오은영은 화가 난 아이의 마음 처방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465</sup>

첫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 화를 내는 아이를 다룰 때 부모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화난 아이를 야단치고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sup>464</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161.

<sup>465</sup> 오은영, *엄마표 마음처방전*, 271-273.

둘째,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아이에게 다른 형태의 적절한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때 아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감정은 수용해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셋째,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기: 부모는 아이가 배워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해 주고 시범을 보여 주어야 하며, 벌주는 것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부모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향해 직접적으로 심하게 화를 내더라도 부모는 화내지 말고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다.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니 아이가 화내고 욕을 한다고 덩달아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도 화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된다.

넷째, 허용해 주어야 할 ‘화’와 허용해 주지 말아야 할 ‘화’를 구별해서 지도하기: 아이가 골을 내거나, 낙서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발을 구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으로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면 허용해 주어도 된다. 그러나 화가 났다고 심한 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생떼를 부린다면 그러지 못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조언을 해 주되 명령하지 않기: 아이가 화를 내면서 블록을 던질 때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본다. “OO야, 블록은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다칠 수도 있거든. 그 블록으로 집짓기를 하거나 놀이를 하는 게 더 좋아. 우리 집짓기 놀이 할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달래 준 후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화난 이유를 찾는 것이 좋다.

여섯째, 아이가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신체적인 움직임은 우리의 어떤 감정, 그중에서도 분노나 적개심 등을 밖으로 배출하여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났을 때 평소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아이 스스로가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주 화를 낼수록 아이도 자주 화를 내게 된다. 화내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훈육과 양육 지침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해 주고, 솔선수범하면서 진실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나. 토론(실습) 및 마무리

‘나 전달법’에 대해 설명한 뒤 말하기 실습을 한다.<sup>466</sup> (1) 직면적 ‘나 전달법’은 자녀의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이 불편해 졌을 때 자녀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으면서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이다. (2) 긍정적 ‘나 전달법’은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 같은 부모의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표현법이다. (3) 예방적 ‘나 전달법’은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기에 앞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주의를 주는 방법이다. 최근에 자녀와 나누었던 좋은 대화의 사례가 있으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경적 부모 교실을 수강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점들을 나누어 마무리한다.

---

<sup>466</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161-171. ‘나 전달법’ 실습을 위한 18 개의 상황들을 조별로 나누어서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다.

## 부록 10 가정 예배, 축복의 통로<sup>467</sup>

가정 예배는 영적 능력을 공급하는 믿음의 샘터이며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은혜의 젖줄이다. 청교도들은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헤드리는 삶인가 하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 교육하였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크리스천 가정의 핵심 부분이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째, 규칙적인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예배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다가는 좀처럼 시간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 가정예배 시간은 언제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 물론 매일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다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일에는 아침에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날의 성경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다.

둘째, 예배 담당자를 정해야 한다. 사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 담당자를 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예배 담당자가 반드시 가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이 혼자서 맡는 것보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좋다. 매월 첫째 주는 가장인 아빠가, 둘째 주는 엄마가, 셋째 주는

<sup>467</sup> 김성호, “행복비타민: 가정 예배, 축복의 통로,” *패밀리투데이*, 2012년 4월호, 11.

첫째가, 넷째 주는 둘째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여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일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예배시작 기도 - 찬송 - 기도 - 말씀읽기와 나눔 - 기도제목 나눔과 기도 - 주기도문 정도가 좋다. 그러나 꼭 어떤 틀에 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즐거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의 신앙 교육과 질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 은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정예배는 무너져 가는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고, 한 몸의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가정예배의 시간과 장소, 담당자를 정하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믿음 명가 행복 명가 이루길 바란다.

## 부록 11 훈계 십계명

(1) 하나: 한 번에 (하나)씩 지시하세요.<sup>468</sup> 효과적으로 지시하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에 한두 개의 지시에만 따를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아이에게 시킨 일이 복잡한 것이라면, 그 일을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한 번에 오직 한 단계씩만 시켜야 한다.

(2) 둘: 자녀와 단(둘)이 있을 때 교정하세요. 엄마가 교정할 때 다른 식구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아빠가 교정할 때 엄마가 아이 편을 들거나 엄마가 교정할 때 할머니가 아이 편을 들면 아이는 눈치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게 되고, 버릇이 나빠지고 점점 다루기 힘든 아이로 변할 수 있다.<sup>469</sup>

(3) 셋: 하나 둘 (셋)하고 애청하거나 수를 세지 마세요.<sup>470</sup> “엄마가 열을 셀 때까지 오는게 좋을거야. 하나, 둘, 셋...” 보다는 “지금 바로 밥 먹으러 와라” 고 단호하게 말하고, 아이가 오지 않으면 당신이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지금 바로 밥 먹지 않으면 엄마는 밥을 치울 것이고 너는 오늘 저녁을 못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4) 사랑: 징계의 원인이 (사)랑임을 알게 하세요.<sup>471</sup>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이니라” (히 12:6).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함을 자녀가 알게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은 마음이 어리고 가치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다. 따라서 부모가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sup>468</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81.

<sup>469</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68.

<sup>470</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79

<sup>471</sup> *Ibid.*, 74.

(5) 오해: 징계가 부모의 (오)해에서 연유한 것이면 용서를 비세요.<sup>472</sup> 만약 잘못된 징계를 하였다면 비겁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때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신뢰감이 싹트게 된다.

(6) 교육: 교정하기 전에 당신의 교(육)을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sup>473</sup> “우리 규칙이 무엇이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지?”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한다.

(7) 하나님: (하나님)을 궁극적 권위로 설정하세요.<sup>474</sup>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아이로 하여금 가장 최고의 권위로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가르친다. 부모 앞에서 자녀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 칼빈의 인생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였다.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지키지 못해도, 그 자녀를 늘 보호하시며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자녀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엄마는 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잘못했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단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8) 발 / 손: 부모의 손이나 (발)로 자녀를 때리지 마세요.<sup>475</sup> 불가피하게 자녀를 때려야 한다면 몸을 다치지 않는 ‘물건’ 인 회초리나 막대기를 사용해야 한다. 사랑의 매를 준비하여 특별한 곳에 두고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모의 신체는 사랑의 표현으로 기억되게 한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던 손으로 체벌을 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모의 손은 사랑스런 자녀를 쓰다듬고 안아주는 것으로만 기억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녀의 신체를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가장 안전한 부위인 엉덩이로

<sup>472</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77.

<sup>473</sup> *Ibid.*, 84.

<sup>474</sup> *Ibid.* 74. 성경에서 7 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 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한다.

<sup>475</sup> *Ibid.*, 70.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9) 아홉: 매는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세요.<sup>476</sup> 잠언 13 장 24 절과 19 장 18 절, 그리고 20 장 30 절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 자녀들은 감각적으로 활용된 경험이 깊이 각인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유용하게 된다. 이때 사랑으로 경험한 체벌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큰 약이 되고 좋은 지침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10세가 넘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반발심과 반항심을 가져오게 된다. 10세가 넘어서는 대화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10) 열: 훈계하기 전에 먼저 (열)까지 천천히 세도록 하세요.<sup>477</sup> 벌도 절대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특히 체벌할 때는 부모의 이성을 최대한 살려야 할 순간이다. 어느 교육학자는 “화가 났을 때 하나부터 열을 셀 수 없는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네가 또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엄마는 반드시 ~할거야”라고 말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고 과한 징계를 약속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를 수 없는 징계를 엄포와 협박으로 사용하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다면 그 만큼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하게 된다.

(11) 기도하는 손: 벌을 주고 난 후에 바로 위로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 하고 자녀와 함께 있어 주세요.<sup>478</sup> 교정 후에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버려”, “네 방으로 가 있어”라고 하는 말들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음을 분명히 알려주며, 잠시 동안 자녀와 함께 있어 준다. 아이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징계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sup>476</sup>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75.

<sup>477</sup>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76.

<sup>478</sup> 이기복, 77. 기도하기 위해 모은 두 손은 11 자 모양을 한다. 부모들과 훈계 십계명을 외운 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 한다.

## 부록 12 나는 결혼생활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가 진단 질문서<sup>479</sup>

아래의 각 내용을 읽고, 당신의 신념과 태도에 가장 가까운 답을 표시하라. 지금 당신에게 해당하는 답이 당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라.

5 점=강력히 동의한다. 4 점=동의한다. 3 점=잘 모르겠다. 2 점=동의하지 않는다. 1 점=강력히 반대한다.

- \_\_\_ 1. 충고하는 것은 훌륭한 멘토링과 거의 관계가 없다.
- \_\_\_ 2.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다.
- \_\_\_ 3. 나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
- \_\_\_ 4.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 \_\_\_ 5.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도 나의 직관력을 믿는 경향이 있다.
- \_\_\_ 6. 진행 경과를 알기 위해 굳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볼 필요는 없다.
- \_\_\_ 7. 멘토링에서는 나의 인격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 \_\_\_ 8.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인 평가를 받는 일에 위협받지 않는다.
- \_\_\_ 9. 나는 감정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_\_\_ 10.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나의 한계를 안다.

총 점수(1-10 문항에서 나온 답의 점수를 더하라)

- 40-50 점      유능한 멘토가 되는 길을 잘 가고 있다. 그 자질들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 30-39 점      유능한 멘토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생활 멘토링에 필요한 기술들을 기르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 30 점 이하    당신의 장점들을 평가해주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특성들을 지적해줄 사람에게 충고와 조언을 구하라.

<sup>479</sup>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51.

### 부록 13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sup>480</sup>

- 멤버들 중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듯 침묵하며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배우자까지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합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갑작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섭식 장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칼로 베거나 불로 태우는 식으로 자해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특정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족의 친구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오랫동안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 죄책감을 느껴온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 멤버들 중에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어떤 사람, 특히 애인이나 배우자와 아이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가?
- 멤버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 멤버들 중에 불면증, 밤에 계속 깨는 현상, 잦은 악몽 또는 너무 많이 자는 등 심각한 수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 멤버들 중에 어두운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가?
- 멤버들 중에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그에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멤버들 중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공황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가?

<sup>480</sup>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259-260.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강병도. *창세기*. 카리스 종합 주석(구약) 제 1 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3.

\_\_\_\_\_. *히브리서*. 카리스 종합 주석(신약) 제 23 권. 서울: 기독지혜사, 2003.

고병인. “중독, 학대,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상담.” *가족과 상담* 1 (2011): 71-88.

권오균. *참자아를 찾아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김래현. “교회와 가정 사역.” *주님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회봉사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김명화.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 강의. 열린문 장로 교회, 2013년 5월 4일.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서울: 두란노, 2016.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_\_\_\_\_.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김인환.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멘토링*. 서울: 두란노, 2011.

김준수.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0.

김충정. *시니어 사역과 죽음 준비 학교* 강의안. 제 4 회 가정 사역 컨퍼런스, 2011년 3월 28일 -29일.

“내조의 여왕, 외조의 고수 10 계명.” *하이패밀리 자료실* 보도자료 번호 207.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hifamily.net>.

“노년의 삶, 종교를 다시 생각한다.” *뉴욕 중앙일보*, 2009년 10월 6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8927](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18927).

민병갑.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 *정신문화연구*, 1995년 10월호, 119-136.

박혜원. “새 창조에서의 부부관계.”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부부 갈등 원인 '외도' 가장 많아, 기독교 상담소 통계.” *LA 중앙일보*, 2009년 1월 15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1338](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1338).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2.

송길원, 김향숙. “차이: 5-3=2.” *연리지 사랑 세미나 강의집*. 서울: 해피홈, 2007.

엄예선. “산위에 세운 도성 1.” *하나*, 2006년 12월 5일호.

\_\_\_\_\_.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오은영. *엄마표 마음 처방전*. 서울: 중앙북스, 2008.

오제은. “가족을 고려하는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오피스 와이프, 10명중 3명 ‘있다’...배우자나 연인에게 있다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3년 10월 11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news.joins.com/article/12830753>.

우형건. “자살예방 교회가 나서야 한다.” *크리스찬 투데이*, 2007년 3월 14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9913](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9913).

유영렬. “북미주 한인의 역사(상),” No publisher.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db.history.go.kr>.

유재성.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에 대한 진단과 희망.”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7.

이기복. *성경적 부모 교실*. 서울: 두란노, 2005.

\_\_\_\_\_. *예비부부와 기혼부부를 위한 결혼코칭*. 서울: 두란노, 2011.

이동원. *향유 내음 가득한 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이영숙.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계법*. 서울: 두란노, 2008.

이정석. “교회의 세 가지 이혼관과 성경적 입장.”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이천선. “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이희범. *가정 사역 부부학교 초급과정*.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자녀의 ‘정신건강 성적’도 아십니까?” *한국일보* 2008년 1월 28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ny.koreatimes.com/article/20080128/429635>.

전명희. *가정폭력 예방 가이드북*. Annandale, VA: 워싱턴 한인 복지 센터, 2006.

정동섭. *행복한 치유자*. 서울: 청우, 2000.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베다니, 1994.

“죽음준비학교 입관체험” *아멘넷 뉴스* 2016년 4월 23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talk&wr\\_id=858&page=14](http://usaamen.net/bbs/board.php?bo_table=talk&wr_id=858&page=14).

창립 30주년 기념사역위원회. *은혜가 이끄는 교회*. 서울: 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14.

천만큐티운동본부. *큐티세미나: 중급반 교재*. 서울: 두란노, 2011.

최영기. “교회 안의 이혼, 이렇게 대처하자.” *가정 사역*.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0.

최혜련. “이민 가정 자녀 교육, 자녀의 존재 자체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기독일보* 2012년 8월 22일.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5.

“한인 이민 2세, 자존감 가장 낮아” *보스톤 코리아* 2013년 9월 13일자. 2017년 12월 인용.

Online: <http://www.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18004>.

홍영택. *가족목회*. 서울: KMC, 2016.

홍인중. “가정 사역의 기초” *주님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회봉사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_\_\_\_\_. *결혼과 가족*. 서울: 하늘향, 2014.

“흔들리는 가정, 무엇이 문제인가.” *크리스천 투데이*. 2004년 5월 12일자. 2018년 2월 인용.

Online: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3396&section=section4](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3396&section=section4).

## 2. 번역 서적

Adams, Jay E. *목회상담학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교, 2001.

\_\_\_\_\_.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송용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0.

- Allender, Dan B.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How Children Raise Parents)*. 정문옥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7.
- Arp, David and Claudia. *열 번의 데이트 (10 Great Dates to Energize Your Marriage)*. 정태기 역. 서울: 상담과 치유, 2007.
- \_\_\_\_\_. *중년기 이후의 부부, 이렇게 사랑하라 (The Second Half of Marriage)*. 정동섭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5.
- Baker, John. *회복 축제: 참가자용 교재 1 (Stepping Out of Denial into God's Grace: Participant's Guide 1)*. 정동섭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 Balswick, Jack O. and Judit K. *크리스천 가정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2006.
- Bufford, Bod. *하프타임 (Halftime: Moving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이창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Chapman, Gary. *5 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 장동숙,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1.
- \_\_\_\_\_. *사랑의 언어 365 (The One Year Love Language Minute Devotional)*.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0.
- \_\_\_\_\_. *언약 결혼 (Covenant Marriage)*. 김유태 역. 서울: 황금부엉이, 2004.
- \_\_\_\_\_.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 가지 포인트 (The Marriage You've Always Wanted)*.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Chase, Betty N.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 (Discipline Them, Love Them)*.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 1992.
- Church Initiative. Church Initiative, *이혼가정 회복모임 인도자용 지침서 (Divorce and Care Leader's Guide)*. Wake Forest, NC: Church Initiative, 2009.
- \_\_\_\_\_. *Grief and Share 인도자용 지침서 (Grief and Share Leader's Guide)*. Wake Forest, NC: Church Initiative, 2007.
-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Revised: Resources for the*

- Ministry of Healing & Growth*).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7.
- \_\_\_\_\_. *전인건강 (Well Being)*. 이종헌, 오성춘 역.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 Collins, Gary R. *가정의 충격 (Family Shock)*.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 \_\_\_\_\_.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Christian Counseling)*. 3<sup>rd</sup> edition.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역. 서울: 두란노, 2009
- Crabb, Lawrence J. *결혼 건축가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2.
- Crabb, Larry, Kevin Leman, Les and Leslie Parrott, Gary Smalley, Becky and Roger Tirabassi, and Neil Clark Warren. *빼앗긴 결혼생활 중심 바로잡기 (Bring Home the Joy)*. 서울: 좋은 씨앗, 2001.
- Friesen, Deloss D. *결혼상담 (Counseling and Marriage)*. 김만풍 역. 서울: 두란노, 1996.
- Garland, Diana S. and Betty Hassler. *부부의 삶 (Covenant Marriage: Partnership and Commitment)*.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Gottman, John M.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남은영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7.
- Gottman, John M. and Nan Silver.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2002.
- Hybels, Bill and Lynne Hybels. *정말 이 사람일까요? (Fit To Be Tied)*. 박상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 Ingram, Chip. *분노컨트롤 (Overcoming Emotions That Destroy)*.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1.
- Jones, Timothy Paul. *가정 사역 패러다임 시프트 (Perspectives on Families Ministry)*. 엄선문, 박정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Keller, Timothy.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4.
- Kendrick, Stephen and Alex Kendrick. *사랑의 도전 (The Love Dare)*. 이지혜 역. 서울: 살림, 2009.
- Kuniholm, Whitney T. *E100 성경읽기 가이드 (Essential 100: Y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in 100 Readings)*. 전의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 Lester, Andrew D. and Judith L. Lester.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을까? (It Takes Two: The Joy of Intimate Marriage)*. 신선명, 신현복 역.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09.

- Litchfield, Bruce and Nellie.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Happy Families)*.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0.
- Lowery, Fred.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Covenant Marriage: Staying Together for Life)*.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 Martin, Grant L. *가정폭력과 학대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김연 역. 서울: 두란노, 1996.
- Maston, Thomas Bufford.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The Bible and Family Relations)*.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Maxwell, John and Brad Lewis. *주님과 함께하는 푸짐한 밥상 (Your Family Time With God: A Weekly Plan for Family Devotions)*. 마영래 역. 서울: 디모데, 1999.
- Olson, David H. and Peter J. Larson. *약혼 커플 토의 지침 (Couple Checkup)*. Life Innovations, 2006.
- \_\_\_\_\_. *커플 워크북 (Workbook for Couples)*. Life Innovations. 2007.
- \_\_\_\_\_. *커플 체크업 (The Couple Checkup)*. 김덕일, 나희수 역. 서울: 학지사, 2011.
- Omartian, Stormie.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The Power of a Praying Husband)*.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_\_\_\_\_.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기도모음 (The Power of a Praying Husband)*.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_\_\_\_\_.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기도모음 (The Power of a Praying Wife)*.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Parrott, Les and Leslie Parrott.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생활 멘토링 (Marriage Mentoring)*. 유정희 역. 서울: 디모데, 2009.
- Pruyser, Paul W. *진단자로서의 목사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ersonal Problems in Pastoral Perspective)*. 유희동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2.
- Rayney, Dennis and Barbara. *내 곁에 있는 당신 (Staying Close)*. 금병달, 금정진 역. 서울: 순 출판사, 2011.
- Rekers, George A. *가정상담 (Counseling Families)*. 오성춘 역. 서울: 두란노, 2007.

- Satir, Virginia. *아름다운 가족 (The New People Making)*. 나경범 역. 서울: 창조문화, 1999.
- Sell, Charles M. *가정 사역 (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 Sledge, Tim. *가족치유 마음치유 (Making Peace with Your Past)*.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3.
- Smalley, Gary. *평생의 약속 (I Promise)*. 이나경 역. 서울: 라이프북, 2007.
- Snyder, Douglas K. Donald H. Baucom and Kristina Coop Gordon.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Heal, and Move On-Together or Apart)*. 권정혜, 오현주, 정정숙 역. 서울: 학지사, 2010.
- Stott, John. *결혼과 이혼 (Marriage and Divorce: When Is Divorce Permitted? : What About Remarriage? What Is God's Ideal?)*. 김원주 역. 서울: 두란노, 1991.
- Swindoll, Charles R. *행복한 가정의 탄생 (Marriage: From Surviving to Thriving)*. 윤종석 역. 서울: 디모데, 2010.
- Tan, Siang Yang. *평신도 상담자 (Lay Counseling)*.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 Thompson, David A. *이혼상담 (Counseling and Divorce)*. 남상인 역. 서울: 두란노, 2002.
- Tripp, Tedd.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Shepherding a Child's Heart)*. 조경애, 조남민 역. 서울: 디모데, 2005.
- Walk Thru the Bible. *피플퍼즐 세미나 (How to Solve the People Puzzle)*. 디모데성경연구원 역. Santa Fe Springs, CA: 디모데성경연구원, 2000.
- Wilson, Douglas. *결혼 개혁 (Reforming Marriage)*. 김준범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4.
- Worthington, Everett L. *결혼 예비 상담 (Counseling Before Marriage)*. 김창대 역. 서울: 두란노, 2007.
- Wright, Norman. *둘이 가는 한 길 (Quiet Times for Couples: A Daily Devotional)*. 박혜영, 정사윤 역. 서울: 두란노, 1995.
- Young, Ed. *부부십계명 (The 10 Commandments of Marriage)*. 홍종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3. 외국 서적

“12 Steps to an Affair.” *Marriage Prep*. Seminar Notes. Houston: Second Baptist Church, May 2017.

- Anderson, Herbert. *The Family and Pastoral Care*. Eugene, OR, 2001.
- Asian Women's Shelter, Korean Community Center of the East Bay, and Korean American Coalition to End Domestic Abuse. *Shimtu,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Bay Area Domestic Violence Needs Assessment Report*, 2000. Oakland, CA. 2000.
- Barnhill, Carla. *Blessings Every Day*.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1.
- Brown, Autry. *Church Family Life Conference Guidebook*. (Nashville: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73.
- Chapman, Gary. *The One Year Love Language Minute Devotional*.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09.
- Chartier, J. and M. *Nurturing Faith in the Family*.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6.
- Chartier, Myron. "Parenting: A theological mod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6 (1978): 54-61.
- Clapp, Rodney. *Families at the Crossroads*. Downers Grove, IL: IVP, 1993.
- Dion, Jennifer. *Fireproof Your Marriage Participant's Guide*. Vista, CA: Outreach, 2008.
- Eisenman, Tom L. *Temptations Men Face: Straightforward talk on Power; Money, Affairs, Perfectionism, Insensitiv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0.
- Garland, Diana R.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VP, 1999.
- Genne, Elizabeth and William. *Church Family Camps and Conference*.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9.
- Getz, Gene A. and Kenton Getz. *The Measure of a Young Man: Become the Man God Wants You to Be*. Grand Rapids, MI: Revell, 2011.
- Harris, R. Lair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for the Old Testament*, vol.1. Chicago: Moody, 1980.
- Kendrick, Stephen and Alex Kendrick. *The Love Dare*. Nashville, TN: B & H Publishing Group, 2008.
- Kim, Jae Yop and Kuy Taik Sung. "Conjugal Violence in Korean American Families: A Residue of the Cultural Tradition." *Journal of Family Abuse*. 4 November 2000, 331-345.
- Koo, Katie Kwon. "Predictors of feelings of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h. D. di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16.

- Leonard, J. Jr. Leonard. *A Church Guide for Strengthening Families: Strategies, Models, Programs, and Resource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2.
- Matterson, Richard and Janis Long Harris. "What Kind of Friend Are You?" *Marriage Partnership*. Seminar Notes. Winter 1994.
- Mayer, Herbert T. "Family Relationships in North America," *Family Relationships in the Church*. St. Louis: Concordia, 1970.
- Maxwell, John and Brad Lewis. *Your Family Time With God: A Weekly Plan for Family Devotions*. Colorado Springs, CO: Chariot Victor Pub, 1995.
- Min, Pyong Gap. *Changes and Conflicts: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Boston: Allyn and Bacon, 1998.
- Mindel, Charles, Robert Habenstein, and James Wright, Jr..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New York: Elsevier, 1997.
- Money, Royce. *Ministering to Families: A Positive Plan of Action*. Abilen, TX: A.C.U. Press, 1987.
- Parrott, Les and Leslie Parrott. *Marriage Mentor Training and Recruiting Leader's Guid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 Rose, Ron. "The Family Unit: Turn the Key-Open the Door," *Christian Bible Teacher*. May 1972, 188-189.
- Rozeboom, John. *Family Camping: Five Designs for Your Church*. Nashville: Board of Discipleshi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73.
- Small, Dwight. *Right to Remarry*. Old Tappan, NJ: Revell, 1975.
- Snyder, Douglas K. Donald H. Baucom and Kristina Coop Gordon. *Getting Past the Affair: A Program to Help You Cope, Heal, and Move On-Together or Apart*.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07.
- The Barna Group. "Born Again Adults Less Likely to Co-Habit, Just As Likely to Divorce." *The Barna Update* (6 August 2001).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www.barna.org>
- \_\_\_\_\_. "Born Again Christians Just As Likely to Divorce as Are Non-Christians," *The Barna Update* (8 September 2041):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www.barna.org>
- Thomas, Gary. *A Lifelong Love*.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14.

U.S. Census Bureau. "5% *Public Use Microdata Sample of the 2000 Census*." No publisher. Cited 31

December 2017. Online: <https://www.census.gov/census2000/PUMS5.html>.

Wright, Norman. *Quiet Times for Couples: A Daily Devotional*.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1990.

Vita of  
Sungho Kim

Present Position:                   Lead Pastor of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Personal Data:

Birth Date:                         July 18, 1971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mi with three children

Home Address:                   20230 Prince Creek Dr., Katy, TX 77450

Phones:                            443) 857-0129

Denomination: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n)

Ordained:                         December 18, 2005

Education:

B. A.                                 Zion Bible College, Haverhill, MA , 1995

M.A.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Hatfield, PA, 1997

M. Div.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Hatfield, PA, 200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18

Personal Experience:

2017 to present                   Lead Pastor of Joyful Community Church, Katy, TX

2015 to 2017                     Senior Pastor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Houston,  
TX

2007 to 2015                     Family Ministry and Counseling Pastor of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Herndon, VA

## Professional Membership / Academic Honors:

2007 to present	Lecturer of Duranno Father School
2009 to 2015	Lecturer of Washington Christian Counseling Institute, Centreville, VA
2013 to 2015	Lecturer of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Annandale, VA